

2012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
- 연수일정 및 장소
 - 서울 1기 : 2013.1. 7(월)~1.11(금)
 - 서울 2기 : 2013.1.14(월)~1.18(금)
 - 광주 1기 : 2013.1.21(월)~1.25(금)
 - 연수 장소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임광빌딩 11층)
 -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보람관 412호
 - 연수대상 : 전국 중등 사회과 교사
 - 주 최 : 동북아역사재단
-

2012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일정표

- 서울 제1기 : 2013.01.07. ~ 01.11. (09:30 ~ 16:30, 5일간)
- 서울 제2기 : 2013.01.14. ~ 01.18. (09:30 ~ 16:30, 5일간)
- 광주 제1기 : 2013.01.21. ~ 01.25. (09:30 ~ 16:30, 5일간)

교시 날짜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09:2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30 ~13:2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0
제1일 1.7(월) 1.14(월) 1.21(월)	등록/ 개강식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과 내용			과목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선사 및 고대시기 인식 논의를 중심으로			
	강사	안병우(한신대학교)			강사	조법중(우석대학교)			
제2일 1.8(화) 1.15(화) 1.22(화)	과목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 - '2-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단원을 중심으로			과목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동요			
	강사	정연(영락고등학교)			강사	손승철(강원대학교)			
제3일 1.9(수) 1.16(수) 1.23(수)	과목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과목	동아시아 근대의 질서변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사	한명기(명지대학교)			강사	신주백(연세대학교)			
제4일 1.10(목) 1.17(목) 1.24(목)	과목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칠까-5·6 단원을 중심으로/VI단원,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			과목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과 사례			전문가 특강
	강사	박중현(양재고등학교)/ 한경아(한영고등학교)			강사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조영남 (서울대)
제5일 1.11(금) 1.18(금) 1.25(금)	과목	베트남 특강 - 근현대 중심으로			과목	상생을 위한 일본사의 이해 - 막말·명치초기사			수료식
	강사	노영순(한국해양대학교)			강사	이원우(동북아역사재단)			담당자

* 개강식 및 수료식 시간은 연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목 차 ◆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과 내용
..... 안병우(한신대)/7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 선사 및 고대시기 인식 논의를 중심으로
..... 조법중(우석대)/21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
- ‘2-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단원을 중심으로
..... 정 연(영락고)/43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동요
..... 손승철(강원대)/57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 한명기(명지대)/69

동아시아 근대의 질서변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신주백(연세대)/81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칠까
-5·6 단원을 중심으로(서울 연수)
..... 박중현(양재고)/91

VI단원,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광주 연수)
..... 한경아(한영고)/103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과 사례
..... 김정인(춘천교대)/119

베트남 특강
- 근현대 중심으로
..... 노영순(한국해양대)/135

상생을 위한 일본사의 이해
- 막말·명치초기사
..... 이원우(동북아역사재단)/165

※ 본 교재는 교원연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과 내용

안병우(한신대)

머리말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사’는 사회교과의 한 과목으로, 2,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교육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교육의 성과나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처음 개설한 과목이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를 개설한 이유는 한중일 삼국 사이에 발생하는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이다. 21세기 벽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은 점차 심화되었고, 영토문제까지 추가되어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개설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전향적 대응이며, 동아시아인의 역사인식 공유 혹은 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역사학(교육학)적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사가 역사의 한 분야로 성립 가능한가, 동아시아가 하나의 역사 단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중국의 統一的 多民族國家論, 유럽사가 곧 세계사라는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할 수 있지만, 自生的으로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역사 單位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1. 개설 배경과 지향

1) 개설 배경

‘동아시아사’ 개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12월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개설한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되었다.¹⁾ ‘동아시아사’를 개설하게 된 배경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²⁾

직접적인 배경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발생 내지 격화되고 있는 역사 갈등이다. 현존하는 가장 큰 역사 갈등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침략과

1)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역사교육강화방안 발표

2) 안병우, 2007, 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개설의 배경과 내용」 『역사교육』 78, 79, 80, 전국역사교사모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1995년 終戰 5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역사 재평가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본이 벌인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한 동아시아 인민을 해방시킨 전쟁이었으며,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정치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2년 후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되었고, 마침내 이들이 편찬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01년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였다.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가 발행되자,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 피지배와 피침략 국가에서는 일제히 반발하였다.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이지만, 그것은 동아시아 전 지역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새역모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채택 저지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새역모'는 2005년에 공민교과서까지 출판하였으며, 작년에는 새역모가 분열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2종과 공민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발행하였으며, 이들 교과서의 영향과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의 개정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은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다.

2003년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연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02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국에 알려졌으며, 한국민은 한국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 교섭을 통해 미봉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계속 대처하게 하였다. 2007년에 동북공정은 마무리되었지만,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중국 동북 지역 역사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역사 교육을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역사교육 강화는 흔히 자국사 교육의 강화로 나타났지만, 2006년에는 '동아시아사'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일국사, 특히 과도한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에 입각한 일국사적 관점이 역사를 왜곡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지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결정이다. 객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를 진작시키는 것이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

에는 한국사 교육 강화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주장도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의 배경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현실이라고 하겠다.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는 갈등과 화해의 양면이 공존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중국, 북한과 대립하는 정치정세, 북핵문제 등은 동아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의 하나로 꼽게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영토문제로 한국-일본, 일본-중국과 타이완, 일본-러시아, 중국-베트남, 필리핀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센카쿠(尖角)열도를 놓고는 일본과 중국이 거의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고, 독도를 둘러싼 갈등도 올 여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중일 3국이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역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 사이의 물질 인적 교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해왔으며, 각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 교류의 증가는 한중 FTA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문화 분야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증대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시켰다.

평화와 共榮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해 논의할 때 공통의 기반으로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이 공통의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독자의 특성을 갖고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경험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구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자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저간의 사정과 관련하여 한중일간에 역사 교류와 대화가 꾸준히 진전되고, 공동 연구의 결과가 속속 출간된 점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의 역사교육연구회가 양국의 역사교과서 검토 결과로 발간한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2000)에 이어 한일의 역사 교사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조선통신사’(2005), ‘마주보는 한일사’(2006)가 발간되었다. 이들은 일국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대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담은 소중한 성과이며,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중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2005년에는 한중일 3국의 학자와 교사들이 공동으로 ‘미래를 여는 역사’를 발간하였다. 3국에서 동시에 출간된 이 책은 비록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만을 다룬 중등학교 교재였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3국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에서도 ‘東亞史’(2006)라는 주목할만한 책을 발간했으며,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서들이 출간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결국 동아시아사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마지막으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내부에서의 반성과 요구를 들 수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역사교육을 해 왔다. 중학교의 경우, 어떤 시기에는 ‘국사’는 독립 교과서를 갖고 있었지만, 세계사는 사회 교과서에 서술되기도 하였다. 세계사 속에는 한국사가 포함되지 않고 한국사 교과서에도 세계사는 거의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배울 기회는 없었다. 곧 역사는 ‘우리 역사’와 ‘남의 역사’로 구성되었고, ‘우리’와 ‘남’을 함께 보면서, 그 상호 관계에서 역사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포함된 지역의 역사를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역사’를 개설하고, ‘국사’를 ‘한국사’로 고친 것과 동아시아사 개설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동아시아사’는 이러한 일련의 한국의 역사교육의 방향성과 인식의 진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립하였다.³⁾

2)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 : 평화로운 발전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를 “과거부터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문자, 사상, 제도 등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왔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역사 및 지역 단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된” 과목,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으로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 하고,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이해하며,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함으로써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게 하며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교과서의 서문에 나타난 교육 목표도 대체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목표로 첫째,

3) 이지원, 2012 「한국 교과서와 역사인식 -동아시아 지역사와 국민국가 인식」 제1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 도쿄대회 발표 원고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 둘째, 지역 사이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 셋째, 동아시아 공통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의 세 가지를 들었다.⁴⁾ 교학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이 있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기르고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역사 갈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극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⁵⁾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모두 동아시아사의 목표를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교류와 갈등의 요소를 탐구하여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평화를 지향하는 실천적 동아시아인의 육성을 목표로 삼는 과목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동아시아사는 학생들에게 동아시아라는 지역 인식을 자극하고,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심어주려는 국민교육의 첫 시도이며, '힘의 균형에 의존한 아시아 평화질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평화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공유에 의한 아시아 평화질서'의 길을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후자의 길을 지향하는 아시아 시민 교육의 첫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⁶⁾

2. '동아시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1)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서술 및 교육을 위한 준비

2006년 12월 '동아시아사'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이후 곧바로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기간은 두 달 여에 불과했지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팀은 한국사와 중국사, 일본사 전공자, 그리고 유럽의 역사화해 전공자와 교사들로 구성되었고, 베트남사 연구자의 도움을 받았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첫 번째로 결정해야 했던 과제는 방대한 동아시아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차례로 가르치는 '삼국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쉽게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4) 천재교육, 머리말 '동아시아사를 배우며'

5) 교학사, '머리말'

6) 이지원, 2012 「한국 교과서와 역사인식 -동아시아 지역사와 국민국가 인식」 제1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 도쿄대회 발표 원고

통사식으로 가르칠 수는 없고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공통성이 있고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주제로 구성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25개 정도의 주제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막상 어려운 과제는 주제 선정이었다.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공통성이 강한 요소, 혹은 비교하기 좋은 요소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주제별로 구성하더라도 크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동아시아사의 큰 흐름을 반영하여 여섯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근대에 해당하는 4단원까지는 내용요소를 4개씩 배치하고, 근현대에 해당하는 5,6단원에는 5개씩 배치하여 26개의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을 다루었지만, 정치사가 약간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교육과정에서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맡긴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지리적 · 문화적 측면을 넘어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관련성, 그리고 역사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지향까지도 공유하는 역사적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⁷⁾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07년 2월에 고시되었다. 그런데, 2011년 새로운 역사 교육 과정을 제정하면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도 변경되었다. 그 변화상을 제시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1>과 같다.

표1> 2007과 2011년 교육과정 비교

2007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 선사 문화 ◦ 농경과 목축 ◦ 국가의 성립과 발전 	I. 국가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생업 ◦ 신석기문화 ◦ 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이동과 문화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인구 이동과 전쟁 ◦ 고대 불교, ◦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 ◦ 동아시아 국제 관계 	II.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이동과 전쟁 ◦ 국제관계 ◦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 불교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 민족 ◦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III. 국제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목민족의 성장과 다원적 국제관계 ◦ 사대부와 무사

7) 정연, 2009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9쪽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신과 무인 ◦성리학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몽골제국 이후의 지역 내·외 교류
IV.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IV.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6-19세기의 사회변동 ◦학문과 과학기술, 서민 문화 ◦지역 내 교역관계의 변화, 서구와의 교류
V.국민국가의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V.근대국가 수립의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화 운동과 국제관계 변동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 ◦침략전쟁의 확대와 국제연대 ◦서구 문물의 수용
VI.오늘날의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VI.오늘날의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경제 성장과 교역의 활성화 ◦정치·사회의 발전 ◦갈등과 화해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I영역과 V영역에서 한 개씩 내용 요소가 감축되었다.

교육과정만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움이 되는 자료집을 편찬하였다. 이들 자료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로 개발하였다.

먼저 교과서 집필자들을 위해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2009. 10)를 작성하였다. 교과서 집필자의 수준에 맞추어 서술하였고, 외국 교과서의 내용을 서술한 경우도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26개 내용요소를 각기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장에는 ‘성취기준’ ‘서술상의 관점과 유의사항’ ‘주요 내용’과 ‘참고문헌’을 제시했다. 이 안내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역세계사’를 지향하는 과목의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가별 서술을 지양하고 ‘지역단위의 통합역사’를 구성하려고 노력한 점이다.⁸⁾ 여기에 동아시아사를 ‘지역세계사’로 보려는 관점과 ‘지역단위의 통합역사’로 서술하려는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각 章 서술에 편차가 있고, 교육과정해설서와 일치하지 않는 서술도 간혹 있다.

『교육과정해설서』는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내용요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8) 동북아역사재단, 2009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를 발간하며’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서술 내지 교육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어 관련되는 중요한 사료를 제시하고 해설한 『동아시아사 관련 참고 자료집』(2010. 11)을 집필안내서 보완자료로 발간하였다. 이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교과서 편찬 이후에도 교사들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 동아시아사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집』(2011. 12)은 내용요소별로 사료를 제시하고 해설을 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6개 내용 요소별로 해당 내용을 서술한 『동아시아의 역사』 3권(2011. 12)을 발간하였다. 특정한 국가의 역사만 서술하거나 국가별 서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주제도 있지만, 동아시아사가 지향하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자료집은 현장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2) 교과서의 출판과 그 체제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두 종류가 출판되었다. 이 과목을 선택할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점과 처음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여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출판되지 못하였다.

교과서는 두 종류이지만, 교육과정과 그 해설서에 의존하고 있어 대단원의 명칭은 동일하고, 중단원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단원의 명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중단원의 명칭

대단원 명칭	교육과정(2007)의 내용 요소	天才教育	敎學社
I. 동 아 시 아 역사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 2.선사문화의 전개 3.농경사회와 목축사회 4.국가의 성립과 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동아시아 세계와 자연환경 2.동아시아의 선사문화 3.농경과 목축, 문명을 낳다 4.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이동과 문화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인구 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구이동과 교류의 증대 2.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3.율령체제의 수용 4.국제관계와 외교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지역간 인구이동과 전쟁 2.불교의 확산과 정착 3.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4.동아시아의 국제관계

<p>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 ◦문신과 무인 ◦성리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북방민족의 성장 2.농업의 발전과 소농경영 3.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4.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북방민족과 국제질서의 재편 2.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3.문신과 무인 4.성리학의 전개
<p>IV.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2.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3.인구증가와 도시화 4.전통사회의 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2.은 유통과 교역망 3.인구증가와 도시화 4.서민문화와 각국의 독자적 전통
<p>V. 국민국가의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항과 국민국가 수립 노력 2.제국주의 침략과 피해 3.민족주의와 민족운동 4.평화를 위한 노력 5.서구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항과 국민국가 2.침략전쟁의 확대와 민중의 피해 3.반침략 저항운동 4.서구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변화
<p>VI. 오늘날의 동아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2.냉전과 전쟁 3.경제성장과 역내 교역 활성화 4.민주화와 사회 변화 5.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2.냉전 속의 열전 3.경제성장과 지역 내 교류 4.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사회 5.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중단원이 하나 적다는 점이다. 두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를 중단원으로 삼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단원 V의 ‘평화를 지향한 노력’이라는 내용요소를 중단원으로 개설하지 않았다. 이 내용요소에서 다를 것은 ‘침략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반전운동의 사례, 동양 평화론 등을 제기하며 평화를 추구한 각종 단체와 인물 등의 동향, 국제연대의 시대적 의미 등이었다.⁹⁾ 이 중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동양 평화를 외친 사람들’은 ‘열린 자료, 열린 생각’ 코너에서

9) 교육인적자원부, 200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안중근 의사와 이시바시 반잔의 자료를 제시하였고,¹⁰⁾ ‘항일투쟁 속에서의 반전 연대와 동아시아 평화’는 ‘집중탐구활동’에서 다루었다.¹¹⁾ 그러므로 비록 중단원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분산하여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두 교과서의 체제상의 차이는 소단원의 설정에서 나타난다. 소단원 설정 여부는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에 맡겨졌다. 천재교육은 소단원을 설정하지 않고, 중단원 다음에 항목을 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교학사는 소단원을 두고, 그 아래에 다시 항목을 두었다. 대단원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의 셋째 중단원을 사례로 삼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소단원과 항목의 명칭(사례)

구분	천재교육	교학사
중단원	3.울령체계의 수용	3.울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소단원		1.유교의 성립과 울령 2.울령과 유교의 확산 3.동아시아 문화의 발전
항목	울령과 유교/ 수·당의 울령체계/ 울령체계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1.유교의 성립과 울령 혼란스러운 천하를 통일하라/ 진, 벌률로 천하를 다스리다/ 한, 유교로 천하를 지키다. 2.울령과 유교의 확산 농경국가, 울령과 유교를 수용하다/ 수, 당 국가 통치의 모범이 되다/ 통치 제도를 수용하다 3.동아시아 문화의 발전 세계와 함께 하는 장안/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다

교학사 교과서의 한 항목은 대체로 한 페이지 정도를 차지한다. 내용이 항목별로 나누어지고, 그 분량이 한 페이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호흡이 짧아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항목 설정의 원칙을 지키다 보니, 소단원 아래 항목을 하나만 두는 경우도 생겨났다.¹²⁾ 이런 경우는 항목 설정의 의미를

10) 교학사, 2012, 『동아시아사』 163쪽. (이하 페이지만 표시)

11) 교학사, 179쪽

12) 예를 들면 대단원 I의 ‘1. 동아시아 세계와 자연환경’ 아래의 소단원인 ‘2. 다양한 신석기 문화의 발전’과 ‘3.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교류’ 아래에는 각기 ‘동아시아 각지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사용으로 생활이 변화하다’라는 한 항목씩만 있고(16-19쪽), 대단원 II의 ‘1. 지역간 인구 이동과 전쟁’의 소단원인 ‘3. 문물 전파와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비해 소단원을 설정하지 않은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결국 항목이 소단원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되었고, 그 분량은 대체로 두 페이지 정도이다. 호흡이 길어 학생들이 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작은 주제 아래서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전체 분량은 교학사가 256쪽, 천재교육이 287쪽으로 천재교육 교과서가 30쪽 가까이 두껍다. 전체적으로 교학사는 본문의 비중이 높고, 천재교육은 부가적인 자료가 많은데, 그 때문에 전체 분량이 많아진 것이다.

교학사는 대단원 시작 부분에 동아시아 지도와 연표를 제시하였는데, 연표는 5개의 지역(북방민족, 한반도 일대, 중원 일대, 일본 열도, 베트남 일대)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대단원 끝에는 ‘대단원 마무리’를 두 페이지씩 두었다. 소단원별로 ‘탐구활동’과 ‘열린 자료, 열린 생각’ 코너를 아래 段에 두어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하였다.

천재교육은 대단원 시작 부분에 간략한 통합 연표를 넣어 큰 사건이 일어난 때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끝 부분에는 ‘대단원 마무리’를 두 페이지씩 두었다. 그리고 중단원에는 ‘주제탐구’와 ‘동아시아 사람들’, 주요 주제에 대한 해설 등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중간에도 ‘이야기 속으로’ ‘지금 세계는’ 등의 코너를 배치하였다.

3) 서술 내용과 관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서술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교과서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용어가 다른 점이 쉽게 눈에 띈다. 예를 들면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을 한국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으로 부르고, 중국 교과서에서는 ‘항왜원조전쟁’,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文祿의 役’이라고 부르지만,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임진전쟁’으로 표현하였다. 청이 조선을 침입한 전쟁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정묘호란’으로 부르지만 ‘정묘전쟁’으로 표기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발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가장 크게 주목한 것은 이러한 용어의 차이였다.¹³⁾ 용어 사용에서도 일국사의 관점을 벗어나 동아시아적 관점을 유지하려 한 점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적 관점을 잘 드러낸 서술 사례의 하나로 ‘냉전과 전쟁’ 중단원을 들 수 있다. 이 중단원에서는 냉전시대의 전쟁으로 중국의 國共內戰과 한국의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첫 부분에서 “제2차

교류 증대’ 아래에는 ‘동아시아의 문화, 바다를 오가다’만 있다.(46쪽)

13) 중앙선데이, 2011. 9. 25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은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충돌하기 시작하였으며, 두 강대국 간의 충돌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때부터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를 냉전시대라고 부른다.”¹⁴⁾ 하여 이후 서술될 세 전쟁이 미국과 소련이 충돌한 냉전의 와중에서 벌어진 두 진영 간의 충돌이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일국사 서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동아시아사 교육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로 인한 피해도 ‘동아시아사’ 서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의 동남아시아 침입과 일본의 류큐, 에조치(홋카이도), 타이완, 한반도, 만주, 중국 대륙, 하와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련의 침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서구세력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一國史의 서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일본의 침략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상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이 ‘동아시아사’의 강점이라고 하겠다.

비교사의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항과 국민국가 수립을 다룬 중단원에서는 아편전쟁과 영국-청 사이의 불평등조약 체결, 일본과 베트남의 개항, 조선의 쇄국과 강화도조약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항 과정을 서술하고, 각국의 근대적 개혁 추진과 국민국가 수립 노력과 좌절을 서술하였다. 각국의 내부 상황과 외부의 도전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3. ‘동아시아사’ 선택 현황과 과제

1) ‘동아시아사’ 선택 현황

한국에서는 과목별로 선택한 학생수와 학교수를 집계하여 공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인 자료로 채택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근거로 할 때, 올해 ‘동아시아사’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509개 학교이며, 이는 전체 고등학교 2,282개교의 22.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선택 상황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14) 천재교육, 234쪽

표4> 동아시아사 선택 지역별 고등학교 수와 비율

지역	전체	채택	비율(%)	지역	전체	채택	비율(%)
서울	314	51	16.2	강원	117	25	21.3
부산	142	32	22.5	충북	83	12	14.4
대구	92	28	30.4	충남	117	28	23.9
인천	118	22	18.6	전북	132	37	28.0
광주	66	19	28.7	전남	156	36	23.0
대전	61	15	24.5	경북	193	45	23.3
울산	52	16	30.7	경남	188	45	23.9
경기	421	95	22.5	제주	30	3	10.0
합계					2282	509	22.3

30%대의 선택율을 보인 곳은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들이며, 10%를 기록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다. 지역별로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대도시 지역에서 좀 더 선호된 것으로 볼 수는 있겠다.

학생수로는 7만 2천 여 명이 ‘동아시아사’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학년 66만 3천 여 명¹⁵⁾ 가운데 10.8%에 해당한다. 채택한 학교에 비해 학생 비율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평균적으로 학교별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은 141명 정도이다.

사회교과에 속한 과목들의 선택 현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회과 과목별 선택 현황

과목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경제	계
선택자 수	157,808	53,592	72,188	70,611	91,328	69,032	153,144	8,301	676,004
비율 (%)	23.3	7.9	10.7	10.4	13.5	10.2	22.6	1.2	99.8

사회과 교과목 중에서는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많고, 법과 정치에 이어 ‘동아시아사’가 4위이다. ‘세계사’보다 조금 많은 점이 주목된다. 아무래도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어 세계사보다는 학습하기에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1년 당시 고등학교 수는 2,282개교, 1학년 학생수는 663,864명, 2학년 학생수는 642,398명이었다.

2)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과제

동아시아사를 지역사로 바라보려는 관점을 두 교과서 모두 지향하였다.¹⁶⁾ 그러나 동아시아사가 지역사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개설되기에 충분한 학문적 성과는 아직 축적되지 못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동아시아사 서술 성과가 최근 착착 간행되고 있는 점은 지극히 고무적이다. 한국에서는 유용태 등이 쓴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2010, 2011)가 발간되었고, 일본에서도 三谷博 등의 ‘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19世紀編’(2009)이 발간되었다. 이들은 楊軍 張乃和가 主編한 ‘동아사’와 함께 각국의 최초의 동아시아사로 불린다.¹⁷⁾ 게다가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2012)가 한국에서 먼저 출판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을 풍부하게 해주는 자산이 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술 대상이 주로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통사형의 동아시아사로는 위의 ‘동아사’와 유럽에서 간행된 Reinhard Erich Zollner의 ‘동아시아의 역사’가¹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동아시아사는 일국사의 관점을 벗어나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향한다. 동아시아의 관점을 확립하는 데에는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나라의 역사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동아시아사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올해 처음 개설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는 아직 그 성과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 동아시아사 개설 배경과 지향, 개발 과정 및 체제,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동아시아사 개설의 의미와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각국은 오랜 기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평화로운 교류 관계를 맺었다. 현존하는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었으므로, 그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 교류와 대화를 발전시켜야 하고, 동아시아사처럼 지역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16) 해설서에서는 ‘지역세계사’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17) 유용태, 2012. 6. 1 「동아시아사를 보는 한중일 3국의 시각-최근 출간된 ‘동아시아사’의 비교」 제주포럼 발표 원고

18) 2001년 독일에서 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역사 - 그 구축’으로 번역되었다(2009, 明石書店)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 선사 및 고대시기 인식논의를 중심으로 -

조법중(우석대)

머리말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확정된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중등역사과목이 사회과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과목이 되었고 새로운 역사과 과목으로 역사,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 세계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이 설정되어 기존의 ‘국사’, ‘세계사’를 보완, 대치하게 되었다.¹⁹⁾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등 한중일 역사 갈등에 있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시점부터 구체화되었다. 이들 새롭게 신설된 과목 중 역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의 경우 국사와 세계사과목의 내용 조정적 성격의 과목²⁰⁾인 것에 비해 동아시아사는 우리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과목이란 점에서 공간적 범위와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집중되었다.²¹⁾

동아시아사라는 인식들은 실상은 일본과의 오랜 역사 갈등에 추가된 중국과의 역사 갈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개념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사 시안’에 나타난 내용은 한국사의 대외관계성을 전제한 역사이해라는 점에서 국사로 파악되었던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과는 별개의 역사인식 틀과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되어 설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한국-중국-일본으로 연결되는 ‘동북아시아’로 지칭된 역사 갈등의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삼는 좁은 범위의 역사범주를 넘어선 개념이란 점에서 향후 역사포섭 방식과 인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독자성과 관계성을 정립한다는 것은 기왕의 중국사적 외연의 확대과정에 포용되어 있는 ‘동양사’라는 인식의 범주와 큰 차별성으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학계의 대응이

19) 교육인적자원부, 2007.2.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관련자료」 p.2

20) 양원택, 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p.4

21) 안병우외, 200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연구결과보고서.

매우 미흡함을 발견케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류와 접촉이 훨씬 활발하였던 한국의 선사, 고대문화를 설명함에 있어 최근 중국, 일본학계의 움직임과 역사 인식론의 재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사’를 한국사적 인식틀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동아시아사의 생계유형적 구분과 시간적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선사와 고대를 연결하는 시점의 역사적 독자성을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내용개요>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 의 선사 문화

(1) 동아시아의 환경

- 산맥, 고원, 초원 지대 및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
- 낮고 평평한 지대, 중국 동부 및 한반도
- 대륙 외곽의 섬 지대, 일본 열도 및 타이완

(2) 동아시아의 선사 문화

- 1) 구석기: 중국 중동부, 몽골, 한반도 일대에 약 백만 년 전 구석기 인류 유적 존재
 - 생활: 불 사용, 주먹도끼 등 맨석기 사용,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 동굴이나 막집 생활, 채집경제
 - 도구: 스펀지르개, 잔석기(후기 구석기 및 중석기)
 - 동아시아 인류: 베이징인 산정동인, 평양 만달리인, 오키나와 미나토가와인
- 2) 신석기: 1만 년 전경의 기후 변화
 - 마지막 빙기 종료>>>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현재와 비슷한 기후와 지형 형성)
 - 매머드와 털코불이 등 대형 동물의 멸종, 작고 빠른 동물 사냥 위해 활과 화살 사용, 석기가 정교해져 간석기로 발전

:여러 지역의 신석기 문화:

- 양소문화: 황허 강 중류, 무늬 있는 채도와 홍도, 뽕 포오(반파촌) 유적
- 룡산문화: 다윈커우 문화>>> 룡산문화, 황허 강 중하류지역, 흑도의 제작, 농경 문화의 발달
- 량주문화: 허무두 문화>>> 량주문화, 양쯔강 하류 지역, 쌀농사, 뼈와 나무 농기구, 개와 돼지 등 가축사육
- 홍산문화: 라오허 강 유역, 옥기 제작 기술 발달, 용 숭배, 여신 숭배
- 만주-한반도지역 문화: 덧무늬 토기 사용, 고기잡이 도구 발달, 조와 기장 등 곡물 경작, 움집 거주, 빗살무늬토기
- 조몬 문화: 조몬(새끼줄 무늬)토기와 토우(여성의 모습= 풍요의 상징)
- 풍응우옌 문화: 호아빈 문화>>> 풍응우옌 문화, 돌도끼, 뼈도구, 신석기 후기 농경 시작, 토기 제작(돌립판). 직물

1. 동아시아사의 공간과 시대구분

1) 동아시아 공간구획 및 생태환경지도

동아시아사를 구성함에 있어 동아시아사의 공간적 범위는 기후대별 지역의 식생과 연결된 전근대 삶의 세 가지 양식인 農業, 牧畜, 狩獵으로 구분된 3가지 생계양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분이 필요하다. 즉, 중원지역 농경문화 민족의 역사, 북방지역 유목민족의 역사, 동방지역 수렵농경민족의 역사로 대별된 역사구성체를 개별단위로 하는 역사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²⁾ 이를 위해서는 농업과 목축의 한계선 설정이 필요하고 수렵과 여타 생활양식과의 한계선 역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생계환경에 대한 이해 및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동북아 수렵사회의 한계선과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²³⁾

한편, 중국의 역사지도에서 농업과 목축업의 공간적 교차양식에 대한 표시는 線形, 飛地形, 半農半牧의 交叉地帶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람직한 표시방식은 목축의 동남한계선과 농업의 북서한계선 사이를 농목교차지대라는 별도의 지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²⁴⁾ 제시되어 3가지 유형의 생계양식공간 설정이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동아시아 영역의 생태환경에 입각한 공간적 개념지도가 미리 제시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사를 구획하는 이해가 요청된다.

2) 동아시아사 시대구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동아시아사’ 과목의 내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서 습득한 역사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6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몇 개의 주제를 두어 지역 전체를 비교·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²⁵⁾ 그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²⁶⁾

22)Lattimore,

23) Shirokogoroff, 1929(1966), 《북방 통구스의 사회조직-북방통구스 집단들의 지리적 분포와 역사에 관한 개설적 논문들을 첨부하여》

24) 이강원, 2008, 동북아 역사지도의 농목한계선 설정을 위한 제언, 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 발표문

25) 안병우, 2007.1.2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의 개발취지와 구성방안」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시안 토론회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p.77,

26)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東北亞歷史論叢』 19.p.p26-27 도표 재조합

영역	영역명	시기	하한	내용요소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대략> 선사-기원전후	고조선, 진,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2	인구이동과 문화의 교류	<대략> 기원전후-10세기	신라,당, 베트남독립, 일본(나라 시대)	지역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불교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국제관계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대략> 10-16세기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전쟁	북방민족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 문신과 무인 성리학
4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대략> 16-19세기	개항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유통과 교역망 인구증가와 사회경제,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5	국민국가의 모색	<대략> 19세기 중 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문물의 수용과 변화
6	오늘날의 동아시아	<대략> 1945년 이후	현재	전후처리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성장 정치발전 갈등과 화해

	시기	시작시점	종결시점	시작준사건
1	초기 동아시아세계	상고	기원전 3세기말	
2	지역구조형성시기	기원전3세기말	8세기말	흉노제국의 건립
3	다민족다국가 발전경쟁시기	8세기말	13세기말	안사의 난
4	조공체계시기	13세기말	1870년대	원의 남송명망과 중국통일
5	조약체결시기	1874	1945	프랑스의 베트남장악 일본의 대만침공
6	냉전시기	1945	1992	제2차세계대전종결
7	냉전후시기	1992		냉전종결

한편, 최근 중국의 길림대학에서 출판된 《동아사》는 표와 같은 시기구분과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²⁷⁾

한편, 최근 독일학자가 저술한 동아시아관련 개설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Reinhard Zöllner, 2007, "Einführung in die Geschte Ostasiens" Indicium Verlag GmbH, Munchen.; 라인하르트·츠엘너-(著) 植原久美子(譯) 小倉欣一,李成市(監修),2009, 《東アジアの歴史 その構築》, 明石書店

	시기	시작시점	종결시점	시작준사건
1	고대문명기의 지역문화 도시국가,신권정치	전6000년경	전221년	선사-전국시대
2	세계제국으로서의 초기고대중국	전221년	후221년	진-한
3	소국분립과 동아시아의 민족이동	221년	650년경	삼국시대-수왕조

27) 楊軍,張乃和 主編, 《從史前至20世紀末 東亞史》,長春出版社, 2006.

4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가형성의 모델로서의 후기고대중국	650년경	900년경	당
5	중화제국의 분열과 주변제국의 대두	900년경	1270년경	오대십국-남송
6	몽골제국의 지배와 주변의 위기	1270년경	1370년경	몽골 원왕조
7	동아시아의 재편	1370년경	1640년경	명
8	동아시아의 근세	1640년경	1840년경	청,아편전쟁
9	동아시아의 해체	1840년경	1895년	아편전쟁-청일전쟁
10	동아시아의 내전	1895년	현재	청일전쟁-

이들 3가지 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선사문화에 대한 이해가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선사문화는 동아시아라는 지역공간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시기에 전개되는 활발한 정보 및 문화교류가 성립되기 이전의 각 지역별 독자문화권역의 성립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생태환경공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선사문화형성의 실제적 양상은 환경과 연결된 생업경제의 내용과 직결된 것으로 공간의 환경적 요소와 생업경제의 양상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논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북방 민족의 역사 즉, 유목제국으로 통칭되는 민족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논의의 한 구획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한국, 중국, 일본으로 상징되는 민족의 역사구성체를 강조하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만이 보이고 몽골 등 기마유목적 문화를 유지하게 한 이전의 북방유목민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다민족국가론의 선사시기 적용논리인 구계문화론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중국 고중세사시기에 이들 민족이 결과적으로 중국왕조에 대한 정복과 융합을 통해

점차 역사적 독자성이 약화되었지만 당시대적 인식의 내용과 금, 원, 청으로 연결되는 정복왕조의 역사를 중국사로 단일화 시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서구 및 일본학계에서도 별도의 북방 역사를 구성하지 않는 동아시아 역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의 경우 북방 유목세계 및 수렵농업세계의 구분성은 확연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와 연결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시기구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파악된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동아시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흉노제국의 건립이 새로운 역사적 사건의 시점으로 제시된 점은 주목될 부분으로 이해된다.

2. 동아시아 선사문화

1)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선사인식²⁸⁾

동아시아 각국은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先史文化에 투영하여 선사시대 편년체계를 수립하였다. 최근 중국의 신중화주의적 문명론이 이같은 양상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漢族중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지향하며 현재 중국경내에 있는 소수 민족은 중국의 일부이며 나아가 소수민족이 차지했던 현 중국영토의 바깥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려 한다. 이 같은 인식은 선사시대이해에도 적용되었다. 즉, 중국고고학계의 원로인 蘇秉琦가 1970년대 주창한 區系類型論에 따라 중국영토내의 편년틀을 세운 후 1980년대 중화문명중심주의적 역사관을 형성하였다.

구계유형론은 각각 지역적인 區分을 하고, 지역별로 문화의 시간적인 변천을 세운 후(系), 주변의 여러 지역 類型과 비교하여 동질성이 보이는 문화를 유형별로 설정한 것²⁹⁾이다. 이후 중국 고고학은 中原 일변도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별 문화를 강조하고, 각 지역별로 발전 및 교류를 중요시 하는 연구방향의 변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중국고고학은 이후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유형들이 설정되어 仰韶문화(神農氏 華族집단), 大汶口문화(虞夷 夏집단), 紅山문화(黃帝집단) 등 다양한 지역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중국고대문화를 형성했다는 다원문화 기원론이 중국 고대문화 인식체계를

28) 강인욱, 2008,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선사시대의 문화의 서술>, 동아시아사 교과서 제작을 위한 워크숍 발표내용 참조

김병준, 2008,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동아시아사 교과서 제작을 위한 워크숍 발표내용 참조

29) 蘇秉琦,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81-5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계유형론은 요령성과 내몽고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홍산문화 및 하가점하층문화의 발굴이후 古文化-古城-古國論으로 발전되어 역사기록이 없다하더라도 紅山文化도 중국 고대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문화의 하나로서, 중원문화에 포섭되며,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적으니, 중국문화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중국영토내의 문명단계로 진입하는 문화는 결국 중국이라는 정치체로 귀결한다는 영토중심주의 선사문화이해 논리이다.

한편, 北韓은 檀君陵발굴이후 大同江文化論을 제기하여 평양의 고대문화가 세계의 고대문명과 같은 궤적의 발전을 하였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³⁰⁾

日本은 2003년 동경역사민속박물관팀이 AMS 연대측정법에 의한 야요이문화기원전 900년설을 제기하여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의 금속문화개시연대(기원전300년경)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韓國은 2006년 교과서 개정시 靑銅器 開始年代를 기원전 20-15세기경까지 소급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무문토기개시연대를 광의의 한국고대문화권역인 滿洲 및 沿海州지역의 무문토기 개시연대와 연결시킨 것이었지만 단군 개국연대와 연결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동아시아를 영토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몽골, 러시아와의 선사시대 편년체계와도 상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충성은 서로간의 합의점이 이뤄지기보다는 각각의 인식틀을 강화하고 있어 단기간의 연구로 합의될 수 없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선사문화체계와 시대관을 구성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선사시대 삼시기 구분법은 한국과 러시아만이 쓰고 있고 중국은 夏殷周 3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7세기 이후로는 왕조별 서술을 쓰고 있어 신석기시대까지만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토기중심으로 선토기-쥬몽(繩文)-야요이(彌生) 시대를 사용하고 있고 연대개념도 달라 동아시아의 공통된 편년체계를 구성하기 곤란하다. 이는 각 문화의 절대연대의 차이와 사회발달의 차이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총괄적 선사인식체계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國境과 民族主義的 領土意識을 벗어난 인식의 정립과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자연 생태적 환경과 연결된 문화영역에 대한 인식과 그에 부응하는

30) 북한 역사학계는 구석기 시대 유적인 검은모루(평양 상원군), 순장무덤(평남 성천군), 고조선 부락터(평양 삼석구역) 등 대동강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이후 고대국가에 이르는 유적·유물이 대거 발굴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지역에서 꽃피운 문화를 1990년대 후반 `대동강 문화'로 명명했다.

역사상의 구성이 필요하다.

한편, 자기 求心力을 갖는 民族認識의 형성시점에 부응하는 역사체계의 구성과 이의 계승인식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현재적 역사 해석만이 아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역사인식의 계승성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고고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도 현재의 상황과 연결된다. 즉, 학계가 우리 청동기문화의 원류와 발전양상에 대해 명확한 논리적 설명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은 인식들의 모호성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가 요망된다.

2) 동아시아 선사시기 세가지 생계양식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지형·기후 등 풍토적 조건에 따라 크게 3개의 풍토대로 대별된다.

① 사막지대인 건조아시아(사막아시아 ; 중앙아시아·서아시아)

② 삼림지대인 아습윤아시아(한랭아시아 ; 북아시아)

③ 몬순지대인 습윤아시아(몬순아시아 ;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이와 같은 3개 풍토대는 풍토적 조건에 따라 건조아시아에서는 유목생활형과 오아시스생활형이, 아습윤아시아에서는 수렵생활형이, 습윤아시아에서는 농경생활형 및 해양생활형이 각각 역사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공간적 지형은 이 같은 3개형태의 기후환경이 연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유목문화권, 수렵·농경문화권, 농경문화권이 각각의 역사적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기후환경은 삼림과 몬순지대 식생(植生)의 수평적 분포(위도에 따른 분포)와 연결되어 삼림은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냉대림, 온대림, 난대림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냉대림은 침엽수림대(針葉樹林帶)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렵 채집과 농경, 하천에서의 어로생활을 유지하는 생계형태가 진행되었다. 온대림은 낙엽수림대(落葉樹林帶)문화를 형성하여 전작(田作)농업 지대를 형성하였으며 난대림은 조엽수림대(照葉樹林帶)문화로서 수도작(水稻作)문화가 중심적인 생계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현재의 중국영역은 농경사회의 범주속에서는 진령(秦嶺)산맥과 회하선(淮河線)을 경계로 한 북의 한지곡물지역과 남의 수도지역으로 크게 대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지역의 동식물 유체를 조사한 연구결과 도작과 어로, 수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생업의 장강유역, 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잡곡, 다종의 가축사육과 수렵을 통해 다각적인 생업활동을 한 황하유역, 수렵,

어로, 채집에 의한 자연의존의 경제를 근거로 다양한 잡곡재배와 가축사육을 보조적으로 행한 망라적 생업의 동북아시아라는 삼지역경제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 분류 양상은 토기문화양상과 연결되고 있다.

즉, 동남계통(장강중하류-황하하류, 丸底의 釜와 鼎), 화북계통(황하중상류역: 기면에 승목문이 있는 平底의 罐), 동북계통(요하유역: 기면에 籠文이 있는 平底 筒形 罐)으로 나뉘는 토기문화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남쪽의 도작문화와 북쪽의 전작문화와의 대응도 큰 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원지역의 농경(전작, 수도작) 북방의 유목, 동방의 수렵,농경으로 대별되는 생태환경역사적 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부응하는 역사체계가 전제된 동아시아 역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구도로서 동아시아사를 설명해야 한다.

3) 동아시아의 선사인류 山頂洞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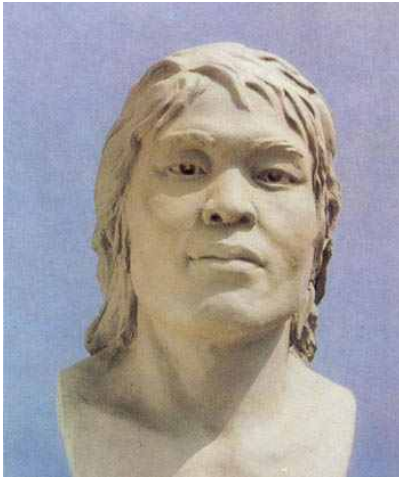


중국, 북경의 남쪽 42 킬로미터의 周口店의 용골산 정상 동굴에서 발견 된 신인 화석 인골. 上洞 사람이 라고도 한다. 이 골은 베이징 원인 화석이 발견 된 주구점유적 첫 지점 위쪽에 있고, 북쪽 경사면에 있다. 1930 년 裴文中에 의해 발견되고 1933 ~ 34 년에 대한 조사됐다. 수많은 동물 화석, 문화 유물이 출토 되었다. 동물 송곳니 나 뼈 바늘 등이 포함되어있다.

후기 구석기 시대인 1 만 8000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10 개체 가깝다고 생각되는 인골 조각 중 상당히 완전한 두개골이 3개 있다.

와이덴 라이히 F. Weidenreich는 이들이 원시적 황인종 및 멜라네시아 인, 에스키모를 닮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961년 吳新智는 모든 고황인종을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생각은 오늘날 널리지지, 황색 인종 형성을 논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원 표본은 1941 년 태평양 전쟁 발발 시 베이징 원인 표본과 함께 분실했다. 현재는 석고 (浙江) 모형 표본만이 남아있다.

만달리인



1979~80년에 걸쳐 발굴된 만달리유적은 평양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유적의 남쪽으로는 대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흐르고 있다. 동굴 안에 쌓여 있는 퇴적은 크게 3개의 지층으로 나뉜다. 위층(두께 20~30cm)은 신석기시대의 층으로 사람뼈·화살촉·뼈연모·짐승화석 등과 함께 토기 조각이 나왔다. 가운데층(두께 1.6~2m)에서는 사람뼈·석기·뼈연모·동물화석 등이 나왔는데 이들 유물은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한다. 밑층(두께 3~4m)에서는 후기 홍적세의 짐승화석이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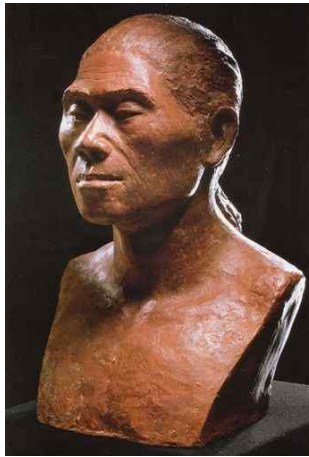
가운데층에서 나온 후기 구석기시대의 사람화석으로 머리뼈·아래턱뼈·엉덩이뼈 등이 있는데, 머리뼈는 남자의 것으로 그 나이는 25~30세로 추정된다. '만달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머리뼈는 높은 머리와 곧은 이마 모양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까닭에 북한에서는 '만달사람'을 '조선옛유형사람'의 선조가 되는 것으로 본다. 북미 인디언 닮은 인상을 풍기며, 현대인에 비하여 얼굴 길이가 짧은 대신 앞뒤로 길어 다부진 인상을 풍긴다. 우선, 두상을 보면 마루점이 높은 고구마두상이고, 이마가 뒤로 넘어져 있는 형이다.

이 두 가지 점은 현대한국인의 특징과 도통하므로 이 만달인 같은 구석기인의 특징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계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옆얼굴을 보면 뒤통수가 뽕족하고(미간에서 뒤통수까지의 직선거리가 200mm에 달한다) 위쪽에 높게 붙어 있고 얼굴도 볼록형인데, 이런 두 가지 점은 현대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현대 한국인은 뒤통수가 납작하고 또 뒤통수의 가장 돌출한 곳의 위치도 아래로 내려와 있다.

두개골의 눈구멍으로 보아 눈도 크지 않은데, 현대 한국인의 눈이 작은 것도 이런 용모인자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치아는 현대인처럼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겸상교합이 아니고 아랫니와 윗니가 정확히 맞닿아 교합하므로 이가 마모되어 짧다. 측두골과 두정골의 만곡상태로 보아 왼쪽 어금니로 음식을 씹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 이렇게 왼쪽 저작형인 사람은 오른쪽 이마가 왼쪽보다 더 도드라져 있으며, 이 또한 한국인에게 많은 특징이다.

한편, 모발은 검은 색깔의 직모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부색은 검붉은 색으로 보는 편이 좋다. 입술 윤곽이 분명하지 않다.

미나토가와인(港川人)



1967년, 오키나와 미나토가와 해안근처 채석장에서 뼈가 발견됐다. 이 인골은 약 1 만 7000 년에서 8000 년경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장은 남성 약 153 ~ 155cm, 여성 약 144cm. 전체적으로 몸집이 작고 팔은 가는 반면 손은 크고 하체가 발달되어있다. 또한 턱이 발달해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었다고 되어있다.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 · 미술관에 "港川 사람 복원 상"이 소장되어있다. 또한 八重瀬町立 具志頭 歴史民族資料館에 상설 전시의 하나로 港川 사람 코너가 전신 골격 모형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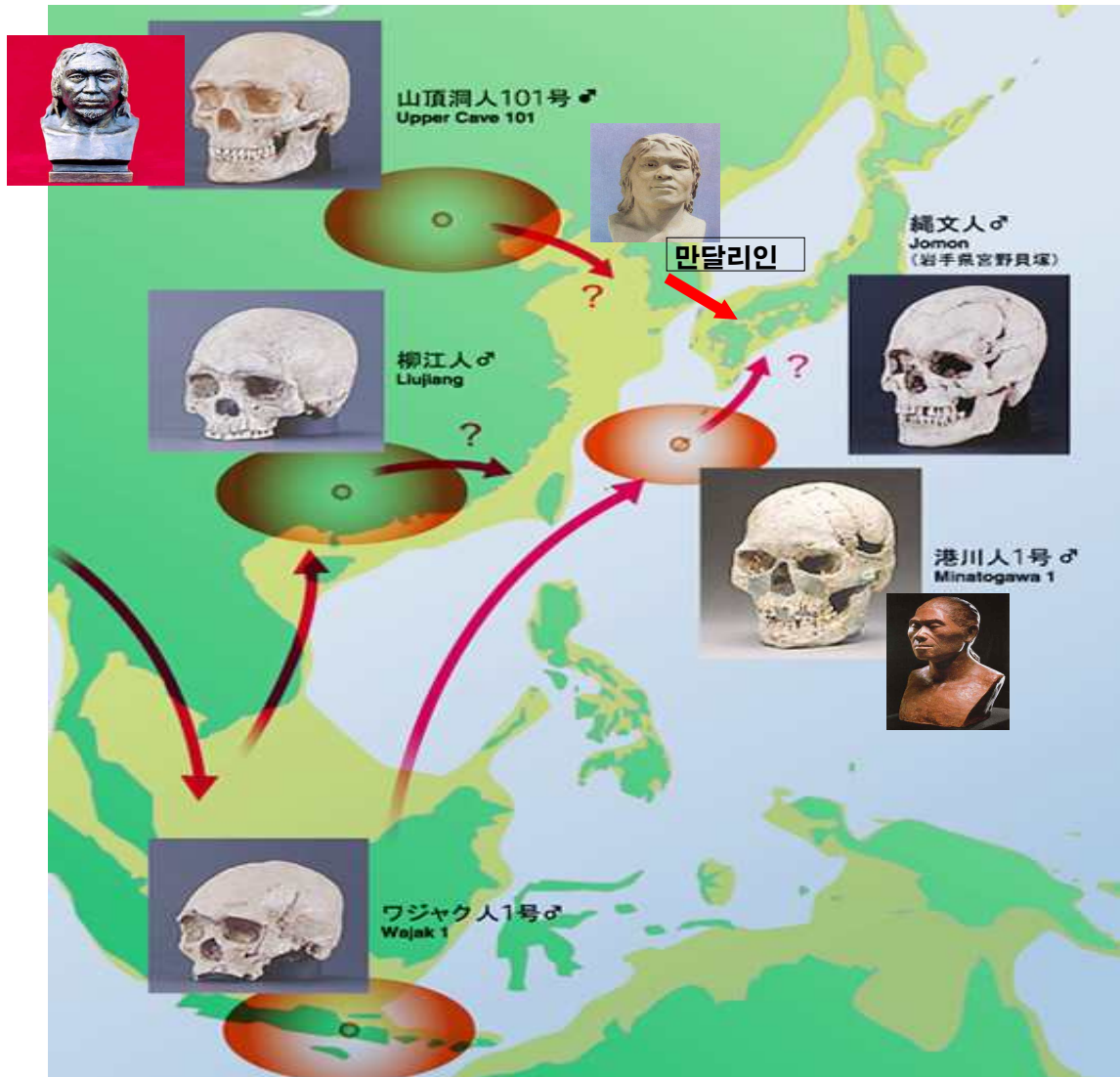


그림 5 동아시아인의 계통

3. 동아시아 농경문화의 형성

1) 중국의 신석기 농경문화연구

신중국 성립 이후 1970년까지 하내(河隴), 안지민(安志敏)에 의해 중국 신석기문화연구는 황하문명의 선진성과 그 영향력에 의한 ‘문명기원 일원론’, ‘문화전파론’과 유사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이후 북방지역에서 彩陶와 몸돌이 공존하는 紅山文化와 富河문화, 동북지방의 新樂하층문화, 新開流문화 등이 알려지고 黃河유역에서 仰韶문화보다 앞서는 老官台문화, 磁山, 裴李崗문화가 존재하며 大汶口문화보다 앞서는 北辛문화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長江유역에서는 屈家嶺 문화에 앞서는 大溪문화가, 馬家浜문화보다 앞서는 河姆渡문화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고대문명의 요람지였던 黃河유역의 문화적 선진성과 주변문화의 시간적 후진성이라는 구도 속에 강조되었던 황하문화의 주변지역으로의 ‘影響’은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修柱臣의 “중국 신석기시대의 문화적 多中心發展論과 不平衡論” 그리고 嚴文明의 “중국 선사문화의 統一성과 多樣性”이란 개념으로 표현되었고 蘇秉琦의 ‘區系類型論’에서는 고고문화의 傳播論的 立場을 비판하고 多原論을 제기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중국 각 지역의 신석기문화가 확인되면서 중국문명의 기원은 황하유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多元的 文明發生을 제기하게 되었다. 嚴文明은 중국의 지형을 3개의 거대 계단형으로 구분해 청장고원, 황토고원, 운귀고원으로 나누고 선사시대 인류 활동공간은 낮은 고원과 중간 계단지역이며 四季가 뚜렷한 중위도지구의 황하중하유역과 장강중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을 農業起源의 중심지역으로 파악하였다.

중국학계는 이 같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업활동 양상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를 규정하였다. 蘇秉琦는 土器樣式의 형식학적 방법에 의해 시간과 공간축을 설정한 ‘區系類型論’을 제안하여 文化區分과 系統에 입각한 논의를 제기하여 文化多元論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嚴文明은 신석기시대 문화의 三代系統論을 제시하였다. 즉, 중국신석기시대의 문화구를 생계방식에 따라 3개의 經濟文化區(旱地:粟,黍農業經濟文化區, 稻作農業經濟文化區, 狩獵採集經濟文化區)로 나누고 다시 토기유형을 중심으로 長江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하는 東南系, 中原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華北系, 遼河를 중심으로 하는 東北系라는 삼대계통문화가 존재하며 이것이 중원을 중심으로 신석기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구구분은 동태적이며 중국 선사문화는 다원적이며 중원을 중심으로

주변 문화구도 매우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요하구역의 紅山文化의 祭壇과 彫像, 大形積石塚과 玉器, 良渚文化의 귀족묘에 보이는 유관유곽의 대묘, 대량의 玉璧, 玉琮 등 부장품의 요소를 흡수한 중원문화가 중원 초기문명의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발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선사문화의 구심적 결속상황을 한족을 주체로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초석을 이룬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빙기의 文化區系論을 계승한 郭大順에 의해 제기된 遼河文明論은 요하일대의 부신지역의 사해문화에서 문명시작단계가 진행되어 우하량 홍산 문화단계에서 문명으로 진입하였는데 이 문화가 남하하여 북방초원문화 및 북상한 양소문화와 만나 중화문명을 이룬다는 논리를 제기하여 현재의 중국 영토에 포섭되는 모든 지역의 문화를 중화문명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 중국대륙의 농경·목축

동아시아에서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문화의 발생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와 기장 등 밭농사 작물은 기원전 8000년 경 황하 지역에서 먼저 재배되기 시작했고,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 경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유적은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히 제한적인 증거일 뿐이지, 결코 신석기시대인이 생존을 위해 모든 노동력을 투입했던 기본적 생산양식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석기 농경유지가 대부분 산림, 초원, 소택지와 같은 複合生態界에 입지해 있었고, 유적지 내에서 타제석기의 비율이 매우 높고 石製 漁撈用具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농경이 시작되었을 뿐 대단히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렵, 채집, 어로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장소로서 복합생태계가 갖춰진 곳을 선택했던 것이다. 타제석기와 석제 어로용구의 다량 출현도 여전히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수렵 채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경이란 하루아침에 생산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처한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는 한 농업 생산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농경이 시작되었을지라도 적어도 수렵과 채집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본적 경제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즉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농경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은 최소한 신석기말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특히 고고학 연구에서는 그 기원이 언제까지

소급되는가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 농작물의 재배에 대한 인지가 시작된 시점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동아시아사의 주된 목표가 농경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두어져야 한다면 집필의 방향도 마땅히 농경의 발생과 기원 그 자체보다는 농경이 인간의 경제적 생활에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따라서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문화 단계에도 농업이 결코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빠뜨려서는 곤란하다.

농경과 목축의 지역적 분포는 강수량과 기후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농경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수량 600mm를 기준으로 밭농사와 벼농사 지역이 구분되며, 중국의 경우 秦嶺산맥과 淮水를 잇는 선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경 지역과 목축지역의 경계선은 일정치 않지만 대략 강수량 400mm 미만의 초원 지대에서 목축생활이 발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강수량과 기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의 기후는 전 지구의 기후변화와도 연동되면서 지역마다 특수한 지형으로 말미암아 그 변동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 특히 농경지대와 목축지대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은 기후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단지 농경과 목축의 경계선이 변동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계선의 변동은 인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동반했다. 역사시대에 들어간 이후의 사례이지만, 대규모 목축민이 농경지역을 침략하는 경우 대부분은 목축지역의 기후가 급격히 추워졌던 것과 연관이 있다. 魏晉시대에 북방민족이 화북지역으로 남하한 이유가 북방 초원지대의 기후가 급냉해지면서 그들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가축이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단폐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목축 지역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후가 따뜻해지면 농경과 목축지역의 경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변경지역의 농경지대화는 변경지역의 안정화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시기에도 기후변화는 인간의 경제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서아시아에서 목축경제가 발생한 것도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토지가 줄어들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紅山문화로 잘 알려진 중국 내몽고자치구 동부의 적봉지구를 예로 들면, 기원전 6천년~4천년 경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興隆洼문화와 趙寶溝문화, 홍산문화가 흥기했다가, 기원전 3천년 경 기후가 악화되면서 홍산문화가 쇠락하였고, 기원전 2천년~1500년경 다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하가점하층문화가 흥기하고 농업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기원전 1천년경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夏家店下層문화가 쇠락하고 목축경제의 성격을 띤 夏家店上層문화가 이곳에서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경지대와 목축지대의 경계선이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경이 발생한 것도 또 농경이 쇠퇴하고 목축경제가 발전한 것도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후의 영향력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많이 지적되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인간의 주체적 선택과 의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원전 1천년경 기후의 한냉화에 따라 목축경제가 크게 발달하지만, 그와 동시에 농경 관련 유적도 여전히 다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경에 극히 미숙한 단계에 있었던 때라면 기후 변화라는 점진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초원화라는 환경 속에서 농경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목축경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한반도 주변 수렵과 농경

중국 동북부 및 동시베리아지역은 대표적인 수렵문화지역으로 이 지역의 선사 및 고대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한국학계의 연구는 고구려, 발해역사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접근성에 의해 연구 불모지였다가 최근 일부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 지역의 문화적 연결성에 대해서는 연해주와 만주, 한반도북동부로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대에서 수렵, 목축적 생계방식이 강조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부여-고구려, 옥저,동예로 대표되는 목축, 수렵 및 어로생계방식에 의한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대표되며 숙신,읍루,물길,말갈의 상황은 특히 수렵적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에 나타난 대표적 수렵국가의 특성은 고구려에 잘 나타나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나타난 고구려에 대한 “좋은 밭이 없어 아무리 농사 지어도 배를 채우지 못한다.”는 기록과 “매우 거칠고 약탈을 좋아하며 성질이 급하고 걸음도 뛰듯이 한다.”는 표현은 수렵사회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묘사한 모습이다. 특히, 시조 朱蒙의 “활 잘쏘는 사람”이란 표현과 일반백성이 궁술에 뛰어났다는 『신당서』 등 중국사서의 표현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왕과 관련된 각종 田獵 기사와 평원왕때 정기적으로 낙랑언덕에서 행해진 국가적 사냥대회에서 온달이 부각된 사건은 수렵이 생계방식이자 군사훈련으로 고구려사회 유지의 중요 요소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고구려의 수렵적 성격은 장천 1호분, 무용총,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등 많은 고구려고분에 묘사된 수렵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악3호분의 부엌에 걸린 많은 짐승의 모습은 수렵이 고구려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비중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목축문화의 양상은 부여에 나타난 馬加, 牛加, 豬加, 狗加로 대표되는 大加 집단의 존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측면에서 보면 목축의 양상은 농경사회의 부수적 역할로서 부여는 기본적으로 농목국가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한해의 풍흉에 따라 왕의 지위가 변할 수 있었던 사정은 국가의 핵심적 생산체계가 농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농경사회로의 전환과 水稻作의 본격화문제는 신석기시대 식물 재배양상이 존재하고 충북 옥천 大川里유적에서 벼재배가 확인은 되지만³¹⁾ 대부분 지역에서 논, 밭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 등에서 재배식물유체의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과 재배관련 도구의 미비성에 입각해 대부분 이 시기를 농경사회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³²⁾ 따라서 농경민은 기후의 한랭화에 따른 이동³³⁾과 수렵채집민의 人口증가에 따른 농경의 채택³⁴⁾등이 진행되면서 무문토기단계에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수전도작문화 전래 계통과 연대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도작문화관련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長江유역의 신석기조기(기원전10000-7500년)유적의 彭頭山유적의 탄화미와 플랜트오팔(植物硅酸體)³⁵⁾과 신석기만기(기원전5000-3000년경) 河姆渡文化기의 탄화미³⁶⁾와 馬家浜문화기(기원전5000-4000) 강소성 草鞋山유적의 수전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도작전래와 직접적 관련이 높은 지역인 산동반도의 연태시 楊家圈유적(기원전2500-2000)과 요동반도 대련시 大嘴子유적(기원전1900-1300)에서 炭化米가 확인되고 있다.³⁷⁾ 이같은 중국 농경문화 및 도작의 한반도 전래는 기원전 4천년경의 신석기문화 단계로서 황해도 봉산군 智塔里, 봉산군 馬山里, 평양 南京유적 등에서 피, 조등이 출토되어 雜穀 전작농업이 확인되고³⁸⁾ 경기도 高陽 및 金浦, 一山 등지의 신석기 후기 탄화미 등을 통해 육도작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10000여년이전의 양상인 청원 小魯里의 13000-15000년bp 토탄층의 稻粃 예를 제외하면 한반도 재배도의 연대는 5천년전경 출현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大化里 토탄 稻粃의 연대가 4070±80bp로서 2880-2450BC 연대를 보여준다.³⁹⁾ 그런데 기원전 3천년경 한반도 서해안의 稻作은 중국의 도작지역과

31) 한창균외, 2002, 「옥천 대천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연구」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발표집』

구자진, 2003, 『옥천 대천리의 신석기집자리에 대한연구』, 한남대석사논문

32) 이진민, 2007, 남한지역농경사회의 성립과 전개,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p.296.

33) 안재호, 2000, p.51, 김재윤, 2003, p.85

34) 이준경, 2001,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영남고고학』 28, p.20

35) 裴安平, 1989, 「彭頭山文化的稻作遺傳與中國史前稻作農業」 『農業考古』 1989-2

36) 浙江省博物館, 1981, 「河姆渡遺蹟動植物遺存的研究」 『浙江省文物考古學刊』 1

37) 許明綱, 劉俊勇, 1991, 「大嘴子青銅器時代遺址發掘記略」 『遼海文物學刊』 1991-1

38) 변사성, 고영남, 1989,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39) 安承模, 2007, 「栽培稻의 起源과 韓半島로의 傳來-稻資料를 中心으로-」 『日韓交流展 稻의來た道』 p.73

연결 지어 살펴야 하는 데 현존 중국 산둥지역 도작은 기원전 2500년경 龍山時代부터 출현하며 기원전 3000년경이전의 稻作 북방한계선은 淮河유역이란 점에서 이 시기의 稻作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4) 일본열도의 수전도작문화

한반도의 稻作농경은 무문토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松菊里文化시기에 본격적으로 일본열도로 전해져 북부구주지역을 중심으로 정착된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이는 북부 구주 현해탄 연안평야의 佐賀縣 唐津 唐津市 菜畑, 宇木汲田, 福岡縣 二丈町 曲り田, 福岡市 有田, 板付 등 초기 도작유적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⁴⁰⁾ 특히, 板付遺蹟, 野多目遺蹟의 논유적은 한국의 울산 玉峴 유적이나 논산 麻田里유적처럼 소구획 水田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작농경은 특히, 벼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도작농경을 수행한 社會體制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홍도,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마제석검, 석촉 등 한반도 청동기문화양상과 궤를 같이하며 環濠集落과 松菊里型 住居地, 支石墓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에 의해 농경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豎穴住居와 貯藏穴의 별도배치 등 새로운 주거형식 및 石棺墓로 대표되는 松菊里文化의 영향은 또한 북부구주 내해인 有明海 沿岸 佐賀平野의 吉野ヶ里유적과 久保泉丸山유적에서도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⁴¹⁾ 이는 송국리문화가 일본 야요이문화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문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열도지역으로의 稻作傳來 루트에 대한 일본학계의 입장은 종래 다음과 같은 5가지 입장이 제시되어 있었다. 즉, 1)중국북부-한반도- 북부구주, 2) 산동반도-요동반도-한반도-북부구주 3)중국북부-한반도 중서부-북부구주 4)중국 장강하류-구주(직접도래설) 5)沖繩諸島-구주(남쪽 도래설) 등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4)의 직접도래설의 경우 농경관련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과 5)의 남쪽 도래설의 경우 관련 米의 연대가 기원후7-8세기를 넘지 못하는 현상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⁴²⁾

따라서 일본초기稻作의 전래는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일양국학계의 입장은 동일하다. 즉, 水稻作과 관개농경기술, 농경도구, 米의 형태, 작물조성 및 문화요소 전반에 있어 야요이(彌生) 초기의 稻作은 松菊里文化 요소와 함께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전래된 것에 동의하고 있다.⁴³⁾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죠오문(繩文)시기 稻作을 열대형 Japonica의 畑作으로

40) 조현중, 2000, 「일본의 도작농경연구-미생시대水田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11.

41) 深澤芳樹, 2005, 「彌生時代概說」 『日本考古學』 小學館

42) 佐原眞, 2007, 「稻, 鐵器, 青銅器」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p.p273-274

43) 深澤芳樹, 2005, 「彌生時代概說」 『日本考古學』 小學館

파악하여 조엽수림형의 전작이 남로를 통해 일본열도로 유입되었다는 화남 직접 도래설이 제기되었다.⁴⁴⁾ 그러나 남로에서는 작물고고학적 자료가 결여된 반면 한반도와 구주는 즐문토기시대와 無文土器 전기의 활발한 교류와 韓半島에도 열대형 Japonica에 가까운 벼 형태가 존재하는 사실에 의해 조오몽(繩文)시기의 稻作 또한 韓半島에서 전래된 것으로 파악된다.⁴⁵⁾

또한 신석기시대 한반도에서 조오몽(繩文)시대 九州에 전해진 結合式 釣針과 組合銚의 전통을 이은 逆T字形 釣針은 산동반도-요동반도-한반도남부연안-서북구주에 분포하고 있어⁴⁶⁾ 요동반도 도작재배문화와 한반도로 연결되는 漁撈활동문화의 연결성도 확인된다.

4.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

1) 중원계 청동기

생활용기: 취사도구, 식기, 주기

제기: 제사용 의기

무기: 과, 모, 거마구

2) 북방계 청동기

생활용기: 동북

무기:도자, 직인단검, 도끼, 마함

장식품: 다양한 식패, 소형장식품

3) 동북계 청동기

무기: 곡인단검, 선형동부, 직병도

의기:기하문 다뉴동경

44) 森貞次郎,1985, 『繩文農耕』

45) 안승모, 2006, 전개논문,p.76

46) 甲元眞之,1999 「環東中國海の先史漁撈文化」 『熊本大學文學部論叢』 65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유목경제 문화권⁴⁷⁾은 중국북방과 만주지역까지 분포하였다. 중국북방지역은 중원의 고도로 발달된 정착문명과 유목경제가 만나는 접점지대로 시기에 따라 두 문화권은 확산과 축소를 반복하면서 이 지역에는 독특한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중원과 다른 청동기 제작 전통이 존재하였는데 ‘중국북방의 유목문화 청동기’로 지칭되는 데 카라숙문화(기원전 13세기-9세기)로 대표되는 북방문화가 요동남부 및 한반도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고인돌로 대표되는 집단이 계승 발전한 비파형동검, 미송리형 토기문화집단에 의해 제지되어 침투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7)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유목경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단계(기원전 3000-2000년대)

초기 청동기 시대

아파나시예보문화

목축과 수렵의 혼합경제

-2단계(기원전 2000년기초엽-기원전 2000년기 중엽)

중기청동기시대

안드로노보문화

초기유목, 반유목

-3단계(기원전2000년기중엽-기원전1000년기 초엽)

후기청동기시대

카라숙문화

-4단계(기원전1000년기중반-기원전후기)

타가르문화

결 론

중국은 전통적 중화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대, 발전된 신중화주의에 입각한 애국주의 교육론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인식들을 정립하고 있으며 일본은 천황제에 의한 유사조공체계에 의한 나침의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아 공영권이란 동아시아관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우리 나침의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인식의 틀과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한 천하관의 표현은 역사적으로는 광개토왕릉비문에 표방되었던 天孫之子에 입각한 주변의 屬民, 臣民으로 표현된 天下觀⁴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내용은 광개토왕 당시 신하였던 牽頭婁라는 신하의 墓誌에서도 동일하게 표출된 내용으로 중국적 세계관에 당당히 맞서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서 고구려가 위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이승휴의 『帝王韻紀』에 표출된 ‘別有天地’ 개념과 이규보의 『東明王篇』 序에 표방된 중국성인과 동명왕을 동일시 하는 인식은 중원과 대별된 우리의 독자적 역사와 세계를 극명하게 표출한 것으로 중국적 천하관에 종속하지 않고 병존하는 多元的 天下觀⁴⁹⁾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 고려, 조선 시기 ‘小中華’ 개념⁵⁰⁾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동아시아사를 구성함에 있어 이같은 다원론적 역사구심력과 독자적 문화발전 및 상호 영향이 병행된 균형적 역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의 연원과 내용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적 동아시아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적 논의가 시급히 마련되어 한국사적 인식에 의한 동아시아사의 조망 및 세계사적 인식의 틀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48)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49)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韓國史研究會.

50) 도현철, 2000, 원명고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제37호 한국역사연구회.

曹永祿, 1996, 朝鮮의 小中華觀-明清交替期 東亞三國의 天下觀의 變化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149집 역사학회.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 '2-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단원을 중심으로

정 연(영락고)

I. 머리말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동아시아사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과서 판매량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80,000여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고등학생이 동아시아사를 선택, 수강한 것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가 첫 해에 35,000여 권, 이듬해부터 70,000~80,000여권 정도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동아시아사'를 통해 역사 교육의 제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했던 역사 교육계의 기대가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역사 교육의 제반 문제' 중 가장 컸던 것이 '역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외면과 그로 인한 선택자 수 축소'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올해(2013학년도 사용분) 총 채택 부수는 156,000여권이다.

동아시아사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것에 비례하여, 역사 교사의 걱정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충분한 연구 기간과 적절한 참고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내용을 가진 과목의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중순, 동북아역사재단이 동아시아사 채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많은 교사가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개설 배경에 대한 이해가 낮고, 동아시아사 과목의 단원별 교수 학습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자료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 및 일본사와 베트남사에 대한 심화 연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2007년 2월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교사 연수를 시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동아시아사 수업 관련 자료들을 간행, 배포하였음에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선 교사들을 안심시킬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이 강의는 이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논의를 배제하고, 교사가 동아시아사 수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즉,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강의식 수업에 맞추어, 동아시아사

수업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연하면서, 각 단계에 필요한 참고 자료와 그것의 활용법을 안내할 것이다.

II. 동아시아사의 이해

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특성

동아시아사는 우리 역사 교육에서 전례가 없는 신설 과목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 수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동아시아사 과목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1장에서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이해

교육과정이 교과목의 성격 및 특성과 관련하여 다소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라면, 교과서는 그것이 구체화된 문서이다. 교사는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을 살핌으로써 해당 교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의 방향과 수업 시 유의점, 핵심 개념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2종이다. 교학사본과 천재교육본으로, 두 교과서는 구성 체계와 내용, 내용 조직 방식이 다소 상이하다. 두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본 서지 사항⁵¹⁾

출판사	집필진 구성		내용 분량	
	대표집필자	전공별 집필진	전체분량 (쪽)	실 내용 분량(쪽)
교학사	손승철	한국사 전공 5 일본사 전공 1 역사교육 전공2 (총 8인)	258	233
천재교육	안병우	한국사 전공 2 중국사 전공 2 일본사 전공 2 역사교육 전공 3 (총 9인)	313	260

51) <표>에서 '실 내용 분량'은 속표지, 머리말, 차례, 부록 등을 제외한, 실제 본문의 분량을 의미함.

[표 2]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 조직 방식⁵²⁾

출판사	단원 체계	중단원 구성	대단원 마무리의 구성
교학사	대단원/중단원/ 소단원/소주제	생각 열기/핵심 용어/소단원 학습 목표/본문/탐구 활동/대단원 마무리	핵심 내용 다시보기/스스로 정리하기/수행 활동 마무리
천재교육	대단원/중단원/ 소주제	생각 열기/핵심 용어/본문/주제 탐구/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한눈에 보기/핵심 내용 정리하기/대단원 수행 평가

[표 3]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

출판사	본문 구성		특별 구성	
	서술 범위	내용 구성	꼭지 명	내용 및 특징
교학사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중심	각국별 서술 경향	열린자료, 열린생각	본문 내용을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와 사진 등 도움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제시함
			탐구활동	다양한 자료를 분석, 비교, 종합.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원의 핵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제시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집중탐구 활동	특정 주제를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함
			역사는 흐른다	학생 수준에 맞는 역사적 교훈, 역사적 흐름과 풍부한 사례 등을 통해 좀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함
천재교육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중심	주제별 서술 지향	그때 세계는	각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시기에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제시하여 동시대의 역사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함
			더 알아보기	소단원 학습 내용 중 심화 학습이 필요한 경우 제시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함
			역사의 현장	주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사건에 대해 소개하여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함

52) 각 출판사가 교과서 앞부분의 '구성과 특징'면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야기 속으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실어 역사 학습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함
			특집	중단원의 주요 학습 요소를 좀 더 깊게 다룸으로써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함
			동아시아 사람들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애와 활동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함
			주제 탐구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역사 지식을 넓히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함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역사 내용 지식의 깊이와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준거가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채택한 교과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⁵³⁾.

그런데 교과서가 여러 종 있을 때, 교사는 당해 학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물론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대체로 1학년이나 2학년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경우이다⁵⁴⁾.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당해 학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위의 표들에서 보는 것처럼, 두 종의 교과서가 저자의 전공이나 내용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라 각각의 교과서마다 내용 서술의 깊이와 수준에서 특별히 강점을 보이는 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사는 변변한 통사책이 아직 없는 데다, 교과서의 체제와 유사하게 구성된 연구서도 거의 없으므로,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당해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를 제대로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의 내용까지도 자세히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

53)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내용 지식을 교수해야 하는지는 교사의 교육관과 교재관, 교육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54) 반면, 3학년이나 이미 한번 수업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대비 수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교과서의 내용까지도 교수하여야 한다.

Ⅲ.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

1.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 시 유의할 점

동아시아사는 과목의 성격과 목표가 한국사나 세계사와 다르고, 특히 내용 구성 방식에서 기존의 역사 과목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업을 조직해야 한다. 즉, 역사교과 내에서의 동아시아사의 위상, 과목 신설의 목적, 교육 목표 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업의 방식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동아시아사의 특성은 무엇일까?

- (1) 동아시아사는 ‘지역세계사’이다. 즉,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를 포함하는 동시에 세계사에 포함되는 역사’이며, ‘각국사의 단순한 합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 단위인 역사’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를 교수할 때는 각국사 중심의 설명을 지양하고, 동아시아를 범주로 하는 통합적 역사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또, 상호 교류와 관계에 주목하고, 국가 간 공통점의 이해와 차이점의 비교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 (2) 동아시아사는 심화 선택 과정이며 주제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는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교수하여야 한다.
- (3) 동아시아사는 쉽고 재미있는 역사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 수업은 개념 학습, 활동 중심 학습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동아시아사는 미래 지향적인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 수업은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다양성 인정 및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의 단위별 내용 요소의 선정 의미를, 과목의 성격 및 목표와 관련지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동아시아사의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단위별 내용 요소의 선정 의미와 그에 따른 단위 구성의 유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 동아시아 세계를,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크게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사·민족사 단위의 역사 이해에서 한 발짝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된 주제이다. 또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주민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생업이 발전해 왔음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 지역별·국가별 문화 양상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역사 주체의 선택적 행위로 파악하게 한다.

(2) 선사 문화 : 동아시아 문화의 다원성을 이해함으로써 중국 중심, 농경 문화 중심의 역사 인식을 벗어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황허 문명이 타 지역 문명을 압도하기 이전의 문화인, 신석기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3) 농경과 목축 : 농경민과 목축민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업을 발전시켜왔음을 인식하고, 농경 지역과 목축 지역의 관계를 상호 교류(대결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까지도 포함하는)의 관계로 파악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유목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에 우열을 나누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4)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 민족 국가 성립 이전의 대규모 인구 이동 현황을 통해 ‘민족’, ‘국민 국가’ 등의 개념이 후대에 생겨난 역사적 개념임을 알게 하기 위해 선정된 주제이다.

(5) 동아시아 국제 관계 :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하나였던 조공-책봉 관계의 다양한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해왔음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를 위해 이 단원에서는 책봉-조공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관계가 존재했던 당 이전 시기를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한다.

(6) 북방민족 : 몽골 제국의 성립을 통해 동아시아 세계가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해 왔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 농경민족과 비교되는 북방민족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되, 그들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미화하거나 전쟁의 참상을 빠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7)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 ‘왜란’, ‘호란’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동아시아적 범주에서 조망함으로써 그것들의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일국사적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인지해야 하며, ‘왜란’, ‘호란’이라는 용어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8) 은 유통과 교역망 : 동아시아 세계가 은을 매개로 세계의 각 지역과 연결되는 것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사가 세계사를 구성하는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용어나 관점 등에서 동아시아사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각 정치·문화 집단 간의 우열을 나누는 태도를 지양한다.
: 황하 문명 혹은 중국 문명 중심의 단선적인 문명 발전론과 농경문화 우위론을 지양하고, 그 모든 지역적 다양성이 동아시아 문명의 바탕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2) 현재의 국민 국가적 관점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파악한다.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국명이나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의 민족명 대신 고조선, 진, 한 등의 왕조명과 가능한 수준에서의 종족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역사의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넓혀야 한다. : 예를 들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은 소위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전쟁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해당 전쟁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갖는 국제전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개항 전후의 시기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다루되 그것에 저항하면서 국민국가, 민족주의를 성취해나가는 동아시아인의 의지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5) 현대사 단원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일본 제국주의의 특수성에 유의하고, 냉전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베트남의 민족 운동과 통일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수준 평가 문항의 출제 방향 및 유형을 분석하여 수업 설계에 참고한다.

: 현재로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수준 평가 문항(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동아시아사 수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나온 국가 수준 평가 문항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당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마땅한 참고서가 없어 어떻게 동아시아사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에게 매우 훌륭한 학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2.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의 실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아시아사 수업 시에 유의할 점을 확인한 후에는 구체적인 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이하에서는 ‘대단원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를 중심으로, 수업 준비의 구체적인 과정을 시연하기로 한다.

수업 방식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수 방법인, PPT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이다. 교과서는 주로 천재교육본을 사용하면서, 교학사본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1) 단원의 구성에 대해 파악한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대단원 2는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는 단원이다. 기원 전후에서 10세기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진·한~수·당 시대, 삼국~남북국 시대, 헤이안 중기까지의 일본이 해당된다. 총 4개의 주제(중단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고대 불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단원에는 ‘대중 불교의 성립과 발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와 토착화’, ‘불교와 동아시아 사회’의, 3개 소주제가 있다. 각각의 소주제에서는 대승 불교의 특징과 분파,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과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불교가 동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다룬다.

[표 4] 동아시아사 교과서 대단원 2의 구성(천재 교육)⁵⁵⁾

단원명	내용요소	중단원명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전쟁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고대 불교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	율령 체계의 수용
	동아시아 국제 관계	국제 관계와 외교 활동

2) 단원의 내용을 이해한다.

동아시아사 통사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는 동아시아사 수업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각국사 저작들을 참고할 수

55) 천재교육은 대단원-중단원-소주제의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교학사는 대단원-중단원-소단원-소주제의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다.

밖에 없다. 교사 수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각국사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성곤 외,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 연민수, {일본역사}, 보고사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1~3}, 경세원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최병욱,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대한교과서

하지만 동아시아사는 각국사 중심의 서술이 아니므로, 이러한 저술들을 통해 동아시아사 수업에 필요한 내용 지식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사의 내용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사의 내용을 주제에 따라 취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고, 또한, 설사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세계사’로서의 동아시아사상을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 혹은 한·중·일의 교류나 관계사에 초점을 맞춘 다음의 저술들이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에 좀 더 유용한 참고 서적이 될 수 있다.

-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마주보는 한일사 1~2}, 사계절
-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외, {한일교류의 역사}, 혜안

동아시아사 교육과정과 유사한 구성 체제를 가진 다음과 같은 책들도 있다. 이것들은 동아시아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 유용태 외,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창비
- 박중현,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두리미디어.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I ~ III}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집필 안내서 I, II}

그 외에 각 출판사에서 책자와 CD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도 매우 유용하다. 외국에서 나온 책으로는, 2005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양군 외, {동아시아}(동북아역사재단 번역)가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측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참고 시 유의해야 한다.

3)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요약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제작에 들어가,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이때는 교과서를 요약하되, 학생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설명들을 첨가한다. 이 부분 역시 교사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다만,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교사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교과서에 주제별로 저술된 내용을 해체하여 국가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사들이 그동안의 역사 과목 수업을 준비 하면서 거의 관성적으로 굳어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사에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동아시아사는 주제 중심의 교과서 서술을 원칙으로, 개념 중심의 역사 이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내용 요약의 예 1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 요약의 예 1
<p>(1) 불교의 지역별 전파 시기와 경로</p> <p>① 중국지역: 기원 전후, 실크로드를 통해</p> <p>② 한반도: 4세기(삼국 시대), 중국 지역으로부터</p> <p>③ 일본열도: 6세기, 백제로부터</p> <p>④ 북부베트남: 2세기 이전 바닷길을 통해</p> <p>(2) 불교의 지역별 발전</p> <p>① 중국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경 한역, 유목민족 국가들의 적극적 지원, 선종(달마,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 중시) 개창 - 둔강, 원강, 룡먼 석굴 사원 - 현장, 의정 등 <p>② 한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공헌 - 통일 신라 시대: 민중에 확산, 말기 - 선종+ 지방 호족 세력 - 고려 시대: 천태종, 조계종 - 원효, 의상, 의천, 지눌 등 <p>③ 일본 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와 결합(→ 신불습합), 밀교(주술, 기도 중시), - 가마쿠라시대: 대중 불교(염불만으로 구원) <p>④ 베트남: 각 왕조의 적극적인 보호</p>	<p>(1) 중국의 불교</p> <p>① 전파: 기원 전후, 실크로드를 통해</p> <p>② 발전의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경 한역 - 유목민족 국가들의 적극적 지원 <p>③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 개창 (달마):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 중시 <p>④ 불교 유산: 둔강, 원강, 룡먼 석굴 사원</p> <p>⑤ 대표적 승려: 현장, 의정 등</p> <p>(2) 한반도의 불교</p> <p>① 전래: 4세기(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p> <p>②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중앙집권체제 정비에 공헌 - 통일신라시대: 민중에 확산, 말기 - 선종+ 지방 호족 세력 - 고려 시대: 천태종, 조계종 <p>③ 대표적 승려: 원효, 의상, 의천, 지눌</p> <p>(3) 일본의 불교</p> <p>① 전래: 6세기에 백제로부터</p> <p>②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와 결합(→신불습합), 밀교(주술, 기도 중시), - 가마쿠라시대: 대중 불교로



자리 잡음(염불만으로 구원)

(4) 베트남의 불교

① 전래: 2세기 이전, 바닷길을 통해
 ② 발전 : 각 왕조의 적극적인 보호

바람직한 내용 요약의 예 2

(3)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① 양사오문화(황하 중류): 발농사, 채도
 ② 다윈커우문화(황하 하류): 발농사, 회도, 흑도
 ③ 허무두문화(양쯔강 하류): 벼농사, 흑도, 홍도 등
 ④ 홍산문화(랴오허 유역): 발농사, 옥기
 ⑤ 한반도 신석기문화: 발농사, 민무늬 토기, 덧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⑥ 조몬문화(일본 열도): 어로와 채집 등, 조몬 토기
 ⑦ 베트남 신석기문화: 호아 빈 문화에서 시작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 요약의 예 2

(3)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① 중국
 ㄱ. 양사오문화(황하 중류): 발농사, 채도
 ㄴ. 다윈커우문화(황하 하류): 발농사, 회도, 흑도
 ㄷ. 허무두문화(양쯔강 하류): 벼농사, 흑도, 홍도 등
 ㄹ. 홍산문화(랴오허 유역): 발농사, 옥기
 ② 한국 : 발농사, 민무늬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토기
 ③ 일본 : 조몬 문화-어로와 채집 등, 조몬 토기
 ④ 베트남 : 호아 빈 문화에서 시작

4) PPT 제작

앞에서 요약한 본문 내용은 학습지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PPT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수업이 가능한 교실 환경이 갖추어진 학교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PPT자료를 제작하기로 한다.

(1) 기본 자료

PPT 자료를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각 출판사에서 제공한 CD 자료이다. 천재교육의 경우, CD로 제공된 e-book의 부가자료실에 가면, 판서 자료라는 이름으로, 단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PPT 자료를 실어 두고 있다. 다만, 사료나 그림 자료는 없고, 교과서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고 있다.

또 다른 PPT 자료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한

‘동아시아사 수업 참고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2종의 교과서를 통합하여 내용을 요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료와 그림 자료 등을 싣고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교학사와 천재교육의 교과서 체제에 다소 차이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천재교육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그대로 수업에 사용하기는 힘들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 방식이나 학습지의 형식, 교육 환경에 맞춰 이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앞서 요약한 본문 내용을, 이 PPT 틀에 맞춰 슬라이드로 제작해 보자.

(2) 사료 및 그림 자료 넣기 : 본문 요약 부분을 PPT로 구현하고 나면, 다음으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료와 그림 자료 등을 넣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사 수업과 관련된 사료 및 자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동아시아사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집)}이다. {사료로 보는 세계사(세계사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집)}에도 동아시아사 관련 내용이 다수 있다.

그림 자료는 기본적으로 두 권의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필요한 경우 포털사이트의 이미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사료와 그림 자료를 PPT에 넣어보자.

(3) 동영상 자료 넣기 :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데는 동영상 자료만한 것이 없다. 전근대는 직접적으로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근현대는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다양한 자료가 올라와 있으므로, 동영상 편집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쉽게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을 PPT에 링크해 보자.

5) 평가 문항 만들기

수업 자료에는 해당 수업을 정리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한 두 문제 넣는 것이 좋다. 이것들은 학생이 해당 수업의 요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교사는 이를 중간·기말고사에 활용할 수도 있다.

문항은 제시문과 자료(사료, 지도, 그림, 사진 등), 답지로 구성하되, 동아시아사가 주제별 구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 중심으로 출제하도록 한다. 동아시아사 평가 문항의 출제와 관련해서는 10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출제에서 그림 자료를 다루는 팁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한다.

1) 윈도우즈 그림판을 이용한 지도 수정

2) 기출 문제의 삽화를 이용한 문항 제작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라고 특별히 다른 역사과 과목들의 수업 준비와 다를 것은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고, 그것은 부단한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좀 더 쉽게 동아시아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동아시아사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동요

손승철(강원대)

1.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책봉체제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세계관은 중화사상에 기초한 華夷意識이다. 중화사상이란 중국의 漢族이 갖고 있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말한다. 한족은 일찍부터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유목민족과는 달리 농경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中)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문화(華)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소유하지 못한 이민족을 四夷(夷·蠻·戎·狄)로 생각하는 화이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국가관에 적용되어 하나의 질서의식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 후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와 한족과 이민족이 중화와 이적을 불문하고 서로 패권을 다투며 전쟁을 거듭하자, 국가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처럼 禮에 의한 질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事大·字小의 禮,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事大),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해 준다(字小)는 국가 간의 외교규범이 성립되게 되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대자소의 예란 강대국과 약소국이 상호 공존하는 외교수단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의식은 漢代 이후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게 朝貢과 冊封의 외교행위로 정형화되어 갔다. 즉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하여 사대의 예로써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하여 자소의 예로써 책봉을 해주게 되는데, 이 관계에 의하여 양자 간에는 공존의 논리가 있다는 말이다.

책봉이란 본래 중국의 황제가 국내의 귀족이나 공신에게 王 또는 公·侯 등 작위와 采邑 등을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秦漢代 이후, 이것을 주변의 여러 나라 군주들에게 적용하여 王으로 책봉함으로써 군신 관계의 질서로 국제관계를 맺었던 것이고, 주변국의 군주들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던 것이다. 나아가 책봉을 받고, 조공이 허락됨으로써 공적인 무역관계가 성립되어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교류가 가능했다. 이러한 국제관계를 冊封體制라고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 간에 있어 사대란 중국과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완화하고 상호공존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규범으로 인식해야 하며, 책봉체제란 이러한 외교규범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국제 사회를 안정시켜나가는 하나의 제도화된 질서형식으로 국가간의 상호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 왜구

한반도에 대한 왜구의 약탈은 1350년부터 시작되며, 이후 고려 말까지 해안 지방은 물론 내륙 깊숙이 약탈이 자행된다. 몽고가 약해지면서 중국대륙에서는 신홍제국 명이 건국되고, 한반도는 몽골로부터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혼란, 일본열도는 남북조시대로 모두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겪게 되며, 이때부터 양 지역간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倭寇의 활동이 극심해진다.

고려말기 왜구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다. 『高麗史』에는 1351년 왜구의 기록이 등장한 이래 1392년까지 총 495회의 침입기사가 나오며, 그 지역도 한반도 전역에 걸쳐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한때 도읍인 개경까지 위협을 받아 개경천도론이 주장되기도 했고, 낙동강을 따라 대구·상주까지 왜구가 출현하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더 깊은 예천 보문사로 옮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왜구들은 조창을 습격하여 경제적으로 노략질을 하는 한편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거나 또는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예를 들면 현재 알려져 있는 고려불화는 총 120여점인데, 한국에는 12점밖에 없고, 일본에 95점이 남아있다. 또 쓰시마와 이키에는 80여구의 신라·고려 불상과 동종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에 대해 고려에서는 船軍을 확충하고, 崔茂宣으로 하여금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朴威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고, 鄭夢周 등을 5차례나 사절로 보내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카가 장군에게는 왜구금압 능력이 없던 시기여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즈음 한반도에는 이성계에 의해 朝鮮이 건국되고, 일본에는 아시카가 요시미즈(足利義滿)가 南北朝를 통일하여 무로마치(室町)막부를 열게 된다. 당시 朝鮮王朝와 무로마치막부에서는 倭寇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朝鮮通信使가 탄생되게 된다.

도쿄대학교에 소장된 『倭寇圖圈』에는 왜구 약탈의 모습이 상세하다. 이들 왜구가 한반도에 출몰하여 무엇을 어떻게 약탈했는가. 『고려사』에는 왜구가 극심했던 1382년 기록에는 “서너살짜리의 여자아이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쌀을 넣고 고사를 지낸 뒤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에서는 왜구들의 약탈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외교적인 방법을 써서

7차례나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남북조시대의 혼란기여서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결국 고려는 군사적 방법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무인세력이 성장하여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된다. 그런데, 현재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사관 『역사 교과서』에서는 “왜구란 이 당시 조선반도 및 중국대륙 연안에 출몰했던 해적집단을 뜻한다. 그들 중에는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술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3. 공존의 시대 : 조선통신사와 삼포

1392년 조선이 건국한 후에도 왜구의 약탈은 계속되었다. 일본도 같은 시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과 일본은 왜구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고,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책봉 체제에 편입된다. 이어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가 왕래하면서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 교린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공존의 시대를 열어간다.

이 과정에서 조선통신사는 믿음으로 통하는 통신(通信)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교린 관계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간다. 하나는 조선국왕과 일본국왕(장군) 사이의 대등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장군 이외의 모든 세력을 각종 통교 규정에 의해 조정해 가는 기미 관계였다. 각종 통교 규정이 성립되면서, 왜인들이 약탈자에서 통교자로 바뀌고, 조선의 삼포에 와서 무역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의 밑바탕에는 믿음[信]이 전제 되어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交隣의 용례를 보면, 信·道·義·禮라는 유교적 실천규범을 전제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交隣之信’ ‘交隣之道’ ‘交隣之義’ ‘交隣之禮’의 개념을 체계화했다. 즉 교린이란 信義·道理·義理·禮義라는 유교적 가치기준을 전제로 하는 외교이며, 通信使는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信義를 하는 사절’이다.

이와 같이 조선과 일본의 중앙정부가 서로 사신을 왕래시키면서 왜구금지를 위한 교섭을 했지만, 왜구의 활동은 여전하여 외교교섭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막부장군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변방에 있는 왜구를 통제할 수 없었고, 조선연안 및 조선사절단이 통과해야 하는 세토나 이카이(瀬戸内海)에서는 여전히 해적의 활동이 활발하여 통신사의 왕래도 장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다시 왜구의 실제적인 우두머리들과 교섭을 벌였고, 신숙주의 『海東諸國紀』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낸 일본 중소영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총126명에 달하고 있다.

조선은 이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벌여, 이들을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갔다. 그리하여 對馬島主를 중간자로 하여 倭寇를 평화로운 通交者로 전환시키는 貿易體制를 새로이 구축했고, 그 결과 三浦開港(1426)과 癸亥約條(1443)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통교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의 통제에 협조적인 왜인들에게 조선의 관직을 주는 受職人制度, 수직왜인에게는 년 1회 조선에 도항하여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들이 받았던 임명장인 告身이 지금도 13장이 남아있다.

삼포개항의 시작은 1407년 무질서하게 내왕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407년부터 富(釜)山浦와 乃而浦(薺浦)를 항구로 지정하여 그 출입과 교역을 허가하면서부터이다.

1426년 삼포제도가 정비되면서, 조선에 오는 모든 왜인들은 한반도 동남해안의 세 포구(염포, 부산포, 제포)에 입항했다. 각종 명목으로 조선에 왔던 일본인들은 삼포에서 무역을 하면서, 우두머리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조선국왕을 알현했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포에 살게 되었다. 1471년 신숙주가 편찬한 『해동제국기』에는 삼포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삼포 왜인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다. 가히 조선시대의 ‘저팬 타운’이라고 부를 만하다.

1419년 대마도 정벌에 의해 일시 폐쇄하였으나, 그들의 간청으로 1423년에 다시 두 곳을 허락하고, 이어 鹽浦를 추가함으로써 삼포제도를 확립했다. 포소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각기 제포(진해)에 30호, 부산포(부산)에 20호, 염포(울산)에 10호의 항거왜인을 거주하게 하여, 도항왜인의 접대와 교역을 허가함으로써 통교질서를 세웠다. 이들 삼포 가운데 조선후기에는 부산포만이 남아 초량왜관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당시 삼포를 통해 어떠한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졌을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물품은 쌀이나 콩 등 식량류와 섬유품이었다. 섬유품은 처음에는 모시와 마포, 명주였으나 15세기 후반부터는 면포로 바뀐다. 일본에서 면포를 선호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목화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 면포가 감축이 좋은 고급의류로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주 상품은 구리인데, 예를 들면 1428년에는 2만 8천근의 구리를 가져왔고, 1489년에는 2만근의 구리를 가져오고, 10만 필의 면포를 가져갔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놋쇠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고, 동전과 금속활자 등 구리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남방산 蘇木과 물소뿔이, 후추 등이 수입되었다.

『해동제국기』에는 왜인의 입항과 무역, 상경로와 방법, 절차와 접대, 서울에

뫼었던 여관인 동평관, 서울고지도에 남아 있는 왜관동의 유래,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 국왕의 알현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온천을 즐기는 등 삼포 체류 왜인의 일상생활과 살았던 집, 이들과 거래한 무역품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항거왜인이 늘고 무질서하게 도항하자, 왜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도항절차와 증명에 관한 여러 절차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도항증명서인 文引을 대마도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는 文引制度를 실시했다. 즉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어서 대마도주로 하여금 수수료를 받도록 재정적인 이득을 주고, 그 댓가로 조선에 통교를 원하는 일본인들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통교인들을 4등급(日本國王使, 巨諸使, 九州節度使對馬島主, 小僧使對馬島受職人)으로 나누고, 그 우두머리들을 상경시켜 조선국왕에게 알현시키는 上京制度를 의무화했다. 이것은 중국의 기미정책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의 여진·왜인·유구·안남 등에 대해서는 조선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는 것으로 조선외교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우호교린의 교류관계도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단절되고, 이후 7년간의 전쟁과 그로 인한 전쟁의 상처는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시켰다.

4. 전쟁의 시대. 임진전쟁

1592년, 조선통신사와 삼포에 의한 200년간의 우호교린이 임진왜란에 의해 깨진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에게 돌리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인 책봉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지 않고 배신한 것이다. 히데요시는 조선통신사를 조공사로 취급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과거의 상경로를 통해 20일 만인 5월 2일, 한양에 입성했고, 6월 16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프로이스의 일기』에는 그의 침략 의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의 승리도 개전 초기 2달간이었고, 이후 7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의병과 민중의 저항, 이순신 장군의 활약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에 29개나 되는 왜성을 쌓고 장기전에 들어갔지만, 히데요시는 죽고,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전쟁 후, 히데요시가 쌓은 오사카 성 정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다. 전쟁 중에 당한 여인들의 수난을 그린 『三綱行實圖』와 양국의 각종 기록들은 지금도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한다. 또 조선인의 코로 만든 코무덤 등, 이후 조선 사람은 일본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을 통해, 조선 문화가 일본에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도공들이 빚은 도자기는 일본 국보가 되었고, 고려불화나 조선중, 많은 서적들이 지금도 일본 문화재로 전해진다.

특히 일본군은 조선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굴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가하면, 노예로 팔아 넘겼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노예전쟁으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7년간의 전쟁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납치 되었는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납치인원을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산출해 내고 있다. 피랍조선인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당시 일본에 와있던 신부 루이스 세쿠에이라(Luis Cerqueira)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가사키에 인접한 곳의 많은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에게 조선사람을 팔기 위하여 일본의 여러지역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잡혀 있는 지역에서 그들을 구매하는 한편, 조선인을 포획하기 위해 직접 조선으로 갔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중국배에서 이들을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았다.”(1598년9월4일자 기록)

또한 중군승으로 왜란에 참가한 케이넨(慶念)은, “ 일본에서 수많은 상인이 왔는데, 남녀노소를 새끼줄로 묶어 뒤에서 재촉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매질했다.”(『조선일일기』) 라고 기록했다. 마치 로마시대의 영화 속에 나오는 노예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잡아온 사람들 중에는 건장한 남자나 노약자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여인이 많았다. 일본천주교에서 조선의 성녀로 칭송받고 있는 ‘오다 줄리아’도 조선소녀였다. 또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얼마 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베니스의 개성상인>도 7세때 일본군에게 끌려 간 조선소년이 노예로 팔려 이탈리아에 가서 상인으로 대성하는 이야기였다.

이상과 같은 임진·정유왜란의 7년간의 잔혹행위는 조선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일본인상을 남겼다. 말 그대로 하늘아래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 소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각인되었다.

5. 평화의 시대, 조선시대의 한류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4년 조선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강화에 대한 진의를 살피기 위해, 승려 유정(사명대사)를 探賊使란 명칭으로 일본에 파견했다. 사명대사 일행은 교토에 가서 도쿠가와 장군의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피로인 3천여 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사명대사 일행의 귀국 후, 조선에서는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일본국왕 명의의 강화요청서, 임란당시 왕릉도굴범의 소환, 그리고 조선피로인의 송환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왕명의를 국서를 위조하고, 왕릉도굴범은 대마도의 잡범으로 대치했으며, 쇄환사편에 피로인들을 7천여명 이상 돌려보냈다. 물론 조선에서는 국서가 위조된 것이고, 도굴범도 잡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조선의 요구가 형식적으로는 수용되었기 때문에 1607년 강화사를 파견하여 국교를 재개했다. 하지만 사절단의 명칭은 「回答兼刷還使」였다. 이로부터 조선 후기에는 총 12회의 조선사절이 파견되는데, 「通信使」의 명칭이 다시 쓰여지는 것은 세 번째인 1636년부터이다.

통신사의 파견목적은 막부장군의 습격이나 양국 간의 긴급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통신사의 편성과 인원은 각 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0명에서 500명이 넘는 대사절단이 1년에서 1년 반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육로로, 그리고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오사카 까지는 해로로, 오사카에서는 다시 육로로 에도(江戸 : 東京)까지 왕래하였다.

통신사 행렬의 장려함은 1636년 통신사를 직접 목격한 네덜란드 상관장 니콜라스의 기록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먼저 무용과 피리 · 북의 주악이 행해지고, 그 후에 벼를 타작할 때 쓰는 것과 같은 큰 막대기를 가진 몇 사람이 두 명씩 지나가고, 그 양측에서 각각 금과 생사를 섞어 만든 망을 든 세 사람이 경호하고 있었다. 그 후에 약 30명의 젊은이가 말을 타고 뒤 따랐다. 그 뒤에는 5-60명이 붉은 우단을 친 가마를 메고 따라갔다. 그 안의 탁자 위에는 칠을 한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 문자로 쓰여진 일본황제에게 보내는 서한이 들어 있었다. …… 채차 여러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뒤따라 왔다. ……가마가 몇 대 지나가고,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사절의 부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잠시 후 400명의 기사 ……약 15분이 지나자 200명의 호위병이 따르고, 일본 귀족일행이 가고, ……마지막으로 조선인의 화물과 선물을 운반하는 약 천 마리의 말 …… 이들의 행렬이 전부 통과하는 데는 약 5시간이 걸렸다.”(『히라도네델란드

상관일기(平戸オランダ商館日記』)

당시 규슈의 히라도(平戸)에는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관장이던 니콜라스가 에도에 가던 중 만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를 안내, 호위하거나 짐을 나르기 위해 평균 3,000여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합치면 통신사행렬은 총 3-4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사람의 거리를 1미터만 잡더라도 4키로는 족히 될 것이고, 그 행렬이 통과하는데 5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사가 조선후기 한일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정치 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통과하는 객사에서의 한시문과 학술교류는 한일 간의 문화상의 교류를 성대하게 했다. 1719년 통신사 수행원 신유한은,

“초사흘 임인, 식사 후, 유학자 10여명이 대청에 모였다. 나는 세 서기와 함께 나가 서로 인사하고 앉았다. 좌중의 사람들 중에는 각각 장단률(長短律) 및 절구(絶句)를 베껴와서 나에게 주며 창화(唱和)를 요청했다. 즉시 모든 요청에 응하여 회답했다. 그가 부르면 나는 곧 화답하고, 혹 바꾸어서 장편이 되기도 했으며, 책상위에는 시문 화답한 종이가 수북히 쌓였다. 김세만이 옆에 앉아서 썰 겨를이 없이 부지런히 먹을 갈았다.

하루 중 만나는 사람은 대체로 3,4편을 얻었지만 혼자서 상대했고, 왼쪽에 응하고, 오른쪽에 답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창성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윤색할 여유도 없었다. 다음날에도 십수명과 만나서 전날과 같이 창수했으며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쳤다.”(신유한 『해유록』)

그렇다면 일반서민들은 어떠했을까. 통신사의 기행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는 통신사에 관한 많은 회화자료가 남겨져 있다. 예를 들면 풍속도 화가로서 유명한 하가와 도에이(羽川藤永)의 <조선인래조도>가 코베의 시립 박물관에 있다.

이 그림은 에도(동경)의 니혼바시(日本橋)를 지나고 있는 통신사일행을 그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서부터 좌측 뒤쪽에 후지산(富士山)과 에도성(江戸城)의 성곽이 보이고, 두부모를 잘라서 짜맞춘 듯이 이층집 지붕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사이를 통신사일행이 지나간다. 2층은 문을 닫아서 격자(格子)만이 눈에 띄지만, 1층에는 상가의 휘장 밑으로 에도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다. 양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 술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어린 애에게 젖을 먹이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이지만, 사람들은 통신사 행렬에 넋을 잃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길 중앙에 무사 한사람과 개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경비를 맡은 무사인지 봉을 들고 서 있는 사람과 개, 방수용 물통이 눈에 띄고, 통신사를 맞이하는 에도시민들의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2-30년 만에 한번 오는 통신사의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마치 지난번 88올림픽 때나 월드컵 경기 때 서울시민의 열광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겨울연가’를 보는 현대 일본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는 또 하나의 한류, 즉 <조선시대의 한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선통신사를 ‘조선시대의 韓流’로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통신사가 한일관계의 전부는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여 한일간에 무역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교류했으며, 또 대마도주에게는 별도로 100명에서 150명 규모의 「譯官使」를 51회나 파견하여 한일관계에서 대마도의 입지를 세워주고, 한일간의 현안을 풀어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은 매우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한일관계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조선전기와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일본에서는 장군의 사신이 오지 않고, 조선에서만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해서, 조선외교의 열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과거 일본국왕사의 상경로가 일본군의 진격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시키고, 부산 왜관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신사파견의 비용은 부산에서부터는 모든 왕복 비용을 일본에서 부담하였는데, 그 비용이 막부의 1년 예산이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과 조선무역에는 기본적으로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封進과 求請에 대한 回賜, 조선왕조와 대마도간의 公貿易, 대마도관리·상인과 조선상인간의 私貿易 등이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주로 은·동 등의 광산물과 남방산 蘇木, 물소뿔과 백반, 후추 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 수출한 품목은 쌀과 콩, 목면이 많았고, 인삼과 중국산 생사와 비단도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6, 침략의 전주곡, 통신에서 배신으로

그러나 이러한 通信使行도 1811년에 끝이 나며, 그것도 對馬島에서 약식으로 국서를 교환하는 易地通信이었다. 물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장군직을 습직하였고, 그때마다 통신사파견이 요청되었으나, 일본 내의 사정에 의해 4차례나 연기를 하다가 결국 1868년 명치유신을 맞게 되고,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통신사로 상징되었던 조선시대의

우호교린의 교류도 끝이 났다.

통신사로 상징되는 조·일 교린관계의 종말은, 명치유신을 알리는 일본측의 서계로부터 비롯되었다. 명치유신 직후, 일본에서는 天皇의 집권사실과 명치외무성에서 한일관계를 전담한다는 서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계의 양식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일본천황을 한 단계 위에 놓고, 天皇대 朝鮮國王의 외교를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에서 외교관례상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장군이 집권하건, 천황이 집권하건, 그것은 일본 국내의 사정이므로, 조선은 단지 일본의 최고집권자와 대등한 관계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결국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1872년 부산왜관을 점령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침략외교에 의해 교린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조선전기 통신사에 의한 200년간의 교린관계가 임진왜란에 의해 깨진 것처럼, 조선후기 260여 년간 교린관계도 일본의 일방적인 왜관점령에 의해 종말을 고했다. 교린관계의 붕괴과정은 다르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무력침공이라는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었던 것이다.

한일양국에서는 20세기의 불행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출발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했다. 양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루 1만 명의 왕래시대에 접어들었다.

김포 - 하네다 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 동경 간을 오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들추어, 양국관계는 또 다시 불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2010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되기 시작한 후, 2011년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그리고 2012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일본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1954년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제의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인데, 일본은 이 내용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스페인, 아랍어에 이르기까지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세계 각국에 선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일본인구의 절반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믿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용한 외교를 하는 동안, 일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진도를 나가버렸다. 교과서를 다시 원점으로 개편하지 않는 이상 ‘독도왜곡’은 바로 잡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 10가지’를 주장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에도막부에서는 17세기 초에 ‘울릉도도해허가증’을 발급했다는 점. 둘째,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점. 셋째,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에 의해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첫째, 서기 512년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에 복속시켰다는 점. 둘째, 안용복사건에 의해 1696년 에도막부에서는 일본인의 울릉도도해를 금지했다는 점. 셋째, 1876년 명치정부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관도에서 제외한다’는 지령문. 넷째,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대한제국의 행정구역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 다섯째,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196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와 독도인근 12해리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점 등에 의해 허구임을 증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손승철, 《조선통신사 -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사, 2006.

나카오히로시지음, 유종현 옮김, 《조선통신사이야기》. 한울, 2005.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역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권, 한울, 2007-9.

한국이사부학회, 《이사부, 독도의 진실을 말하다》, 강원도민일보사, 2012.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한명기(명지대)

一. 임진전쟁과 동아시아

1. 大航海時代의 여파: 銀과 鳥銃

중세 이래 유럽인들은 인도 등지로 나아가 후추를 비롯한 香辛料를 획득하려는 열망이 높았다. 15세기 중반 이후 지리 지식이 확대되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유럽인들의 인도 등지로의 渡航 의지는 더욱 커졌다. 1492년 콜럼부스는 산살바도르 제도에 도착했고 1498년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했다. 1521년 마젤란이 이끄는 스페인 함대는 태평양을 횡단하여 필리핀에 도착했다.

大航海時代의 개막은 동아시아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남겼다. 명은 1567년 海禁을 완화시켜 해상무역을 허용했고 1571년에는 몽골의 알탄 칸과 이른바 隆慶和議를 통해 조공무역을 허용했다. 16세기 중반 대항해시대와 맞물려 동아시아 주변에서는 銀의 流動이 활발해졌다. 1557년 마카오를 획득했던 포르투갈인들은 명의 生絲와 日本銀을 교환하는 중개무역을 시작했고 1571년 스페인이 건설한 마닐라를 통해 포토시 등지에서 채굴된 南美産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또 16세기 초 조선에서 개발된 鉛銀分離法(-灰吹法)이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의 은 생산은 격증했다. 1523년 寧波의 亂을 거쳐 1547년 일본의 遣明船 무역이 중단되자 倭寇가 발호하고 동지나해 일대에서 密貿易이 성행했다. 여하튼 남미산은과 日本銀은 중국의 生絲와 도자기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명으로 유입되었다. 17세기 초까지 명은 남미와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최대 3분 1까지 빨아들이는 호황을 누렸다.

1543년 시암을 출발하여 중국으로 가던 배 1척이 일본의 다네가시마(種子島)에 漂着했고 배에 승선했던 포르투갈 상인은 조총(-鐵砲)을 일본에 전래했다. 조총은 戰國時代를 겪고 있던 일본의 세력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575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연합군이 長篠 전투에서 다케다 가즈요리(武田勝頼)에게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은 천주교의 동아시아 전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교사와 南蠻人들이 밀려오는 와중에 1549년 예수회 선교사 자비에르(1506~1552)가 鹿兒島에 상륙하고 천주교는 큐슈를 각지로 퍼져 나갔다. 일본에서는 이후 천주교도들을 ‘기리스땅(吉利支丹)’이라 불렀다. 명에서는 마테오 리치 등이 ‘泰西의 儒士’로 불리며 서학과 서양과학을 전파했다.

1582년 오다 노부나가 사후 후계자로 등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87년 일본을 통일했다. 그는 檢地와 刀狩令을 통해 집권 기반을 닦았다. 통일 이후 히데요시는 對馬島主 宗氏에게 조선 국왕의 入朝와 ‘征明嚮導’를 요구했다. 당시 島夷 운운하며 일본을 하사하던 조선이 히데요시의 요구를 무시했고 임진전쟁이 일어났다.

2. 國際戰, 강화협상, 조선의 고통

1591년 黃允吉, 金誠一, 許篈 등으로 구성된 通信使를 일본에 보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592년 4월 히데요시는 15만 이상의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초전은 일본군의 연전연승이었다. 鳥銃이라는 신무기와 전국시대를 거치며 다져진 실전 경험이 조선군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조선은 200년 가까운 昇平으로 전쟁을 몰랐고, 16세기 중반까지 자행된 戚臣政治의 폐해로 말미암아 국가적 역량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조선 내부에서 16세기 중반을 中衰期로 규정하여 更張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군의 빠른 북상 속에 宣祖는 의주까지 파천했다. 육전의 연패에도 조선이 그나마 유지되었던 것은 李舜臣이 이끄는 水軍의 연승과 재야 사족들의 義兵 활동 덕분이었다.

1592년 12월 李如松이 이끄는 약 5만의 명군이 조선에 참전했다. 히데요시가 ‘征明’, ‘假道入明’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명의 참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 수중에 떨어지면 遼東이 위험해지고 궁극에는 山海關과 北京마저 위험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참전이었다.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은 小西行長이 점거했던 평양을 탈환했다. 명군의 화포가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이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지만 고니시군을 추격하던 명군이 碧蹄館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하면서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벽제 패전을 계기로 명은 일본과의 講和를 추진했다.

1593년 1월부터 약 4년간 이어진 협상은 성공할 수 없었다. 明日의 조건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명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면 히데요시를 冊封하겠다고 했는데 비해 일본은 “명의 皇女를 天皇에게 下嫁시킬 것”, “조선의 4도를 할양할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貢市를 재개할 것” 명과 조선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명은 일본을 ‘冊封 體制’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일본은 자신들이 승전국이라고 생각했다. 협상은 시간만 끌었고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 민중들의 고통은 심화되었다. 일본군은 부산 일원에 장기 주둔하면서 포로 사냥과 물자 약탈에 광분했고, 명군 또한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는 “명군은 참빗, 일본군은 얼레빗”이라는 俗諺까지 유행했다.

명이 강화협상에 매달리면서 조선의 主權이 크게 침해되었다. 협상을 빨리 끝내려 했던 명군 지휘부는 조선의 민족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강화 방침에 따르라고 강요했다. 조선이 반발하자 명군 지휘부는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조선의 왕위 교체를 거론하고, 조선을 直轄統治하겠다고 위협했다.

1596년 明使 楊方亨이 오사카城에서 히데요시를 책봉했지만 히데요시는 1597년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丁酉戰爭). 1597년 7월, 元均 휘하의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고, 南原이 함락되자 조선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순신이 三道水軍統制使로 복귀하여 鳴梁海戰승리를 계기로 제해권을 장악하고, 같은 해 10월 조명연합군이 稷山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철수하여 7년에 걸친 전쟁은 끝났다. 이순신은, 일본군에게 매수되어 자신의 출전을 막으려했던 陳璘을 뿌리치고 철수하는 일본군을 요격하다가 露梁海戰에서 전사했다. 그것은 임진전쟁의 ‘복잡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3. 임진전쟁이 남긴 영향

7년에 걸친 임진전쟁은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남겼다. 戰場이 된 조선의 피해는 극심했다. 전투, 전염병, 일본군의 포로 사냥 등으로 인구가 격감했다. 포로들 가운데는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에게 전매되어 인도, 유럽 등지로 흘러들어가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전쟁 이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일본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로 여기게 되었다. 반면 明이 참전하여 원조했던 것을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再造之恩]’로 여겨 숭앙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慕華 관념이 심화되었다. 특히 ‘再造之恩’은 일종의 ‘부채의식’으로 작용하여 이후 明清交替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이 외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약하는 굴레가 되었다.

명은 임진전쟁에서 막대한 재정을 소모했다. 戰費로 은화 700만 냥 이상을 투입했다. 17세기 초 太倉에 들어오는 1년 稅入이 400만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비는 엄청난 규모였다. 명은 전비 조달을 위해 강남 등지에서 加派(-增稅)를 시행했고,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民怨을 야기했다. 1580년대 張居正이 시행했던 일련의 개혁 작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충실해졌던 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자 萬曆帝는 전쟁 이후 각지에 太監들을 보내 礦稅, 商稅 등을 징색했다. ‘礦稅之弊’ 때문에 민심은 이반했고 民變이 빈발했다. 이후 萬曆帝의 怠政, 宦官들의 발호 속에 天啓 연간 東林黨과 奄黨, 浙黨 등 政派 사이의 정쟁이 심각해졌다. 한편 명은 임진전쟁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전쟁 이후 일본의 德川幕府가 入貢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임진전쟁을 계기로 군사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스스로 ‘武威’를 과시했다’고 자부했다. 또 조선에서 유학자, 도공 등을 납치하고 서적과 물자 등을 약탈하여 학문과 기예를 습득하여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 히데요시 추종 세력을 물리친 뒤 征夷大將軍에 취임하여 江戸幕府를 열었다. 도쿠가와와는 자신이 조선 침략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워 쓰시마를 통해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조선으로부터 통신사를 초청하여 안팎으로 정치적 위상을 과시할 수 있었다. 조선은 ‘만세불공지수’ 일본과의 復交가 내키지 않았지만 엄혹한 안팎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과의 복교를 받아들였다.

二. 女眞의 崛起, 병자전쟁, 명칭교체, 그리고 동아시아

1. 建州女眞 굴기, 明의 以夷制夷 시도, 그리고 仁祖反正

16세기 말 중국 동북부에서 建州女眞이 ‘태풍의 눈’으로 대두했다. 본래 여진족은 1115년 完顏部の 아구다(阿骨打)가 金を 건국한 遼를 멸하고 宋을 공략하여 양자강 이남으로 밀어붙이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금의 굴기 이후 “여진족이 1만이 되면 천하가 그를 감당할 수 없다 [女眞一萬則天下不敢當]”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금은 1234년 元에 의해 망했지만, 여진족들은 이후 華北과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면서 유목과 수렵, 채취, 농경 등에 종사하며 명맥을 계속 유지했다.

당시 여진족은 建州, 海西, 野人 등 크게 세 개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명은 여진족 내부에서 아구다와 같은 覇者가 再臨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면서도,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몽골을 견제하려는 양면적인 정책을 썼다.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를 통해 군사적으로 지배하려 하는 한편, 여진족들의 생필품 교역을 통제하여 경제적으로도 그들의 목줄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그것은 명 황제 명의의 勅書(-교역 허가증)를 소지한 여진족 유력자들에게만 명 상인들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여진족을 통제하려 했던 명의 노력은 만력 초반까지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1583년 이후 건주여진의 누르하치(努爾哈齊)가 급속히 성장하면서부터 명의 통제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한 때 조선의 회령 부근에 거주했고 명에 의해 建州左衛 都督에 임명되었던 통명거티무르의 6대 손이었다. 1583년 이성량 휘하에서 반란 세력을 공격하는데 동원되었던 누르하치의 父祖가 명군에게 살해되었던 이후 누르하치는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성량은 부조 살해의 보상 차원에서 누르하치에게 칙서 30통을 지급했는데 누르하치는 점차 여진족의 특산물인 인삼, 진주, 모피 등의 유통로를 장악하고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당시 명은 몽골과 여진을 막기 위해 요동에 다량의 은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요동은 은을 둘러싼 소비와 교역 등을 통해 경제적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누르하치는 이 같은 환경에서 경제적 실력을 키우고 군사적 능력까지 발휘하여 1588년 건주여진을 통일했다. 명은 海西女眞을 끌어들이어 그를 견제하려

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임진전쟁은 누르하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회’가 되었다. 누르하치는 1592년과 1598년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더니 1599년에는 해서의 哈達部를 멸망시켰다. 1615년 八旗制를 완성하고, 1616년 국호를 大金으로 칭했다. 후금은 1618년에는 이른바 七大恨을 내세워 명에 선전포고하고 교역의 거점인 撫順을 점령했다.

충격을 받은 명은 원정군을 준비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서도 임진전쟁 당시 자신들이 베푼 ‘재조지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원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以夷制夷 전략이었다. 조선의 광해군은 명과 후금의 군사적 대결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명의 요구를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명의 압력과 조선 내부의 채근에 밀려 1618년 1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조명연합군은 1619년 ‘深河 전투’에서 후금군에게 참패했다.

후금은 이후 명에 연전연승하여 1621년 遼東을 장악했다. 광대한 농경 지대를 획득하게 된 후금의 기반은 공고해졌다. 후금이 요동을 차지하자 육로를 통한 조선과 명 사이의 연결은 단절되었다. 조선의 명에 대한 使行路이자 朝貢路는 鐵山-椴島-登萊(山東)을 잇는 海路로 변경되었다. ‘심하 전투’ 패전 이후에도 명은 조선에서 다시 원병을 징발하여 후금을 공략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명의 재징병 요구를 거부하고, 당시 조선의 가도에 머물며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던 명 장수 毛文龍과도 거리를 두면서 후금으로부터 원한을 사지 않으려고 시도했다. 이 같은 와중에 1623년 조선에서는 仁祖反正이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었다. 반정을 주도했던 西人들은 명의 軍援 요청을 거부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려 했던 광해군의 행위를 ‘재조지은을 배신한 패륜’으로 몰아붙이며 親明 행보를 꺾었다.

인조반정의 발생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과장을 몰고 왔다. 명에서는 東林黨系 신료들을 중심으로 인조반정을 ‘篡奪’로 여겨 성토했다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일부 신료들은 명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광해군을 復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명은 후금을 견제하는데 조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에 인조반정을 승인하고 인조를 책봉했다. ‘명분’이 아닌 ‘현실’을 선택한 것이다. ‘반정’과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 승인이 절실했던 인조정권은 親明의 기조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당시 椴島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을 接濟하며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조선과

모문룡의 밀착, 나아가 친명적인 행보는 궁극적으로 후금과의 관계에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2. 후금의 승승장구와 丁卯丙子戰爭

1625년 누르하치는 수도를 瀋陽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요동 시대를 열었다. 그는 여세를 몰아 1626년 山海關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寧遠城을 공격했다. 하지만 寧遠巡撫 袁崇煥은 마카오를 통해 도입한 紅夷砲를 이용하여 후금군의 공격을 차단했고, 누르하치는 패전의 후유증을 안고 사망하고 말았다.

누르하치 사후 그의 八子 흥타이지(皇太極)가 칸으로 추대되었다. 흥타이지는 원숭환과의 和議를 통해 내부 상황을 추스르는 한편, 1627년 조선을 침략했다 [丁卯戰爭]. 그가 조선을 침략했던 목적은 복합적이었다. 椴島를 거점으로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던 毛文龍을 제거하려는 것, 명과의 교역이 끊겨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선으로부터 交易 약속을 받아내는 것, 자신의 칸 즉위에 반발했던 사촌형 아민阿敏을 조선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삼아 충성심을 시험하고 견제하려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은 승승장구했다. 그들의 鐵騎가 남하하자 仁祖는 강화도로 피신했다. 당시 조선은 내정을 추스르기에도 겨를이 없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인조반정 성공 직후인 1624년 李适의 반란 때문에 이미 서울을 상실하고, 집권하자마자 몰락할 뻔 한 위기를 맞은 바 있던 인조정권은 후금과 적극적으로 대결을 시도할 만한 여유도 의지도 없는 형편이었다. 후금 또한 조선 원정이 장기화 될 경우, 배후에 있는 원숭환의 위협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에 철군을 서둘렀다. 조선과 후금은 화친을 맹세하고 형제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면포 1만 5천 필 등을 歲幣로 제공하며 開市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묘전쟁을 통해 조선을 묶어 두었다고 판단했던 후금은 이후 명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29년에는 산해관을 우회하여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의 皇城을 기습했다. 후금은 이 원정에서 북경 주변의 도시들을 겁락하여 막대한 수량의 人畜을 획득했고 反間計를 통해 영원순무 원숭환까지 제거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어 1631년에는 명 출신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紅夷砲까지 자체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정묘전쟁 이후 후금의 군사적 역량이 날로 커지고 명이 수세에 몰리자 조선과

후금 관계도 동요했다.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국 모두와 잘 지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명과 후금의 관계가 빠격거리면 ‘끼여 있는’ 약소국 조선으로서는 두 강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로 내몰리게 되어 있었다. 우선 椴島의 毛文龍이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시한폭탄’이었다. 가도의 한인들은 淸北 일대에 屯田을 설치하고 압록강 연안에 출몰하여 후금을 자극했다. 조선을 명과 관계를 고려하여 가도를 계속 지원했다. 후금은 조선이 가도를 계속 지원하는 것, ‘개시 약속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등을 거론하며 조선을 협박했다. 후금을 ‘오랑캐’로 여겨 그들과의 화친을 ‘내키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조선과 세력이 커질수록 조선으로부터 진짜 ‘형’으로 대접 받기를 원하던 후금의 同床異夢 속에서 양국 관계는 파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1633년은 조선, 명, 후금의 관계사의 분수령이었다. 이 해 명의 叛將 孔有德 등이 수군과 합선을 이끌고 귀순하면서 후금의 군사적 역량은 강화되었다. 수군을 갖게 된 후금은 산해관을 우회하여 명의 本土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사시 江華島로 파천하려 했던 조선의 전략 또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1633년 이후 후금은 조선을 ‘掌中之物’로 여겨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후금은 1634년 차하르 몽골을 공략하여 내몽골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립단 칸(林丹汗)이 갖고 있던 大元帝國의 玉璽를 얻었다. 홍타이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天命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인식했고 1636년 滿蒙漢 신료들의 추대 속에 帝位에 올라 국호를 大清, 연호를 崇德으로 고쳤다. 후금 또한 皇帝國을 표방하게 된 것이다.

청이 1636년 英俄爾岱 등을 보내 稱帝 사실을 통보하자 조선은 반발했다. 조선의 斥和派들은 후금과 맺은 형제관계를 파기하고 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와중에 主和派들의 현실론은 끼여들 여지가 없었다. 인조는 결국 척화파들의 주장대로 정묘화약의 파기를 결정했다. 조선의 본심을 파악한 청은 1636년 12월 조선을 다시 침략했다.(병자전쟁). 조선이 끝까지 자신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 부담스러웠던 데다 명과의 결전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後顧의 위험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청군은 1636년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뒤 불과 5일 만에 서울까지 남하했다. 청군 鐵騎의 돌격에 밀려 강화도 들어갈 시간적 여유를 상실했던 인조와 조선 조정은

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산성에 고립된 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조선 조정은 결국 三田渡로 내려와 청에 굴복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청은 昭顯世子 등 인질들과 조선에서 사로잡은 수십만의 포로들을 심양으로 연행하고, 엄중한 감시망을 통해 조선에서 反淸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차단했다. 조선과 명의 관계는 단절되고 椴島 또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3. 병자전쟁의 여파, 明清交替, 그리고 日本

조선이 청에 항복한 것은 명에게도 ‘재앙’이었다. 청은 조선을 굴복시킨 직후 조선에서 함선과 화기수들을 징발하여 椴島를 공략하여 함락시켰다. 이후에도 조선에서 수군과 병력을 동원하여 명 본토에 대한 공격에 활용했다. 조선군은 1642년 청군의 일원이 되어 錦州, 松山, 塔山, 杏山 공략전에 동참했다. 조선군의 병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선군 火器手들의 활약은 뛰어났다. 명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었던 청은 1644년 산해관을 지키던 吳三桂의 투항을 받아들여 李自成이 이끌던 농민 반란군을 물리치고 북경에 진입함으로써 명청교체를 실현했다.

병자전쟁에서의 굴복, 명의 멸망과 청의 중원 장악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破天荒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華夷論에 입각하여 세계를 보던 조선 지식인들 가운데는 충격과 자괴감 속에 崇禎處士, 大明居士로 자처하며 벼슬을 거부하고 은거하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어 1650년대에는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했던 孝宗을 중심으로 청에 대한 復讐雪恥를 내세워 北伐運動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청의 엄중한 감시와 잦은 자연재해 때문에 북벌을 실천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다. 이런 와중에 1673년 吳三桂 등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三藩의 亂이 일어나자 조선에서도 尹鑄 등이 북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곧이어 오삼계와 타이완 鄭氏 세력의 反淸 운동이 진압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반청 자세 또한 관념화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서는 이후 對明義理論이 강조되어 萬東廟와 大報壇이 세워졌다. 나아가 “조선만이 유일한 中華”라고 자부하는 朝鮮中華主義가 나타났다.

16세기 중반 삼포왜란 등을 계기로 악화된 조일관계는 결국 임진전쟁의 파국으로 이어졌다. 임진전쟁 이후 조선의 대일인식은 고정되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萬世不共之讐]’로 여겼고 일각에서는 대마도를 정벌함으로써 원한을 갚아야 한다는 복수론까지 대두되었다.

임진전쟁 이후 대륙의 정세가 격동하고 조선과 후금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일본과 ‘내키지 않는 復交’를 단행했던 배경에도 대륙 정세의 격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임진전쟁 이후 서북 지역에서 건주여진의 동향이 불온해지면서 조선의 입장은 곤란해졌다. 임진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누르하치의 위협에 대비해야만 했던 조선의 처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절실했던 것이다. 실제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는 한편, 己酉約條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일본으로부터 조총, 장검 등 무기류의 수입을 타진했다.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대륙 정세가 급박해질수록 일본의 ‘존재감’은 더 커져갔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막부와 對馬島는 조선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대륙 정세 파악 등을 내세워 조선에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조선이 후금의 위협 때문에, 또 명과 후금 사이에서 곤경에 처하자 일본은 임진전쟁 이후 굳어진 ‘만세불공의 원수’에서 벗어나 ‘조선의 우방’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629년 平遼를 표방했던 倭使 겐보(玄方) 일행이 임진전쟁 이후 처음으로 上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조선은 병자전쟁에서 청에게 항복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일본을 대신하여 청을 조선의 ‘만세불공의 원수’로 인식했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과 교류하여 그들의 도움을 얻어 청을 견제해야 한다는 ‘以倭制清論’을 제기했다. 幕府와 對馬島는 조선의 곤경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해 각종 물자를 求請하고, 대마도에 대한 접대 관례를 바꾸고, 궁극에는 倭館의 이전까지 실현시키는 등 커다란 이익을 챙겼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내세워, 청이 병자전쟁 이후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軍備 강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한편 청은 조선에 대해 일본과의 교류를 계속 하고 일본 사신을 瀋陽으로 인도해 오라고 요구했다. 조선은 당혹해하면서 청의 요구를 회피하려고 했다. 병자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대일 정책과 인식은 변화의 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은 이후 19세기까지 倭館을 유지하고 모두 12차례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의 朝日關係는 일견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였다. 조선 국왕과 막부 將軍이 대등하게 국서를 주고받는 와중에 장군을 ‘일본 국왕’으로 칭하는 문제를 놓고 통신사가 갈 때마다 양국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天皇의 존재를 때문이었다. 또 1천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상주하고 있던 왜관은 ‘무역의 거점’이기도 했지만 일종의 ‘스파이 소굴’이기도 했다. 왜관과 상주 일본인들을 통해 조선 사정이 일상적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청에게 위협을 받게 되자 명 또한 일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명이 멸망한 직후인 1645년 무렵부터 南明의 隆武政權과 鄭成功 등 反淸勢力들은 德川幕府에 使者를 보내 軍援을 요청했다. 이것을 이른바 日本乞師라고 하거니와 막부는 응하지 않았다. 요컨대 임진전쟁, 병자전쟁, 명청교체 등이 이어지는 17세기 초반의 격동 속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근대의 질서변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⁵⁶⁾

신주백(연세대)

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비교(현행/개정)
2. 서구 열강과 개항
3.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4. 세계정세와 동아시아, 그리고 러일전쟁
5. 워싱턴회의와 동아시아
6. 만주사변, 중일전쟁과 동아시아
7.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전후처리

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비교(현행/개정)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근대사를 한중일 3국의 개항(개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동아시아의 해방을 근대사의 종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현행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주제별 접근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보입니다. 아래 인용을 통해 우선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대단원5

(5)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을 전후하여 시작된 각국의 국민 국가 건설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식민 지배가 민중에게 준 고통을 이해하고, 이에 저항하여 각 지역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도 이루어졌음을 파악한다.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① 각국에서 개항이 가지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 ②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이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본다.
- ③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각국의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을

56) 강의록은 강연을 위한 안내문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PPT로 제시되는 사진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연자도 교과서 집필자이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에는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측 책임자로 활동하며 만든 한중일의 두 번째 공동역사교재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휴머니스트, 2012)의 서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비교한다.

- ④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국제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 ⑤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 문화, 사상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비교한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대단원5

(5)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개항 이후 각국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과 국제 관계의 변동 양상을 파악한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응하여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국제적 연대도 모색되었음을 이해한다. 아울러 서구 문물의 수용에 따른 각국 사회의 변화상을 탐구한다.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① 개항 이후 각국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과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동을 파악한다.
- ②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그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보고 각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을 비교한다.
- ③ 근국주의의 대두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적 연대와 평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 ④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일어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위의 두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정리하면, 우선 크게 보면 현행 교육과정의 ④가 ③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에 관한 중단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둘째,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의 ②~④가 개정 교육과정의 ②와 ③으로 통합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침략과 저항으로 중단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변경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것일까요? ‘근국주의의 대두’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31년 만주사변이 ②와 ③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둘째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봅시다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②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③의 ‘일본의 침략 전쟁’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라면 ②와 ③은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강연 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행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교학사와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대단원5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요?⁵⁷⁾

- ①에 관한 구성에서는 두 교과서 모두 1910년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57) 어느 교과서가 우위인가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1911년 신해혁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을 포함한 역사연구자들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한국병합과 신해혁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②, ③, ④에 관한 구성에서 두 교과서의 편차가 명확합니다.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교육과정대래 ②에서 침략, ③에서 저항, ④에서 반전평화연대를 주제로 각각 중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과 저항에 관해서도 개항 이후부터 1945년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학사의 교과서는 1910년을 경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910년까지의 역사는 ①의 교육과정에 따라 중단원1에서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다. 1910년과 1911년 이후의 역사는 현행 교육과정대로 침략, 저항을 각각의 중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④의 반전평화운동에 관해서는 ③의 저항부분에서 ‘열린자료 열린생각’, ‘탐구활동’(1쪽)으로 소화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⑤에 관한 중단원 구성에서는 내용적인 편차는 있지만, 주제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③, ④에 관한 두 교과서의 중단원 구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강연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본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2. 서구 열강과 개항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시작을 3국의 개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이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공간 범주에 한중일과 베트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 교육을 할 때 흔히들 말하지만, 조선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면서 개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맞다고들 말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개항을 보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동아시아의 내부를 보면, 그것은 선택적 개항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개항이라고 말하기보다 ‘개국’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전면적 개방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개항은 몇 개의 항구만을 개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말하지만, 중체서용, 화혼양재, 동도서기라는 근대화 전략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또한 선택적 개항은

조계(거류지)라 독특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아시아 근대사의 초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조계는 중국이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처음 생겼습니다. 개항이란 전제 아래 청과 영국이 관리와 거점 확보, 내지는 상호 멸시하는 인식에 따라 서로 타협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선택적 개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상업자본주의 때부터 열강이 특정 지역을 차지할 때 선택적 개항이란 방식으로 접근한 경우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셋째, 동북아의 3국이 개항을 하기 전에 동남아 국가들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태국은 여기서 예외였고, 필리핀은 스페인 대신에 미국이 지배하게 되었으니 미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을 차지한 열강은 무력 동원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점령지를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통치 방식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이 조금씩 달랐지만, 직접 통치였습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일어난 일로, 동북아 3국과 현격히 다른 열강의 침략방식이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앞서 두 번째로 언급한 내용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동북아 3국의 개항에 대해 더 재미있는 맥락을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남아든 동북아든 동아시아에 진출한 열강은 자기들끼리의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한 적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더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선생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1894년 청일전쟁은 한중일 사이에 힘의 역학 관계를 재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곳에 문자가 생긴 이래 3국의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전쟁이었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그리고 연구자를 포함한 이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청일전쟁에 관한 오류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특히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 8월 1일 이후 농민군 잔존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 역사교육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본군의 잔인한 학살이란

맥락 또는 침략자의 가해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잔존 세력의 움직임은 ‘청일전쟁의 후방인 조선의 안정’이란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본군의 특별부대 편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본군의 행동을 단순히 일본군의 잔인함 또는 특징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해체’시켰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시기를 세분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한 시기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전환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할까 합니다.

제가 한국측 책임자로도 참가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2012)에서도 아래와 같이 쓰면서 ‘제2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제2장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해체

....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해체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자체를 국제 문제의 초점으로 부상시켰다. 이는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에 길을 터준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러일 대립을 촉발시키고, 동아시아의 세력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후 일본은 서구 열강과 경쟁 경합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침략과 팽창의 발길을 옮겼다. (96쪽)

정말,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해체’시킨 것일까요? 1884년에 끝난 베트남에서의 청프전쟁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내부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청일전쟁이 끝난 후 청이 몰러나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했다고 기술합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본은 청을 대신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국간섭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경쟁 대립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국가로 부상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중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국간섭을 언급하였으니,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왜 독일 편이 되었을까요? 그때 영국과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4. 세계정세와 동아시아, 그리고 러일전쟁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세계사와 지역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사 내부에서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아야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의화단운동이라고 봅니다. 1898년 의화단이 봉기한 이후 청정부의 방관 아래 승승장구했지만, 이에 대해 8개국 연합군이 반격한 결과 1900년 8월경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의화단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휴머니스트, 20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901년 9월 청 정부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8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에스파냐로부터 신축조약(베이징의정서)을 강요당했다. 중국은 열강에 백은 4억 5,000만 냥(이자까지 9억 8,000만 냥)을 배상하고, 베이징에 열강이 군대를 파견해 보호하는 대사관 구역을 설치했다. 이리하여 청 정부는 열강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해 ‘양인(洋人)의 조정’으로 전락했다. 신축조약의 체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109쪽)

연합국의 의화단 세력에 대한 진압은 열강의 침략이고 그로 인해 중국의 지위가 하락했다는 지적 곧, 침략과 저항 접근은 흔히 볼 수 있는 분석방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의 역사교육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질서라는 맥락에서 신축조약(베이징의정서)을 보면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내용과 달리, 그리고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축조약을 전후한 시기 열강간의 관계를 제국공조지배체제, 열강간의 협조적 관계라고 말합니다만, 어느 쪽의 용어를 사용하든 열강끼리 짝짝 꿩하여 중국을 협력으로 분할 지배하였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앞서 언급한 삼국간섭, 내지는 러일간의 경쟁과 대립과 맞물려 해석하면 ‘중심’이란 말은 부정될 수밖에 없고, 이후 러일전쟁 및 그 이후의 동아시아사에 대해 색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사의 전개와 맞물려 파악하면 그 역사적 맥락은 1921년 워싱턴회의까지 끌고 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 워싱턴회의와 동아시아

주지하듯이, 1921년에 열린 워싱턴회의는 ‘동아시아판 파리강화회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는 회의를 주도한 미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였고, 중국측 대표도 회의 때 비준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관련 문제는 미완결인 상태로 회의가 끝난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회의가 워싱턴회의인데, 이때는 미국 등이 소련의 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소련은 여기에 대응하여 극동민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민족운동 세력은 두 회의에 모두 참가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상이한 차이가 이후 민족운동의 전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한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워싱턴회의, 극동민족대회와 한국사에 관한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사의 맥락에서 워싱턴회의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회의에서 중국문제와 태평양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태평양일대의 안정과 섬의 통치문제를 놓고 열강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중국 문제에 대해 열강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전하는 한편 열강 사이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였습니다. 일본의 만주와 내몽골에서의 권익도 인정하였습니다. 1915년의 ‘21개조요구’가 제한적으로 관철된 것이며, 일본이 의도한 만큼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합의가 워싱턴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일동맹이 미국의 권유로 파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기본 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 국가였던 영국이 가장 의지한 파트너가 일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일동맹의 폐기가 이후 국제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도 미국이 요구한 결과라는 점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영일동맹의 폐기를 전제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국제외교를 벌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아시아에서 협조적 국제관계의 완결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워싱턴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 동맹을 폐기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워싱턴회의 때 짜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흔히들 워싱턴체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사 교육에서 베르사이유체제라는 말과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용어가 워싱턴체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싱턴체제라는 상대적 안정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흔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의 민중, 그리고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진행된 북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흔들리는 체제에 무력으로 대응한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를 산동출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은 역사용어가 아닙니다. ‘산동침략’이 맞습니다. 산동침략에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반대 측에 있는 조선인 민족운동 세력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 중후반 조선과 중국(본토/만주)에서 전개된 민족통일(협동)전선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맥락에서 이것의 연관성을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6. 만주사변, 중일전쟁과 동아시아

조금씩 흔들리던 워싱턴체제를 과탄시킨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만주침략과 만주국의 수립 자체는 워싱턴체제를 해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환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주사변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한 시기를 구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체제의 해체와 만주사변을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1933년 3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시점을 워싱턴체제의 와해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일본군의 만주철수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했지만, 이후 미국과 영국은 만주에서 관동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이어 영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항하여 독일, 이탈리아와 1937년 11월 3국 방공협정, 1940년 9월 3국 방공동맹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의 태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였을까요?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휴머니스트, 2012)의 ‘제5장’에서는 만주사변부터 1945년까지 15년전쟁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전개양상이 동아시아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일전쟁은 동아시아사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구성하려면 중일전쟁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일본이 1938년 11월 ‘제2차 고노에 성명’이라고도 명명하고 있듯이 ‘동아 신질서’를 표방했다는 점입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자기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근대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동아, 동양, 동아시아의 질서는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동아 신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이듬해부터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영국 이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의 동아시아사적 의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중일전쟁이 총력전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식민지 조선 및 대만에서도 총동원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중국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2차 국공합작을 했을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 국공합작은 중국공산당의 군대와 중국국민당이 군대가 연합작전을 벌이며 일본군의 침략에 대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개석의 중국국민당군이 중국 홍군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7.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전후처리

그런데 1941년 일본이 말레이시아와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5년전쟁의 정점에 도달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일전쟁은 중일전쟁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의 일부,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후방이자 전방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선생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는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전쟁의 뒤처리, 그러니까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잘못 강조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려 합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연합국은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사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카이로선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의 종결방식에 관한 연합국의 합의입니다. 즉,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연합국은 일치단결하여 전쟁을 계속한다는 합의입니다. 그리고 1914년 이후 일본이 차지한 모든

영토는 되돌려준다는 합의한 점입니다.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휴머니스트, 2012)의 ‘제5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못하였지만, 한국사 교육에서조차 두 가지 합의 사항을 한국의 독립 약속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강조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합의 사항을 일본의 근대사,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동남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확산과정과 맞물려 해석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칠까

- 5·6 단원을 중심으로 -

박중현(양재고)

1. 들어가며

2007년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실시되게 되었다.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 개발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부딪혔다. 이 과목은 2006년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점증하는 역사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하였지만 개발자들은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⁵⁸⁾ 이를 위해 정치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상대의 문화와 역사를 배움으로써 같음과 다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을 넘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의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특히 2012학년도 채택에서 세계사보다 많은 채택 부수를 기록함으로써 기본 취지와 과목에 대한 인지도는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⁹⁾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연착륙을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의 발간과 교원 연수가 이루어졌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는 2009년 참실 과제로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검토와 수업 실천 그리고 토론대회가 열렸다. 일부 교사는 소모임을 만들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한 대학에서는 대학원 수업 과정에서 교육과정·교과서 검토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였다.⁶⁰⁾

그러나 2012년 교과목의 실시와 함께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동아시아사’가 갖는 생경함이 우선이겠지만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수능을 대비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질 것인지 등이다. 2012년 몇 차례 연합평가가

58)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호, 2008에서는 ‘동아시아사’가 등장하는 배경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59) 교육과정 등장 즈음에 교과서 서술의 토대를 언급한 학위논문도 제출되었다. 황지숙,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60) 『역사와 역사교육』24호, 웅진사학회, 2012. 9.

시행되었지만 가장 난관으로 대두한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두 권의 교과서 내용 구성이 다른 것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것은 5·6 단원에서든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앞서 동아시아사가 역사 교육강화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역사 갈등의 상당 부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에서 생긴 역사 인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6 단원은 다른 단원이 4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5개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¹⁾ 특히 5단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저항한 민족 운동과 국제 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6단원은 20세기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를 그리려는 화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큰 틀을 5·6단원의 수업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5·6 단원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수업에 적합한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과정과 동아시아사

1)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이 과목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과거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다음은 이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점은 역사적 사실을 통한 상대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평화지향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동아시아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 나.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61)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감축 방침에 따라 5,6단원도 4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진다.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동아시아 지역사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주제별 접근을 통해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역사의 다양성과 타자 이해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한국사는 자주 접하고 호흡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는 많은 기간 정해진 틀 속에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사’라는 단어가 주는 생소함이 우선 극복의 과제이다. ‘동아시아’란 어떤 영역과 역사 범위를 갖고 있으며, 그 흐름과 시기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체는 어떤 것인지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2) 2009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의 개정

현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1년 다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대단원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① 현행 6개의 대단원 구성 및 대단원의 시기적 구분 그대로 유지하였다.
- ② 대단원 명칭은 현행의 영역별 내용 요소를 포괄하여 그 내용을 반영, 동아시아사의 전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시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영역	해당시기	영역	해당시기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선사~기원 전후	국가의 형성	선사~기원 전후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기원전후~10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기원전후~10세기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10~16세기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10~16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6~19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16~19세기
국민 국가의 모색	19세기중반~1945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19세기중반~1945
오늘날의 동아시아	1945년 이후	오늘날의 동아시아	1945년 이후

또한 내용별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① ‘성취기준에 따른 주제별 기술’이라는 현행 교육과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해당 시기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에 해당 시기의 정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②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들이 가급적 한 대단원 안에서 분야별로 (정치, 대외관계, 사회·경제, 사상·학술, 문화교류 등) 일정한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하였다.
- ③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요소나 용어 가운데 개념이 모호하거나 학계의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국가별로 용례가 다른 것 (예를 들어, 목축 사회, 소농 경영, 근대 국민국가 등)은 삭제하거나 교체하였다.
- ④ 한·중·일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 간에 전개된 갈등과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객관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 ⑤ 현행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26개로, 각 성취기준 당 수업 시수를 3시간으로 잡았을 때 78차시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과목 당 연간 수업 시수인 85차시 안에 충분히 교수가 가능한 분량임. 그러나 금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인 수업 부담 경감의 대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34개의 성취기준을 감축, 조정하고, 성취기준은 현행 26개에서 23개로 조정되었다.

3) 5·6단원 개정의 특징

<내용 체계(영역) 비교표>

현 행		개 정	
영역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요소
국민 국가의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과 근대 국민 국가 수립 ◦ 제국주의 침략 ◦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 평화를 지향한 노력 ◦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화 운동과 국제관계의 변동 ◦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운동 ◦ 침략 전쟁의 확대와 국제 연대 ◦ 서구 문물의 수용
오늘날의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처리 문제 ◦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 각국의 경제 성장 ◦ 정치 발전 ◦ 갈등과 화해 	오늘날의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 경제 성장과 교역의 활성화 ◦ 정치·사회의 발전 ◦ 갈등과 화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5단원은 개항 이후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첫째 단원으로 서술하고, 다음은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주로 다루었다. 나머지 3, 4 중단원은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운동과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노력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구 문물이 수용되어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은 5개의 중단원이 4개로 줄면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용어의 사용 문제에 있어 논란이 되었던 ‘근대 국민국가’라는 용어가 사라진 대신 근대화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목과 함께 1~3 중단원은 시기를 나누어 침략과 이에 저항한 민족운동의 구도 아래 서술하도록 하였다. ‘근대화 운동과 국제 관계 변동’에서는 개항부터 청일전쟁까지를 다루도록 하였다.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은 1920년대까지를, ‘침략전쟁의 확대와 국제연대’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를 다루면서 이 시기 왕성하였던 국제연대를 함께 다룬다. 서구 문물의 수용은 변화가 없다.

6단원 역시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전후처리 문제’와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전쟁’이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 냉전’으로 함께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

3. 5.6 단원 수업에서 고려할 점

1) 5단원 국민국가의 모색

① 각국에서 개항이 가지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 군사적 외압에 의한 개항
- 위기로부터 탈출을 위해 근대 국민 국가 형성을 목표로 개혁 추진
- 각국의 국민 국가 수립 양상을 비교하여 속도와 형태 및 성격의 차이 이해
- 근대 국가 수립 과정의 차이와 원인 탐구
-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서 개항·개혁·침략의 상호 관련을 이해

②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이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본다.

- 서구,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의 양상을 파악 - (대만과 조선 침략, 만주사변,

-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각 부분의 침탈과 민중의 피해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 가해와 피해의 양상을 사례를 들어 파악

③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각국의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을 비교한다.

-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가 흥기하던 역사이기도 하다. 침략과 지배의 대상으로
- 각국의 민족주의 성장·발전하는 양상을 사상을 통해 비교
- 각국 별 특징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후 달라지는 민족운동 양상

④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국제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 침략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연대
- 침략국인 식민지와 반(半)식민지와 일본에서의 반전운동과 저항운동
-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단체와 인물

⑤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 문화, 사상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비교한다.

-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변화(1800년대~1910년대)
- 사회진화론, 신문과 학교, 시간과 교통, 도시, 여성, 청년 등을 주제

2) 6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①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와 각국의 국교 회복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질서
-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
- 국교 회복을 냉전 체제와 관련지어 설명

② 중국의 국공 내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그 영향을 알아본다.

- 냉전 체제 속의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
- 중국의 국공 내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을 냉전 속에서 이해

③ 각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비교하고 지역 내 교역 활성화에 대해 살펴본다.

- 체제를 넘어 경제적 이론 경제적 성장을 특징과 시기별 이해
-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 양상의 유사성

- 한·일 양국과 중국·베트남 경제 발전 양상의 차이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동아시아 경제권의 현재와 미래

④ 각국의 정치, 사회의 발전 모습과 특징을 파악한다.

-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체제
- 1955년 체제와 변화,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정치
- 인민민주독재·문화혁명·개혁개방 등을 겪은 중국의 정치
- 통일을 이루고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베트남
- 인구, 농촌과 도시, 노동, 여성 등 주제별로 상호 비교

⑤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갈등을 살펴보고, 화해를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역사 왜곡 등의 갈등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동북공정 등 사례
- 갈등의 해결을 통해 평화를 모색하는 국제 연대 등의 활동

4. 평가

1) 학교 내신에서의 동아시아사

학교에서 수업은 현실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흥미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차적인 것이기는 해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수업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지금까지 역사 수업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암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연유로 중학교의 경우 일반사회, 지리, 윤리 등의 전공자들도 사실을 가르치고 외우고,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역사 수업을 많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의 암기에 치우치는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자칫 잃어버리기 쉽다.

동아시아사는 다른 역사 과목과 달리 주제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단원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각국별로 어떤 차이와 같음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동아시아 상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평가도 같은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념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실의 암기를 지양하는 대신 개념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는 당장 2014년도 대학입시에 출제되게 된다. 지금부터 기산하면 14개월 후에 최초의 ‘동아시아사’ 수능 문제가 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수능형 문제는 올 5월 평가원에서 학교에 배포한 문제가 있었고, 정식으로 시험이 치러진 것은 6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된 전국연합평가가 유일하다. 기타 사설 모의고사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 몇 차례 있을 뿐이다.

당장 내년에 치를 문제가 극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현장의 교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평가원과 수능 문제 출제의 기반을 제공하는 EBS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수능 문제는 고교 교육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평가의 문제는 평가 그 자체를 넘어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년도 EBS에서 출제한 문제와 방송들을 보면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온다. 학교 수업을 하는 교사이든, 연합평가나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자이든 과목의 개설 목적을 정확히 숙지한 연후에 이에 임해야 한다.

주제사로 되어 있고, 동아시아사를 담보로 하는 이 과목에서 기존의 한국사나 세계사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경우 과목 개설 목적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10개 과목의 수능 사탐 과목 중에 이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할 방향성 또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시험 출제의 경향과 범주에 대하여 역사 교육계 안에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세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아시아 각 나라의 (가) 들 일부는 '동방' 이라는 잡지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자유 연합의 조직 원리 아래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 중국의 대표적인 (가) 인 바 진(巴金)은 그의 이름을 바쿠닌(巴古寧)과 크로포트킨[克魯泡特金]의 중국어 이름에서 한 글자씩 빌려왔다고 한다. 그는 한국·일본인들과 반파시즘 연합 전선 활동을 펼치고 스페인 내전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국가라는 인위적 제도의 장벽을 넘어 온 인류의 의사소통과 보편적 이상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였다.

- ① 신간회 결성의 의미를 찾아본다.
- ② 신해혁명의 이념에 대해 조사한다.
- ③ 신채호의 독립 운동 노선을 알아본다.
- ④ 신문화 운동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⑤ 윤봉길과 이봉창의 의거에 대해 조사한다.

위의 문제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국제연대를 묻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한국의 운동과 관련짓는 문제이다. 무정부주의가 반제국주의 운동에 앞장섰고, 국제적 연대를 가졌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풀 수가 없다. 신채호가 아나키스트 운동에 관련되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쉽지는 않다.

18.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제1조 양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따라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 ① (가)로 한·일 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 ② (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직후 체결되었다.
- ③ (나)는 동아시아 냉전 완화의 산물이었다.
- ④ (나)로 한국과 타이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 ⑤ (가)와 (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개개의 사실을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다. 다만 양국 간의 관계,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수업이 전개되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면 좋겠다.

5. 글을 나가며

‘동아시아사’는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과목치고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 특히 고교 탐구과목은 대학입학이라는 절실한 현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과목이 된다면 그 생명은 더욱 오렐 것이고, 21세기 초두에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차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만들어진 자료들도 수정·보완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새로운 교과서가 출현하기 전까지 보완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정한 제한된 범주의 설정, 교육과정을 중심의 평가 등 일반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사’에서 목적하는 화해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적 이해를 통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한중일 교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 한중일 교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2012.
-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 전국역사교사모임, 『마주보는 한일사-전근대편』, 사계절, 2006.
- 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교류의 역사』, 해안, 2007.
- 박중현,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두리미디어, 2012.
- 유용태 외,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0.
- 정연, 「고등학교<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2008.
-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교류와 연대』, (주)창비, 2010.
-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2000.
- 요시노 마코토 지음,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2005.
-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동아시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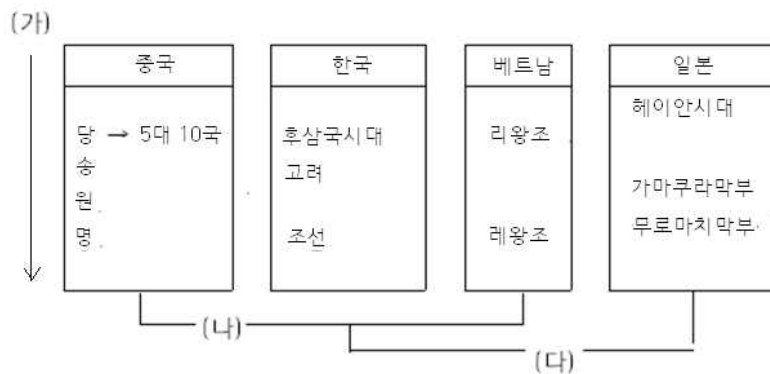
VI단원,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

한경아(한영고)

1. VI 단원 학습 지도 방법

동아시아사의 단원 구성은 주제별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 지도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다. 교사가 어떻게 교과 내용을 재조직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 방향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단원별로 교과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의 수업방식처럼 중단원별로 각 국가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은 동아시아사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단원, 혹은 소단원별로 주제별 학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만약 주제별 학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원의 경우에는 통사별 학습법을 도입하여 절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수업 시수 부족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교과서의 주제별 서술 방식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각 국가에 해당하는 단락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수업 시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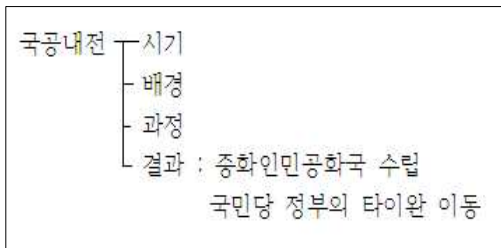
그런데 VI 단원은 이런 수업 방식이 필요없는 단원이다. 예를 들어 III.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단원의 수업을 위해서는 <도표1>의 (가)의 통사적 수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별 정치적 변화 과정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 후, (나)와 (다) 주제⁶²⁾에 관한 수업을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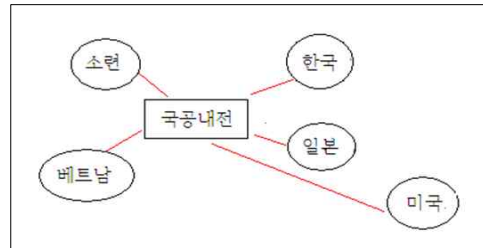
<도표 11>

62) 문신 지배층의 공통적인 성립 배경, 지배층의 공통 요소, 무인 집권층의 성립 배경, 중국·한국의 무인과 일본 무인 지배층의 차이점 등

그러나 VI 단원은 관계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표 2>보다는 <도표 3>과 같은 접근법을 선택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국공내전에 관한 수업을 할 때, 기존의 전쟁을 정리할 때 많이 활용되었던 <도표 2>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도표 3>과 같이 국공내전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국공내전 당시 동아시아 각국과 미국·소련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⁶³⁾



<도표 2>



<도표 3>

2. VI 단원 내용 구성과 학습 지도 방법의 유의점⁶⁴⁾

1) VI-1 단원

<천재교육>	<교학사> ⁶⁵⁾
VI-1.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VI-1.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 처리 구상	1. 전후 처리와 미·소의 동아시아 정책 · 국제연합, 전후 평화체제 구상의 상징 · 미소의 동아시아 구상과 냉전 구조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2. 냉전과 전후 처리 · 냉전 속에 분단국가들이 출현하다 · 평화헌법, 전후 일본의 방향을 제시하다 · 전쟁의 책임을 남겨 둔 샌프란시스코 조약
동아시아 각국의 국교 수립 ⁶⁶⁾	3. 다시 수교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 양극화 시대에 일본이 반공 진영의 국가와 수교하다 · 냉전 질서가 붕괴되고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다 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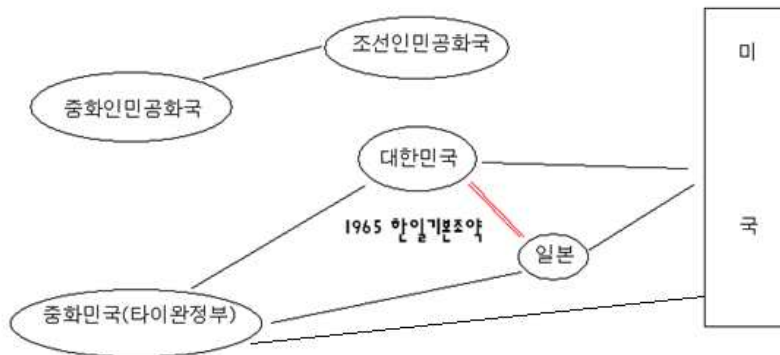
63) 일국사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64)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천재교육>, <교학사> 2종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6종, 세계사 교과서가 4종인데 비하면 교과서 비교 분석이 훨씬 쉬운 셈이다. 교과서가 단기간 내에 만들어져 출간되었기 때문에 수정·보완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테지만, 2014년부터 일부 개정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출간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용할 교과서의 수정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학습 지도를 위한 교과서 재구성 위해 교과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견지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내용의 오류이다. 특히 지도나 도표, 그래프, 연도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5) 앞으로 교학사 동아시아사 교과서,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교학사>, <천재교육>으로 줄여서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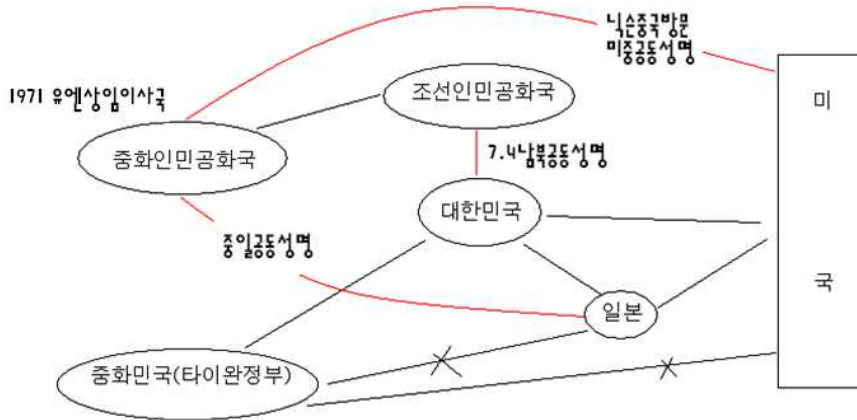
- 소단원명으로 본다면 두 교과서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학사>의 경우 소단원을 다시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분량이 <천재교육>에 비해 많은 편이다.⁶⁸⁾ <천재교육>은 소단원의 단락을 나눠 국가별로 서술하려는 앞 단원의 서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첫 번째 소단원에서 <천재교육>이 2차대전의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한 국제회담과 일본의 패망 과정을 다루고 있는 반면, <교학사>는 전후 국제연합과 경제 분야에 나타난 미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 과정을 다루면서 미·소의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내용을 통합해서 수업을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없지 않다. 내용 연계와 시수를 고려할 때, 선택한 교과서의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세 번째 소단원에서 북한의 수교 문제를 <천재교육>에서는 한 문단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교학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업 내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각국 간의 수교 관계를 도표화하여 학생들에게 그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도록 하겠다.

- 66) <천재교육> 231쪽의 본문 내용 중 미·중 수교 연도와 ‘이야기 속으로’의 중국 관련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학사>의 192,193쪽의 연도 표기 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차 베트남 전쟁 년도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경우 체결된 연도와 적용된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교과서 내에서라면 통일할 필요가 있다)
- 67) 이 소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닉슨 독트린 이후의 일본과 중국의 국교 수립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제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앞 부분의 소제목 역시 일본의 수교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각국의 수교 과정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 68) <천재교육>은 본문은 267쪽, <교학사>는 239쪽인데, VI단원 분량은 <천재교육>이 37쪽, <교학사>가 46쪽이다. 전체 분량에 비해 <교학사>가 <천재교육>보다 VI단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VI-2 단원

<천재교육>	<교학사>
VI-2. 냉전과 전쟁	VI-2. 냉전 속의 열전
국공내전 ⁶⁹⁾	1. 새로운 중국의 탄생 ·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싸움이 전면화되다 · 사회주의 중국 수립의 영향
6·25 전쟁	2. 6·25 전쟁 · 한반도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다 · 6·25 전쟁, 국제전으로 확대되다 · 6·25 전쟁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베트남 전쟁	3. 베트남전쟁 · 베트남, 독립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다 ·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이 재개되다 ⁷⁰⁾ · 베트남 전쟁은 무엇을 남겼나

- 두 교과서의 구성이나 내용의 차이가 가장 적은 단원이다. 다만 베트남전을 이해할 때 6·25전쟁의 전개과정과 같은 지도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이는데, 천재교육의 경우 지도가 없기 때문에 교학사의 지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전쟁이 인도차이나 전쟁으로도 불리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보충되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피해 관련 부분은 지식채널e ‘슬로 블릿’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69) <천재교육> 234쪽 지도에서 모든 국가를 3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미·소 동맹국의 기준도 모호하고, 제3세계를 설명할 때는 차라리 반동회의 참가국 지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또한 냉전을 설명하면서 제3세계 등장을 강조하는 지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0) <교학사> 207쪽 1959년 베트남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206쪽 6·25전쟁 전개과정 지도의 중국군 개입 날짜와 유엔 연도도 수정되어야 한다)

3) VI-3 단원

<천재교육>	<교학사>
VI-3. 경제 성장과 역내 교역 활성화	VI-3. 경제 성장과 지역 내 교류
일본, 한국의 고도성장과 동아시아형 발전 모델 ⁷¹⁾	1.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 토지 제도를 개혁하다 · 일본,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다 · 한국, 폐허에서 일어서다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경제 발전	2.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 경제 ·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다 · 대중 동원에 의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 · 중국과 북한, 위기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다
역내 교역과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⁷²⁾	3. 지역 내 경제 교류의 활성화 · 사회주의 경제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다 · 경제 위기를 극복하다 · 지역 내 경제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다

- 두 교과서가 한국·일본, 중국·북한·베트남의 경제를 각각 소단원으로 묶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교학사>에는 타이완 정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소단원1,2와 연계된 내용을 소단원3에서 연결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천재교육>과는 다르다. 그리고 <천재교육>에는 <교학사>에서 2쪽에 걸쳐 다루고 있는 토지 개혁에 관한 부분이 없다.

4) VI-4 단원

<천재교육>	<교학사>
VI-4. 민주화와 사회 변화	VI-4.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사회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 ⁷³⁾	1. 일본의 정치와 사회 · 55년 체제가 성립되다 · 경제 사회의 변동 속에서 55년 체제가 붕괴되다
	2. 한국의 정치와 사회

71) <천재교육> 242쪽 일본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는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 상황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면 1960~70년대 고도성장 기간도 함께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래프만 248쪽의 한국의 그래프와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그래프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 하락이 2010년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있기 때문에 2010년 경제 성장률 4.4%까지 표시해 주어야 한다. p. 248쪽의 그래프 역시 1970년 시작과 2010년 끝부분이 0%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72) 경제 분야의 통계는 계속 변해야 한다. <천재교육>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해는 2013년이다. 그리고 GDP 순위나 수출 수입국 순위는 해마다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문에도 반드시 해당 연도를 넣어주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사회 확립의 첫발을 딛다 · 권위적 통치와 함께 경제 개발이 시작되다 · 5·18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3. 중국의 정치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다 ·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다 · 덩 샤오핑, 중국을 바꾸다
	4. 베트남과 북한의 정치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개혁과 개방으로 전환하다 · 북한,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 변화	

- VI-4단원은 VI-3의 구성과 다르지 않고 내용의 차이도 많지 않다. <교학사>의 내용이 <천재교육>보다 많은 것은 앞 단원과 동일하다. <천재교육>의 타이완 정부에 관한 내용은 교학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천재교육>의 소단원으로 들어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 변화’가 <교학사>에는 없다는 점이다. <교학사>에서는 이 부분을 ‘역사는 흐른다-자본주의를 채택한 한·일 사회의 변화’로 대체하고 있다.
- 두 교과서 모두 현대 정치사를 국가별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현재 각국의 정권 교체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각국의 외교 관계 변화에 관한 내용을 신문기사나 방송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VI-5 단원

<천재교육>	<교학사>
VI-5.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VI-5.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 ⁷⁴⁾
	1. 21세기의 세계와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가 열린다 · 동아시아, 새로운 국제 관계를 모색하다
영토를 둘러싼 대립	2.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확대되다 ·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	3. 영토를 둘러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 · 한국의 독도 지배

73) <천재교육> 255쪽 주제 탐구의 경우 자료3 ‘일본의 민주화 운동’ 부분은 자료1,2와 성격이 다르고 자료와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 역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화해를 위한 노력	<p>4.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 <교학사>의 소단원1은 <천재교육>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단원이다. 소단원2,3은 두 교과서가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만, <교학사>에 소제목으로 들어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이 <천재교육>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 VI-5 단원의 내용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고, 아마도 앞 단원에 비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설명식 수업보다는 학생 참여의 발표 수업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다룰 때는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 정부의 우익 사관 형성 배경,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돕는 일본 시민 단체의 활동, 한국 내 친일파 청산 좌절이 가져온 영향 등에 관한 자료 제시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학기 독서 수행평가를 위해 선택했던 ‘해협’(하하키기 호세이 著)은 일본인이 한국인 강제 징용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막연한 일본인에 대한 적대심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

3. VI 단원 수업의 형태

동아시아사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천재교육>, <교학사> 두 교과서가 모두 필요하다. 선택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서의 내용이나 자료를 보완하면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보여줄 또 다른 자료를 찾아 해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이다.

먼저 각 소단원의 내용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택해서 수업 내용을 조직화해야 하는데, 설명식 수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업 내용에 따라 <도표 4>⁷⁵⁾와 같이 탐구식이나 발표식 수업 방식도 활용하였다. 학습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노트에 필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⁷⁶⁾ 노트 필기는 교사의 설명과 판서 순서에 따라

74) <교학사> VI-5.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는 ‘갈등과 화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75) <천재교육>을 기본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76) 노트 필기는 학습자가 계속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과 필기한 내용 이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게 해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미리 노트 필기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노트 필기 수행평가 기준을 알려주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줄씩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나 지도는 PPT 를 만들어서 활용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식채널e의 영상자료도 사용하였다. 77)

수업 정리 단계에서 교과서를 읽고 학생 스스로 밑줄을 그으면서 수업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과제로 넘기로 경우가 많았다.

차시	단원	수업방식	수업자료
1	2차세계대전과 전후처리구상	설명식	PPT, 영상자료
2-4	동아시아의 전후처리와 각국의 외교 관계 수립	설명식	PPT
	국공내전과 6·25전쟁	설명식	PPT
5	베트남전쟁	설명식	PPT, 영상자료
6	일본,한국의 고도성장과 동아시아형 발전 모델	탐구식	컴퓨터실 활용
7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경제 발전 /역내 교역과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설명식, 탐구식	교과서 탐구문제 활용
8-9	민주화와 사회 변화	설명식	영상자료
0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발표식	PPT, 영상자료

<도표 4>

1) PPT를 활용한 설명식 수업

교과명	동아시아사		대상	고등학교 2학년		
대단원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도 장소	교실		
중단원	VI-1.전후 처리와 국교회복		지도 교사	한경아		
소단원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 처리 구상		수업 형태	설명식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이로·알타·포츠담 회담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 전후 처리 관련 회담이 이후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일본의 패망 과정과 한반도 분단 과정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교수 학습 자료
도	전시	· 1937년 중일전쟁, 39년 유럽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과정			5	교과서

77) 요약 정리한 내용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것은 학습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학생들 역시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단 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교수 학습 자료
입	수업 내용	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문답 형식)		
	학습 목표 제시	·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 회담과 그 결과에 대해 학습함을 알려주고 교과서를 펴도록 한다. (칠판에 단원명 필기)		
전 개	학습 내용 제시	- PPT를 통해 ·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PPT로 보여주고, 각각의 내용이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한다. · 알타 회담의 내용과 쿠릴열도, 사할린 지도를 PPT로 보여주면서 회담이 초래한 결과(한반도 분단, 현재 러시아·일본의 영토 분쟁)를 소개한다. · 포츠담 회담의 내용을 PPT로 보여주고, 각각의 내용이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한다. - 필기 · 카이로, 알타, 포츠담 회담의 내용을 칠판 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한다. · 1945년 일본의 패망 과정을 칠판 필기와 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오키나와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 자료를 참고한다. - 지식채널 <그날의 기록>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당시 일본의 전쟁 인식이 현재까지 변화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도록 유도한다.	30	PPT 노트 영상 자료
정 리	내용 확인 차시 예고	·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밑줄을 긋도록 돕는다. · 2차 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이 냉전체제의 성립 과정임을 주지시키고 다음 차시에 전쟁 종결 후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학습함을 알려준다.	15	교과서 노트

2) 발표식 수업

(1) 학생 발표 수업 준비 과정

- 2학기 중간고사 이후 발표 수업에 대해 공지한다.
- 3~5명으로 조를 편성한 후, VI-5 단원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한다.
(예) 러·일 간의 북방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 분쟁, 난사군도 분쟁,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전범재판과 야스쿠니 신사, 위안부, 동북공정, 역사 왜곡 교과서 등

-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한다.
 - 발표 주제에 따라 발표 날짜를 조정한다.
 - 발표 수업 후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지의 답을 쓰게 한 후, 내용 정리를 한다.
- (2) 학생 발표 수업에서 유의할 점
- 조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나 친분을 고려해야 한다. 협동 작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묶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사가 해당 학급 임원과 상의해서 조 편성에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수행평가 반영을 할 때,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학생들도 준비한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발표 수업을 반드시 한 단원에 국한시켜 진행할 필요는 없다. 학생 발표 수업을 여러 간 계속하면 집중도와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 차시별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78)

78)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 스스로 동아시아에 관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물론 VI단원의 내용도 포함해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제 내용과 관련된 단원의 수업에 발표 수업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경제’ 주제를 선택한 학생의 발표는 VI-3의 소단원 역내 교역과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는 동아시아의 먼문화, 결혼풍습, 건축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별첨1> ○ 노트 필기 내용

VI-1.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1.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구상 - 회담 참가국의 이해관계 반영

- ① 카이로 회담 - 미,영,중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일본의 식민지 독립 or 반환 (한국, 만주, 대만)

- ② 알타 회담 - 미,영,소
 - 소련의 대일참전에 관한 비밀 협정 체결

↓
소련의 사할린, 쿠릴열도 확보 → 러·일 영유권 분쟁
(일-북방영토분쟁)

- ③ 포츠담 회담(미,영,중+소) - 카이로 선언 이행,
 -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

↓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주권 회복

2. 2차 대전 종결 과정 (1945년)

연합국 오키나와 점령(집단지살사건) → 본토 상륙 준비 ※ 오키나와 반환-1972년

↓ -----포츠담 선언 발표

↓ -----일본 소련에 사절 파견 (1941년 소·일 불가침 조약 근거)

미국 - 히로시마 원폭 투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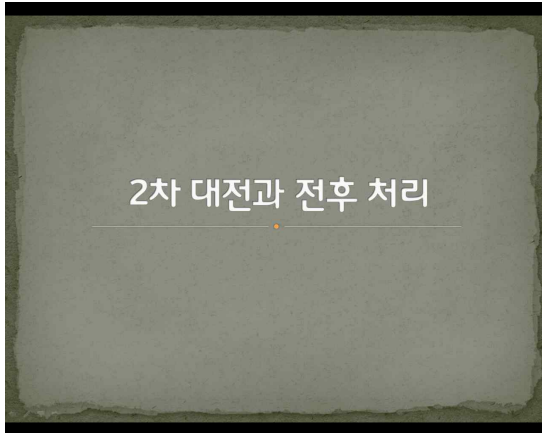
소련 - 대일 선전포고

↓ -----미국 - 나가사키 원폭 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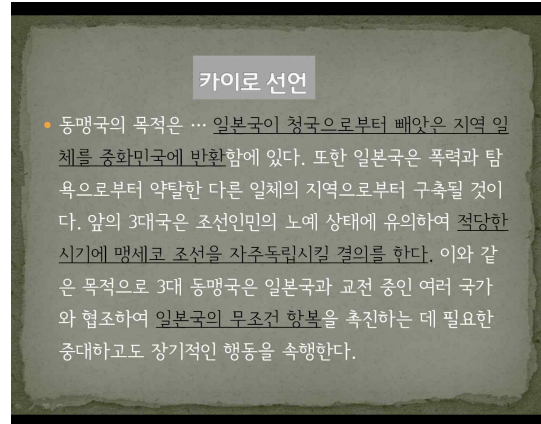
↓

일본 - 항복 or 포츠담 선언 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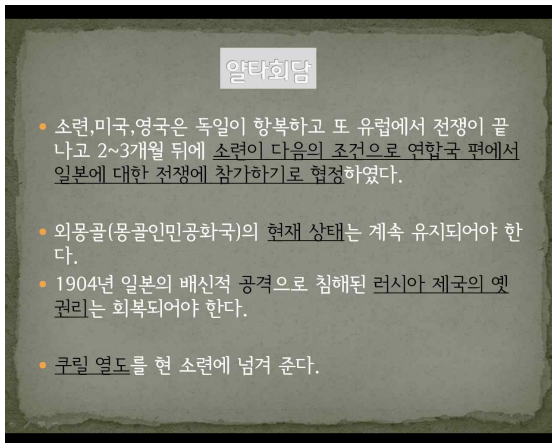
<별첨 2> ○ P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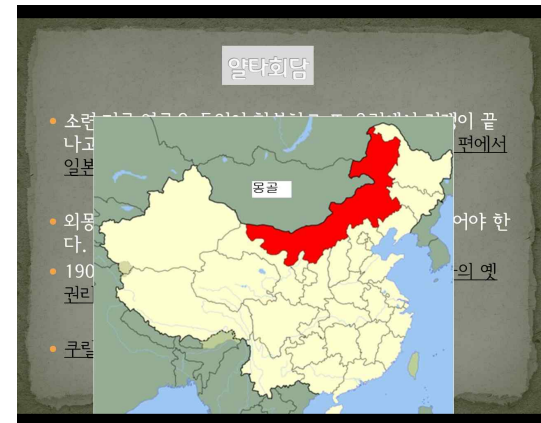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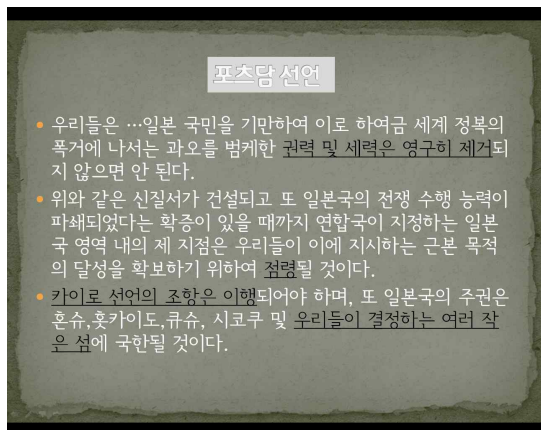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17

<별첨 3> ○ 학생 발표 자료

발표 대본

무대 : 왼쪽에 PPT발표를 위한 스크린과 노트북 설치한다. 가운데 교탁에 사회자가 서 있고, 사회자 양 옆 쪽으로 책걸상을 각각 3개씩 배치한다. 책상 위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안내판을 세워놓고, 중국과 일본 국기를 함께 세워놓는다.



(슬라이드1) 사회자 : 안녕하세요? 방청객 여러분. 저희는 최근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셴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에 관해서 조사하였고, 이를 토론 형식으로 발표하려 합니다.



(슬라이드2) 그 전에 ‘셴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 사건의 전반적인 발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는 지금부터 셴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가)지역으로 부르겠습니다.



(슬라이드3) (가)는 명나라 초기에 푸젠성과 타이완성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약초를 캐어오면서 열도의 존재가 발견되어 중국의 판도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가)는 ‘영락연간(1403~1424년)’에 출판된 ‘순풍상송’이란 책에 ‘조어서’란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863년 청나라가 만든 지도에는 푸젠성에 소속된 ‘다오위타이’군도란 이름으로 표기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중국은 타이완섬과 그에 부속된 도서 및 평후열도를 일본에 할양하게 됩니다. 이

후 일본은 새로 제작한 지도에 (가)를 표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타이완과 평후 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으나 (가) 등은 미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중국인민공화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



UN ECAFE의 CCOP 조사

중국의 영유권 주장

조어도 분쟁 이슈화

약 내용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72년 오키나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였고, 일본은 (가) 등 도서를 자국의 영토를 편입한 후 주위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에 감시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해왔습니다.

(슬라이드4)

그러던 중 1969년 UN ECAFE(유엔 아시아동경 경제위원회)의 CCOP(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 개발조정위원회)가 (가) 부근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가)를 자신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양국의 입장

(슬라이드5)

자, 이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입장

•센카쿠는 본국의 땅이무니다!

(슬라이드6)

일본인1 (주장) : (책상을 탕! 치며) 센카쿠는 우리 일본 땅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우리 일본 땅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저희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 현으로 만든 후 인근의 센카쿠를 1885년부터 실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센카쿠는 청나라 지배 흔적이 없는 무인도라는 결과가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중국의 입장

•다오위다오는 본국의 땅이다 해~

(슬라이드7)

중국인1 (반론 및 주장) :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나 해! 다오위다오는 우리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의 각종 고 문서와 고 지도에 근거하면 다오위다오는 명나라 시절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으며 500여년동안 중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류큐왕국 및 왜국으로 향해할 때 보조물로 이용해왔습니다. 또한 다오위다오는 16세기 중반 중국 해안으로 침투하는 일본 해적을 방위하기 위한 중국의 해안방위 범주 내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오위다오는 우리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센카쿠열도가 중국 푸젠성에 부속 된 섬으로 되어있는 지도가 발견되었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청·일전쟁 중 다오위다오를 강제로 편입한 일본문서가 발견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센카쿠는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청·일전쟁 패전으로 대만과 함께 덩으로 일본에 강제 할양된 것이니 반환되어야 합니다.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

- 청국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와 타이완[臺灣] 및 평후섬[澎湖島]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슬라이드8)


일본인2 (반론 및 주장) : 우리 일본이 청·일전쟁 승전 이후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 제 2조에 따르면 센카쿠는 청나라가 일본에 할양한 바 있는 대만과 평후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 센카쿠를 중국에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스무니다.

(슬라이드9)

중국인2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일본은 타이완과 평후제도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류큐제도에 다오위다오를 불법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에 미·일 오키나와 반환 협정 때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게 반환된 것 입니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연합국인 우리 중국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격렬한 어조로) 센카쿠는 류큐가 아닌 대만의 부속 도서다해! 그러므로 타이완과 평후제도를 포기했으면 우리에게 다오위다오를 돌려줘야한다 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중

- 대만(Formosa)과 평후제도(the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

-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의 제안으로 미국의 통치권이 인정되었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복귀시킨다는 뜻을 결정한 미·일간의 협정

(슬라이드10)

일본인3 (반론) :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중국은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있어 조약에 참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 따르면 센카쿠는 일본이 패전 후 포기한 대만과 평후제도 영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71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근거해 센카쿠의 영유권은 일본으로 합법적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에 류큐가 딸려있고, 센카쿠는 류큐의 부속도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대만은 전쟁 후 단 한 번도 센카쿠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0년 UN ECAFE가 석유가 매장되어있다고 하자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석유를 얻기 위해 억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론

- 맥아더가 발표한 성명 북위 30도 이남의 지역은 일본에 속하지 않음
- 유엔에 의해 2차대전 이후 일본은 류큐에 관한 권한을 박탈당함

(중국측 슬렁슬렁)

중국인1 : (사회자에게) 잠깐 회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슬라이드11)

중국인3 (새로운 주장) : 일본 말이 맞습니다. 센카쿠는 대만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류큐에 속합니다. 그러나 류큐왕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으로서 류큐군을 일본이 불법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센카쿠를 포함한 오키나와 반환은 중국 영토에 대한 미-일간의 불법적인 밀실 거래입니다!!!

1946년 2월 맥아더가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구역은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일본 4대 섬 및 북위 30도 이북의 1000여개의 일본 영토의 부속도서로 국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위 30도 이남인 류큐는 일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46년 11월 미국은 유엔에 류큐를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유엔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즉 류큐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서 적국인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류큐에 대한 점유권은 국제법에 의하여 박탈당하였습니다. 고로 류큐를 포함한 오키나와 반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본측 슬렁슬렁)



우리의 입장

(PPT 슬라이드12)

사회자 : 토론이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일본측이나 중국측의 주장에 반박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잠시 후) 없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일본 측은 사람이 살지 않던 (가)를 1895년 자국 영토로 편입한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합법적으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가)가 속해있는 류큐왕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으로서 류큐군도 전부를 일본이 불법 점령한 것이므로, 미국의 (가)를 포함한 오키나와 반환은 중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밀실 거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은 중국 땅일까요? 아님 일본 땅일까요? 아님 단지 역사적 상황을 핑계로 둔 양국 간의 자원 다툼일까요? 이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과 사례

김정인(춘천교대)

1. 교육과정상의 평가 기준 관련 서술

- 성격 : ‘동아시아사’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서 습득한 역사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몇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몇 개의 주제를 두어 지역 전체를 비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목표 :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 나.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진다.
 -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2. 교육 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

- 동아시아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채택된 신생 교과목이다. 시간 흐름에 따른 통사적 서술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사나 세계사 교과목과는 달리 26개의 주제 중심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는 문두, 지문, 답지가 특정시기 하나의 국가사를 묻는 방식의 출제를 일체 지양하고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 사실을 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동아시아 교과서는 두 종이다. 이 중 하나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주제별 서술을 따르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삼국의 역사를 나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전자 교과서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검정 교과서 채택에 따른 유불리를 막기 위해서는 문두와 지문, 그리고 답지 구성 모두가 두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문항 분석

1) 전반적 출제 경향

- 단원간 통합형 1문항, 단원 내 통합형 1문항을 제외하고는 26개 주제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18개 관련 문항 출제
- 전 단원에 걸쳐 고루 출제되었으나, 근현대사는 5개 문항으로 전근대사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단원	내용 요소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 선사 문화 ○ 농경과 목축 ○ 국가의 성립과 발전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 고대 불교 ○ 율령과 유교에 기반을 둔 통치 체제 ○ 동아시아 국제 관계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 민족 ○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 문신과 무인 ○ 성리학
4.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 은 유통과 교역망 ○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 ○ 서민 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5. 국민 국가의 모색(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과 근대 국민 국가 수립 ○ 제국주의 침략 ○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 평화를 지향한 노력 ○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6. 오늘날의 동아시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처리 문제 ○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 각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 갈등과 화해

○ 예비 평가 20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고르게 출제 되었으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신유형

1) 성리학, 불교 등 역사 개념 관련된 특정 국가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동아시아 공통의 특질을 끌어내는 문항, 동아시아사의 교육과정이 지역사를 기반으로 주제 혹은 개념을 중심의 역사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 개발 경향성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는 물론 지리 교과목과의 접합적·통합적인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문항, 동아시아사는 주제 중심 역사교육을 지향하는 바, 이는 역사학이 종합학문이라는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기도 함.

2) 유형별 문항 분석

(1) 기존 출제 유형과 유사한 문항

2. 거란의 남면관과 북면관제, 그리고 여진의 맹안모극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거란과 여진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기존 세계사 출제 문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거란과 여진에 대한 개별적 역사 사실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보임.
6. 당과 발해의 관제를 그린 표를 제시하고 두 나라 관제의 특징, 공통점, 그리고 상호 영향에 대한 해석을 묻고 있음. 두 지문은 기존 세계사와 국사 출제 문항 중에 자주 등장했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 각국 정치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상호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은 신유형**

(2) 주제별 특징과 공통점을 찾는 신유형의 문항

5. 불교 경전과 사료에서 **불교 전파와 토착화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지문으로 주고 그와 관련된 특징과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7. 일본 성리학의 내용과 이황이 일본 성리학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일본과 조선의 사료를 제시하고 조선, 일본, 남송, 베트남에서의 성리학의 전파와 영향을 묻고 있음. 성리학이라는 공통의 전통이 각국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를 살피고 있음.

(3) 한국 관련 제시문이 중국, 일본의 사료 혹은 역사와 연결된 문항

3.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는 **중국 사료**를 제시하고 그 시기가 진·한 교체기였음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답지는 위만의 이주와 관련되어 과정, 결과, 배경,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두와 지문, 그리고 답지 등이 기존 역사 관련 교과목 출제 문항과 유사한 유형이나 답지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
8.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사료**를 제시하고 이 전쟁이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 전쟁으로서 어떻게 조선, 명, 청, 일본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고 있음. 문두, 지문, 답지 등 전반에 걸쳐 임진전쟁이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동아시아 체제를 흔들었던 국제 전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됨.

9. 10세기 이후 양쯔강 일대에서의 농업 발달의 원인에 대해 **고려 말기 공민왕의 말을 빌려** 재현한 삽화로 구성하여 묻고 있음. 동아시아에서의 소농 경영의 발달이 보편적 현상으로 그 기반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이 있었음을 단순히 중국의 상황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말 농업 생산력 발전과 연결시켜 묻고 있음.
10. 과거제를 설명한 **중국 사료**를 제시하고 베트남, 고려, 조선, 송에서의 과거 제 정착과 영향 등에 대해 묻고 있음. 이 문항은 동아시아에서 문인 지배의 전통을 세우는데 과거제가 미친 영향이 크고, 그것이 각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공통 역사 요소로서의 과거제가 각국에서는 어떻게 정착되고 변용되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고 있음.
12. 의회개설과 관련된 **중국의 자료**를 주고 이 의회 개설운동이 대한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묻고 있음. 문항은 의회라는 대의 기구의 설치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3국의 정치 상황과 운동을 함께 이해해야 풀 수 있음.

(4) 동아시아의 전반의 역사 현상이나 교류를 묻는 문항

1. 동아시아의 연평균 강수량과 1월 등온선을 제시하고 지역별 사회와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지리 과목에서 주로 사용하는 강수량과 등온선 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묻고 있음.
4. 7~9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상호 교류와 문물 전파를 주제로 한 탐구활동 계획서에 들어갈 모둠 별 탐구활동 내용을 묻고 있음. 특히 신라, 일본, 당, 발해, 북위 등의 상호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13. 동아시아에서 신석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을 지도로 제시하고 각 지역 신석기 문화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 **신석기 문화권을 나타낸 지도**를 통해 신석기 문화가 동아시아에서 기원과 계통을 달리하며 여러 개 등장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14. 17세기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푸저우 상인의 가상 편지를 분석하여 이 시기 동아시아 교역망에서 명, 네덜란드, 일본, 왜구, 류큐 등의 역할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에 있어 여러 나라 상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묻고 있음.

15. 중국의 경극, 조선의 송과 산대놀이, 일본의 가부키 관련 그림을 제시하고 이들 공연이 함께 성행했던 18세기 이후 조선, 중국, 일본에서 발달한 서민문화에 대해 묻는 문항. 기존 각국별 서민 혹은 평민 문화의 발전을 하나로 묶어 동아시아 각국 문화의 공통점을 묻고 있음.
16. 5·4 운동에 관련된 중국 자료를 주고 그 배경이 되었던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과정을 묻는 문항.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민족운동의 연관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일국사를 다룬 문항이긴 하나, 답지가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 파리강화회의, 워싱턴회의, 만주사변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음.
17. 러일전쟁을 풍자한 그림을 주고 전쟁의 결과를 묻고 문항. 답지는 일본, 러시아 등의 침략과 전쟁이 한국, 베트남,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반에 초래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
18. 한일기본조약과 한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을 위한 조약을 제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관계의 변화**를 묻는 문항. 답지가 동아시아사 차원의 국제 관계 위주로 구성됨.
19. 돌궐이 부상한 이후 6세기 중국 지역을 존속했던 나라들을 지도로 나타낸 가상의 동아시아사 신문을 주고 당시 북주와 고구려의 외교 정책을 묻는 문항. 당시 중국과 한반도 국가들을 묶어 대외정책을 묻고 있음.
20. **동아시아 영토 갈등**과 관련된 북방 4개 도서와 센카쿠 열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뒤 지도에서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음. 영토 갈등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 하듯이 여러 해양 영토가 분쟁 지역화 되었음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5) 개별 국가사를 묻는 문항

11.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하노이, 후에, 사이공을 지도에 표시하고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음. 베트남사에 대한 이해가 낮선데 베트남사 전반과 베트남의 지리적 상황을 함께 묻고 있어 매우 난해한 고난이도 문항. 20문항 중 유일하게 일국사 출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가 아닌 통사적 흐름을 묻고 있음.

4. “수능 특강” 문항 사례를 통해 본 동아시아사 출제 유형

□ 1강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과 선사 문화의 전개

다음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석기 유물 천여 점, 부산 동삼동에서 발굴
조개더미는 선사 시대의 인류가 채집한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는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를 밝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립박물관 발굴단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일대의 발굴 조사 결과 당시 신석기인들의 일상생활과 자연 환경 및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1,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15일 밝혔다.

-00신문, 1999. 7. 16 -

- ① 뼈바늘 ② 조개팔찌 ③ 조몬 토기 ④ 빗살무늬 토기 ⑤ 용 모양의 옥기

□ 2강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다음의 정치적 변동이 주변 국가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시황제가 죽은 후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항우와 유방도 각각 무리를 이끌고 봉기하였다. 8년 동안 항우는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자 유방도 그의 부하가 되었다. 그러나 항우가 초의 의제를 죽이고 제위에 오르자 유방은 이에 반대하여 봉기하였다. 결국 항우는 패하고 유방이 천하를 다시 통일하여 한을 세웠다.

- ①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하였다.
②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어우락 왕국이 세워졌다.
③ 일본 열도의 소국 중에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④ 부여족의 일파가 압록강 유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⑤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가 건국되었다.

□ 3장 인구의 이동과 교류의 증대

다음과 같은 이주가 일본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백제왕이 아직기를 보냈다. …(중략)…아직기는 능히 경서를 읽었다. 그래서 태자 토도추랑자의 스승으로 하였다.
 - 왕인이 왔다. 태자 토도추랑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여러 전적을 왕인에게서 배웠다.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왕인은 서수(書首) 등의 시조다.
- “일본서기” -

- ㄱ. 야마토 정권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 ㄴ. 천황이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 ㄷ.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 ㄹ. 무사 계급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4장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다음 시기 동아시아 불교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후조(後趙)의 왕은 승려를 초빙하여 많은 사원을 세웠다. 한족 출신의 신하가 “불교는 외국신을 섬기므로 중화의 천자가 받들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자, 왕은 “짐은 이민족 출신으로 중화에 군림하였으므로 외국신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반론하였다.
 - 불도징이 석륵에게 간언하였다. …(중략)…그리하여 마땅히 주살당할 남은 사람 가운데, 그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 열에 아홉은 되었다. 이로써 중국의 오랑캐와 중국 사람들 거의가 모두 부처님을 받들었다.
- “고승전” -

- ㄱ. 중국에서 불경이 한자로 번역되었다.
- ㄴ. 북방 유목 민족들이 불교를 장려하였다.
- ㄷ. 한국에서는 선종이 지방 호족과 결합하였다.
- ㄹ. 일본에서는 전국에 천황의 사찰이 만들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5강 율령 체계의 수용

다음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수·당의 통치 체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베트남에도 전해져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① 일본은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② 신라는 국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쳤다.
- ③ 베트남은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였다.
- ④ 고려는 귀족 회의 기구로 도병마사를 두었다.
- ⑤ 발해는 중앙 관제로 3성 6부제를 시행하였다.

□ 6강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다음 사실을 보여주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제 이후 한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자, 한은 주변의 약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① 북부 베트남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 ② 한의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출가시켰다.
- ③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 ④ 왜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금인을 하사하였다.
- ⑤ 서역의 여러 나라가 한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 7장 북방 민족의 성장과 국제 질서의 변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공통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 고려에서 단군을 시조로 기록한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쓰여졌다.
- 대월에서 쓰놈 문학이 유행하고 “대월사기”가 편찬되었다.
- 일본에서 자신의 나라가 신이 지키는 나라라는 신국 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 ① 몽골의 침입을 받았다.
- ② 무신 정권이 수립되었다.
- ③ 반원 개혁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④ 지방의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⑤ 당과 조공·책봉 관계가 단절되었다.

□ 8장 농업의 발전과 소농 경영

(가), (나) 농업 기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초분은 초목이 무성할 때 베어 땅속에 넣고 덮어서 썩히는 것이다.
...(중략)... 덮어둔 지 오래되면 풀이 썩어서 흙이 기름지게 된다
-“농정전서”-
- (나) 일본의 농가는 가을에는 논을 갈아 대소맥을 심고, 다음해 초여름 대소맥을 베고 모를 심고, 가을 초에 벼를 베고 메밀을 심고, 겨울 초에 메밀을 베고 대소맥을 심는다.
.
-“노송당 일본행록”-

- ㄱ. (가) - 퇴비 등을 비료로 사용하였다.
- ㄴ. (나) - 벼의 이기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 ㄷ. (가), (나) -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 ㄹ. (가), (나) - 우경이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9장 새로운 지배층의 성장

밑줄 친 ‘새로운 지배층’이 나타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일본에서는 송이나 고려와는 다른 계층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헤이안 시대 중기 무렵부터 귀족 세력이 강해지고 조정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귀족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중앙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 ①유교 지식이 중시되었다.
- ②문치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 ③친원세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 ④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는 정변을 일으켰다.
- ⑤호족들이 치안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였다.

□ 10장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리학 수용에 따른 동아시아 각국의 변화>

- 친영의 예법을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다. 파원군 윤병이 숙신 용주를 친히 맞아가니 조선의 친영이 여기로부터 비롯되었다.
- 한 대부터 당 때까지 여성은 사회적으로 꽤 자유로이 남성과 교제하였고, 이혼해도 경멸당하는 일이 없었으며, 정절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느슨하였다. 하지만 송 대 이후 여성이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성으로 마음씨, 말씨, 맵씨, 솜씨가 강조되었다.
-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로 접어들면서 막부가 주자학을 수용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졌다.

- ①갑: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수립되었어요.
- ②을: 학문적 탐구보다 지행합일이 중시되었어요.
- ③병: 자연을 즐기고 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태도가 확산되었어요.
- ④정: 전생의 인과응보가 강조되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억제되었어요.
- ⑤무: 유교의 권위를 부정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 11강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밑줄 친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가 명을 섬겨온 것이 2백여 년 전이다. 의리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며 은혜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다. 이 전쟁 때 입은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선조께서 40년 동안 재위하시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심지어 평생에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인조실록’-

- ㄱ. 갑: 일본에서는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이 발전하였어.
- ㄴ. 을: 중국에서는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조하는 성리학이 성립하였어.
- ㄷ. 병: 여진족이 만주 일대를 통일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어.
- ㄹ. 정: 조선은 중화가 무너졌다고 보면서 자신을 유일한 중화라 자부하였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2강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다음 상황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포르투갈은 중계 무역의 중심지인 플라카를 점령하고, 마카오를 거쳐 일본의 나가사키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조총과 화약 및 명의 생사와 비단을 일본에 팔고, 일본이 정제한 은으로 명의 비단이나 도자기를 사서 플라카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 에스파냐는 필리핀 제도에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닐라가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에스파냐 상인은 멕시코의 이카풀코에서 가져온 은을 명 상인이 가져온 비단, 면직물, 도자기와 교환하였다.

- ①중국 화교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중단되었다.
- ②크리스트교와 유럽의 근대 과학 기술이 전파되었다.
- ③중국과 일본에서 은이 주요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여 되었다.
- ④광저우 등 중국 동남 해안 도시가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 ⑤류큐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중계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 13강 인구 증가와 도시화

다음 상황을 반영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세기 경제적 발전에 따라 점차 도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서민층이 늘어나고 그들의 소비문화가 발전하였다. 경제력을 갖춘 상인들이나 수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문화의 주류로 등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4강 전통 사회의 완성

(가), (나) 현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옳은 것은?

(가) 임진 전쟁 때 적의 목을 벤 자, 납속을 한 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고신(告身)이나 면천(免賤)·면역(免役)의 첩을 주었다.
(나) 18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도시의 인구가 증대하자 도시의 상공업자는 경제력이 커진 반면, 연공을 화폐로 바꾸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게 된 무사들은 경제력이 약화되었다.

- ①(가)-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다.
②(가)-노비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③(나)-물가가 하락하였다.
④(나)-막번 체제가 형성되었다.
⑤(가), (나)-지배층의 권위가 하락하였다.

□ 15강 개항과 국민국가

동아시아에서 다음 정치 체제가 처음 나타난 계기가 된 사실로 옳은 것은?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부정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원수를 뽑는 국가 형태로 민주주의 원리가 제도화한 것이다.

- ①일본에서 정부 주도로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였다.
- ②베트남에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되어 성립하였다.
- ③조선에서 아관 파천을 끝내고 돌아온 고종이 선포하였다.
- ④중국에서 신군이 우창에서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성립되었다.
- ⑤중국에서 쑹 유웨이와 량 치차오 등 지식인들이 추진하였다.

□ 16강 침략전쟁의 확대

다음 주장은 일본이 동남아시아 침략 논리로 제시한 것이다. 이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대동아 각국은 서로 제휴하여 대동아 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미·영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자존 자위를 완수하여 아래의 강령에 기초한 대동아를 건설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려고 한다.

-대동아 공동 선언-

- ①중·일 전쟁의 배경을 파악한다.
- ②태평양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 ③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상황을 알아본다.
- ④만주사변에 대한 국제 연맹의 대응책을 찾아본다.
- ⑤대공황이 일본 국내 정세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 17강 민족운동과 평화를 위한 노력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본의 자유주의자인 요시노 시쿠조는 ‘조선폭동선후책’, ‘조선의 언론 자유’, ‘베 이징 학생단의 행동을 매도하지 말라’등의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무단 통치 방식을 완화하고, 군벌 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국민과 연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 ㄱ.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 ㄴ.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
- ㄷ. 한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
- ㄹ. 파리 강화 회의 결정 사항에 반대하여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8강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밑줄 친 두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국인 블랙이 1872년 발행한 ‘닛신신지시’가 사설과 투고란을 두자, 이후 대다수 신문이 사설과 투고란을 만들면서 신문은 자유 민권 운동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75년 신문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 1904년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텔이 발행인이었다. 덕분에 일본의 간섭을 피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기관이 되었다. 일본의 침략 정책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한국에 설치된 통감부는 1907년 신문지 조례를 모방한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 ① 외국인의 신문 발행을 금지하였다.
- ② 신문의 상업화 경향을 막고자 하였다.
- ③ 신문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 ④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⑤ 정부가 아닌 민간 발행 신문을 폐간하였다.

□ 19장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냉전과 전쟁

다음 사실들을 배경으로 나타난 결과로 옳은 것은?

- 타이완에 국민당 정부, 중국 대륙에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였다.
-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여 중국의 타이완 점령 저지를 선언하였다.
- 6.25 전쟁에서 중국 인민 해방군이 북한을 지원하였다.

- ① 동아시아의 냉전이 완화되었다.
- ② 미·일 공동 안보 체제가 형성되었다.
- ③ 미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교하였다.
- ④ 미국이 대중국 포위 전략을 포기하였다.
- 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 20장 동아시아의 사회 변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 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소작 쟁의가 사라지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정권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확대되었다.

- ㄱ. 한국-자작농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ㄴ. 북한-유상으로 토지를 공급하였다.
- ㄷ. 일본-대금을 받고 토지를 분배하였다.
- ㄹ. 중국-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베트남 특강

- 근현대 중심으로 -

노영순(한국해양대)

1. 프랑스 통치에 대한 베트남의 응전
 2.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에 미친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적 영향
 3. 인도차이나공산당과 베트남혁명
 4.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베트남의 분할, 1945-54
 5.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미국의 패배, 1954-75
 6. 베트남의 통일, 중월전쟁 그리고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1975~
- 보론: 베트남난민, 보트피플과 한국사

1. 프랑스 통치에 대한 베트남의 응전

1850년 이후 베트남에 진격한 프랑스는 1802년 개창 이래 완고한 유가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외부의 '위협' 특히 기독교를 발원 색출하기도 했던 상당히 보수적인 정권인 응우옌(Nguyen) 왕조와 맞서야 했다. 응우옌 왕조는 유연성 부족으로 프랑스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1858년에서 1885년 사이에 마지못해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고 무력하게 저항을 해보는 등 양극단 사이를 불안정하게 오갔다. 후에(Hue)에 있는 조정이 1885년에 어린 황제 함 응이(Ham Nghi)의 이름으로 프랑스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라는 조서를 내렸던 시점에는 프랑스가 이미 확실한 권력 기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후에 탐 호 타일랜드(Hue Tam Ho Tai)의 책 『급진주의와 베트남 혁명의 기원』에서 요약할 수 있듯이 1885년 당시 엘리트 세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프랑스에 철저히 저항하든지 아니면 프랑스 보호체제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1885년 근왕운동이 발발한 이후에 왕조 자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은 이미 왕조보다는 베트남 민족의 이름으로 저항을 했으며, 희망이 없는 투쟁에 몸을 맡기고 있었지만 애국이라는 고지를 점령할 수는 있었다.

좀 더 치밀하고 실용적인 정치적 안건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판 보이 쩌우

(Phan Bội Châu, 1867-1940)와 판 쩐 쩐(Phan Chu Trinh, 1871-1926)으로 대표되는 다음 엘리트 세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새로운 전망의 요점은 첫째로, 서구에서 배운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물론 협력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베트남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혁명 후에만 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서구의 식민 세력에 맞설 수 있다고 믿어졌다. 두번째로, 독립을 유지한 두 주요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과 실용적인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이었다. 판 쩐 쩐은 첫째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판 보이 찌우는 두 번째 전략에 힘썼다.

이러한 ‘문화적 각성을 위한 혁명’의 전투지는 교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에 관해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을 반복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1885년에서 1945년까지 프랑스의 지배는 응우옌 왕조와의 보호 조약에 기반하고 있었다.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기는 했지만 응우옌 왕조는 북부 베트남(통킹)과 중부 베트남(안남)을 명목상으로는 계속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은 왕조와 프랑스 식민정부라는 두 실체와 마주해야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인 응우옌 왕조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그 권위가 유지되고 있었던)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에 호소하기도 했다.

더 읽기: 급진주의와 베트남 혁명의 기원(Hue-Tam Ho Tai, *Radicalism and the Origins of the Vietnamese Revolution*, pp. 13-26) 호와 총/ 호앙 까오 카이(Hoang Cao Khai)와 판 딘 풍(Phan Dinh Phung)/ 사회적 다원주의자들의 문화 비판 / 개혁과 개혁가/ 판 보이 찌우(Phan Boi Chau)와 판 쩐 쩐(Phan Chu Trinh)

2.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에 미친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적 영향

19세기 유럽 제국주의가 지닌 커다란 모순 중의 하나는 주된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들 제국이 약화되는 과정은 아마도 유럽이 20세기 벽두부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시점에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맑스주의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의 외관은 본질적으로 이분화된 사회, 즉 경제의 축적된 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또는 ‘부르조아’와 자신의 노동력 밖에는 소유한 것이 없어 임금이라는 형태로 이를 파는 ‘재산 없는 대중’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내부 실체를 가리고 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뒤에서 미는 힘은 사적인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과학, 산업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가 가져온 급격한 진보는 이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경제가 더욱 복잡하고 진전될수록 이들 두 계급 간의 차이도 심화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증가시키려면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수준을 희생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급기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맑스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칼 맑스는 불특정한 혁명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고 (이를 파괴시키지는 말고) 그 생산력을 모든 사회의 필요에 따라 동력화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V. L. Lenin, 1870-1924)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맑스의 기본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현상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 주고, 값싼 원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처를 제공하여 자본주의에 새로이 연장된 삶을 주는 방식이다. 제국주의는 또한 식민지로의 이민이나 고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유럽의 노동자 계급 사이에 인종의 우수성을 심어줌으로서, 그리고 제국 경쟁에서 민족주의적 정체감을 날카롭게 함으로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계급적 반감을 무디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제국 경쟁에 내포되어 있는 인종 간의 대립과 국가 간의 반목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대립인 계급 대립을 드러낼 것이다.

레닌의 분석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주요 유럽 강대국의 이러한 제국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전쟁을 혁명적인 계급투쟁으로 바꾸어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로 하는 대신에 유럽의 사회당들과 소위 ‘제2 공산국제’는 각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전쟁 논리를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오직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나중에 공산당)만이 레닌의 지도 하에서 혁명적인 투쟁 시기를 거쳐 1917년 정권을 잡았으며 사회주의 국가(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창설을 선포했다.

레닌과 러시아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1917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초를 놓은 해이기도 했다. 본질적인 분할은 이제 더 이상 국가나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식민체제와 세계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 구체적으로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식민 지역 내 부역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으로 표상되는 - 간에 있었다. 1918년 독일이 패배한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자결’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신의 제국에서는 부인했다는 사실은 레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유 민주주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1919년 러시아 지도자들은 세계의 공산당과 혁명 조직체를 연결시키기 위해 ‘제3공산 국제’ 즉 코민테른을 조직함으로서 자신들의 세계 이론에 조직적인 실체를 부여했다. 레닌의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와 반-식민주의 투쟁을 연계하려고 고안한

코민테른의 주된 문건이다.

그러나 이 세계전략이 직면한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식민 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후진 사회였다. 주요한 계급 대립은 자본가와 무산자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와 농민 간에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적 저항이 단순히 구체제를 복원시키게 될 위험이 있었다. 구체제는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끌어내기 시작한 식민정권보다 더 ‘반동적’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주된 목표는 식민세계에서 작지만 혁명적인 ‘핵’ - 지식인파, 싱가포르와 같은 대도시에서 막 생성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 그리고 빈한한 농민으로 구성되는 - 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연후 이 혁명적인 핵은 민족주의 엘리트의 ‘진보적인’ 요인 - 레닌은 이들을 ‘부르조아-민주주의자’라고 표현했다 - 들과 연합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 연합만이 세계적인 혁명 세력과 반식민주의 세력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식민 제국의 통치를 일소한 후에야 진정한 투쟁인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다. 식민지에서 ‘부르조아-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연합은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가질 뿐이었다.

레닌의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를 요약하고 베트남 공산주의의 아버지 호 쯔 민(응우옌 아이 꾸옥 Nguyễn Ái Quốc 이라는 다른 가명으로 알려진)의 정치 사고에 이 ‘테제’가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보겠다. 이는 1919년 이후 시기에 다른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더 읽기1: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Extract from V. L. Lenin, 'Preliminary Draft of Theses on the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in V. L. Lenin, *Selected Works*, Vol. 2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7), Excerpts taken from pages 654-8))

더 읽기2: 나를 레닌주의자로 인도한 길(Ho Chi Minh, 'The Path which Led Me to Leninism', (April 1960), in Ho Chi Minh, *Selected Works*, Volume IV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2). Excerpts taken from pages 448-50.)

3. 인도차이나공산당과 베트남혁명

1920년대 초 소련에 총본부를 두고 있었던 코민테른(제3 공산국제)은 세계적인 혁명 운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와 식민화된 모든 세계에 관한 코민테른의 지도 전략은 혁명 세력과 엘리트 민족운동인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모델은 지방 군벌을 제거하고, 중국의 일부 영토와 중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4년 광둥에서 결성된 중국공산당(1921년 조직)과 중국국민당간에 맺어진 전술적 연합 [국공합작] 이었다. 이 연합의 기초 위에서 코민테른은 남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걸친 광범위한 혁명 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 자리하고 있는 조직체 중에는 1920년에 결성된 인도네시아공산당, 1925년 호찌민이 광둥에서 결성한 베트남청년혁명연합 (Revolutionary Youth League of Vietnam), 그리고 주로 중국인의 도시 조직체로 1930년에 출발한 말레이공산당(MCP)이 있었다.

코민테른은 원래 식민지의 혁명운동을 식민 '본국' 공산당의 후견 하에서 지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의 혁명 운동을 '지도'해야 했다. 그러나 논리상의 모순이 이러한 연계를 방해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하게는 동남아시아 혁명가, 특히 호찌민은 혐오해 마지않는 식민 관계를 혁명적인 용어로 다시 재생산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 시기에는 유럽인이 지도하는 세계 전략에서 벗어나 아시아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코민테른 네트워크는 동남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감과 운동에 통일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순한 선전 문구로 번역되어 대중을 동원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동시에 농민과 전통적인 농촌 오지민들의 '세계관'을 그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공산당은 1920년대 초기에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정 지역에서 대중 동원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서 역설적이게도 사실상 파괴되었다. 이들이 전달한 반식민주의라는 거의 구세주적인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 활동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으며 중국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 1926년과 1927년에 서부 수마트라와 서부와 동부 자바에서 그 지역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이 지도하는 결코 조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일어났음은 네덜란드에 의해 쉽사리 진압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결과적으로 이들 반란 때문에 인도네시아공산당이 거의 10년이 넘게 약체로 남아 있어야 되었지만, 이 반란이 당시 세계적인 공산주의 음모의 증거라고 보았던 식민 당국은 크게 놀랐으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겠다던 의향을 거두게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아시아 공산주의에 가장 커다란 상처를 준 사건은 1927년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연합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깨어졌으며 이를 이어 중국 민족주의자들과 중국 공산주의자간에 일어났던 내전이였다. 코민테른은 공산당과 '부르조아-민주주의' 민족주의 정당 간에 연합을 격려하던 정책을 철회했다. 차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공산주의 정당은 민족주의

활동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도록 기대되었다. 청년혁명동지회가 1927년 붕괴된 이후 1930년 호 쩌 민의 지도로 성립된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창당 프로그램에 있는 ‘계급투쟁’은 실제로 프랑스에 대한 ‘애국적인 투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개월 안 있어 1930년 말에 가서 이 두 경향은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요소가 되어갔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은 1930년 창당되자마자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소요 사태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 소요는 세계 공황이 이 지역에 가져온 재난으로 격화되었다. 1929년과 1931년 사이 베트남 대부분은 파업, 시위 그리고 프랑스인과 베트남인 정부 관리를 직접 겨냥한 폭력사건으로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이 그렇지 않았다면 무질서한 지역적인 반란들이 되어 버렸을 일련의 붕기에 통일성과 조직을 주었으며, 중부 베트남의 예 안(Nghê An)과 하 띠(Hà Tĩnh)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로 마을 ‘소비에트’망이 건설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이들 반란을 분쇄함으로써 건설 초기에 있던 당은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살아남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1930-31년 반란의 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었다. 이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민족 통일보다 계급투쟁을 강조하면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각성이었다. 베트남 사회 내에서 프랑스에 대항한 애국적인 통일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과의 관계는 다음 십 년의 과정에서 호 쩌 민이 풀어야 할 전략적인 숙제였다.

새로이 창당된 인도차이나공산당이 내린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거의 같은 시기 버마에서 있었던 사야산 반란을 둘러싼 레토릭과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프랑스 당국은 식민지 코친차이나를 ‘갈색의 프랑스인’이 사는 ‘해외’ 프랑스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소위 ‘동화’정책이라는 것을 추구했었다. 여타의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당국은 보호행정 내에서 대체로 토착의 정부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게 했었다. 이 두 정체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정치 발전의 여지도 허락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의 활동과 자치정부나 독립 요구는 프랑스 식민 행정부는 물론 응우옌 왕조에게도 모두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1920년대에 입헌당은 코친차이나의 정부 조직에 베트남인 대표를 늘리고 출판의 자유와 프랑스 시민권 획득의 폭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요구에서조차 입헌당이 프랑스로부터 개혁을 ‘끌어내지’ 못하자 이 온건한 당은 지지의 기반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양 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 기간에 아주 한정된 프랑스의 자유화 조치가 잠시 취해지기도 했지만 늘 탄압의

시기를 동반했다. 프랑스가 잠시라도 탄압의 끈을 늦출라치면 축적되어온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열망이 분출되어 나왔으며 프랑스는 급히 다시 끈을 조여야 했다. 심지어는 젊은 황제 바오 다이가 베트남 왕조 정부를 이용하여 아주 온건한 개혁을 하려 했던 시도도 즉각 만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시점에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는 외견상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만약 지배력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확고해진 것이었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 베트남인의 에너지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의 종교 집단으로 향했는지 모른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26년에 형성되고 사이공, 특히 사이공 북서부 근교에 상당한 신자를 가지고 있었던 까오 다이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남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급진적인 불교 종파인 호아 하오였다. 이 종교 집단들은 강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1945년과 1946년 같은 무정부상태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5년 3월 일본은 연합국이 인도차이나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그럴 가능성은 농후해 보였다) 프랑스 식민정권은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 식민정권을 제거했다. 명목상으로 정치적 권위는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의 군주에게로 넘겨졌다. 그러나 특히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다가 안 그래도 가난한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는 기근까지 겹쳐 점점 더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바로 프랑스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적인 민족주의 조직은 없었다. 후인 킴 카인의 권위 있는 논문 「베트남 8월 혁명에 대한 재해석」이 보여주고 있듯이 대중적인 민족주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창설한 베트민 운동은 베트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적인 공백을 채울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남부의 일부지역에서는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같은 조직들이 지역 군벌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베트민의 지위와 베트민 운동의 신용은 1941년 이래로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반프랑스적(‘반식민주의’) 그리고 반일본적(‘반과시즘’) 입장을 고수했다는 데서 비롯되었음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더 읽기 1: 1930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정치 테제(‘Political Theses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 October 1930’, in *An Outline History of the Viet Nam Workers' Party, 1930-1970*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0)) 인도차이나 상황의 특성/ 경제적인 모순들/ 계급 모순[베트남 농민과 노동자간의 이해 합치]/ 인도차이나 혁명의 특징과 과업

더 읽기 2: 베트남 8월혁명에 대한 재해석(Huynh Kim Khanh, 'The Vietnamese August

Revolution Re-interprete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0(1970-71). Excerpts taken from pages 761-82. 베트남 공산주의 - 초기/ 베트남 전선/ 봉기준비/ 8월혁명/ 뒤돌아본 8월 혁명

4. 열전과 냉전 사이, 인도차이나에서의 독립정착

(1) 인도차이나 독립정착과정

인도차이나에서 일본 군대와 프랑스 행정부의 불편한 공존은 1945년 3월 일본이 식민 정부를 제거하고 프랑스인들을 구속시킴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독립된 국가를 다스리는 책임을 이전에도 프랑스 보호체제 내에서 군림했었던 군주들, 캄보디아에서 시아누크, 라오스에서 시사봉 봉, 베트남에서 바오 다이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이 공백은 점차로 베트남애국전선(베트남, **Việt Nam Độc Lập Đồng Minh Hội**)이 채우고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베트남은 즉시 권력을 장악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의 독립을 선언했다. 몇 주 있다 동남아시아사령부가 남부 인도차이나로 들어오고 중국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항복을 감독하고자 북쪽을 점령했을 당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남부에서는 그 위치가 다소 약했지만 북부와 중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독일과 협력했던 비시정부로부터 1944년 권력을 이양 받은 드골 장군 하의 자유 프랑스 정부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전반적인 식민 계획은 인도차이나 연방을 창설하고 이 연방 내에서 인도차이나의 개별 국가들은 프랑스가 임명한 고등주차관 (High Commissioner)의 전반적인 지휘 하에 자치정부를 운영하게 될 것이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한 한 이 계획은 1946년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부드럽게 실현되었다. 캄보디아의 군주, 시아누크와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라오스의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와 그들의 상징적인 수장인 시사봉 봉은 1946년과 1954년 사이에 자치정부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협상을 하는 동시에 이 두 나라는 국방, 경제, 외교정책,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정치엘리트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분열과 갈등이 있긴 했어도 1950년 중반에는 안정된 독립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모두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 둘은 냉전의 불모가 되어갔다.

프랑스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인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남부에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사령부를 이어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 발판으로부터 1945년 후반 동안 남부 베트남의 나머지 도시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북부에서 민주공화국의 지도자 호찌민은 일본 항복 후 연합국 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북부를 점령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군대와 쉽지만 않았던 공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46년 초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입지가 약했던 프랑스는 북부와 중부 베트남의 지위에 관해 베트민과 협상해야 했다. 이들이 이룬 합의는 아주 모호했다. 즉 여기서 민주공화국과 베트민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권위를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며 반대급부로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의 자율권을 인정했다. 이는 양측 다 자신의 일시적인 약점을 인정했다는 것의 다름 아닌 표현이었다. 1946년 3월에서 9월에 걸친 협상과정 동안 두 당사자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의 기반도 없음이 드러났다.

1946년 12월 프랑스와 베트민 간에 무력충돌이 시작되었다. 1946년 동안 프랑스는 베트민과 협상하려고 노력했던 반면 동시에 특히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부 산악 고지대(Central Highlands)와 남부에서 강했던 분리주의 정서를 부추이면서 민주공화국의 입지를 고의로 사보타지시키려고 힘썼다. 1947년 이후 프랑스는 방침을 바꾸었다. 프랑스는 베트남 민족주의자 운동권내에 있는 이념적인 분열을 이용하여 베트민운동이 명백히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널리 선전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략은 프랑스가 식민통치기간 중에 온건한 민족주의가 대중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장기간의 눈물겨운 협상 끝에야 프랑스는 점차로 베트남의 ‘적법한’ 민족주의 정부인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을 건설했다. 이 국가의 주역은 프랑스 보호령 하에서 베트남을 지배했으며 일본이 세운 베트남 정부의 명목상 대표로 행동했던 바오 다이였다.

프랑스의 분명한 목적은 반-식민주의 갈등을 공산주의자 베트남과 반공산주의자 베트남의 내전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이 새로운 국가, 베트남국의 창설은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확고히 지켜주지 못할 것임이 점차로 분명해졌다. 바오 다이와 그의 정부는 프랑스를 위해 효율적인 군대도 믿을만한 정치적 지원도 해줄 수 없었다. 더욱이 1949년과 1950년 사이 프랑스-베트남전쟁의 성격이 소규모의 게릴라 투쟁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급히 충원된 바오 다이의 베트남국가 군대, 지방 시민군과 특별 군부대의 도움이 있었지만 프랑스가 이러한 전쟁을 감수할 수 있는 인력이 되기는 못했다. 디엔 비엔 푸 전초기지에서도 프랑스가

맞이한 극적인 패배이전인 1954년 초에도 상황 진전은 프랑스의 철수, 민주 공화국 하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로 향하고 있었다.

(2) 냉전과 1954년 제네바협정

그러나 1950년대 초 베트남의 상황은 이 지역에 냉전이 침투하면서 급격한 영향을 받았다. 1945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련과 서양의 ‘반-파시스트’ 연합이 깨어졌으며, 유럽은 소위 냉전을 맞이했다. 1949년 공산주의 세계와 서구간의 대결구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패배시키고 북경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아시아로 퍼졌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비공산주의 정권인 남한을 침입한 1950년에 냉전의 긴장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서구에게, 그리고 특정하게는 미국에게 동아시아는 냉전의 전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1950년 베트남에서의 전쟁도 새로운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며, 공산주의 진영에 충실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프랑스를 지지하여 바오 다이의 베트남 국가를 프랑스 식민통치를 이은 적법한 정권으로 승인하고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조를 들어 분기 시작했다. 전쟁을 계속해야겠다는 프랑스의 의지가 1953년과 1954년 사이 끊임없이 박약해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베트남의 승리를 막아보겠다고 버리고 있었다.

1954년 초에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교착상태는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만 타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1954년 봄 제네바에서 소집된 국제회의는 이러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 때까지 고조되어온 국제적인 긴장의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대국 대표자들이 1954년 5월 베트남의 상황을 토론하기 시작하자 베트남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당당한 입장은 베트남을 공산주의자가 장악하게 놓아두지 않으리라는 미국의 결심과 부딪쳤다. 급기야 정전이 합의되었으며 베트남 북부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남부에는 비-공산주의자 정권이 지배하게 되어 베트남은 일시적으로 분할되었다. 이들 잠정 정치체들 중의 어느 하나도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베트남은 궁극적으로는 2년 후에 취해질 모호하게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일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왕국정부의 독립과 영토보전은 1954년 7월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베트남의 분단, 1945-54

1946년 12월에 발발해 1954년 7월까지 계속된 베트남민주공화국(베트민)과 프랑스간의 전쟁은 특히나 1940년대 말에 냉전이 동남아시아에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프랑스가 식민전쟁을 두 베트남 정부간의 싸움으로 전화시켜려고 한 시도 때문에도 상당히 복잡한 양태로 진행되었다. 1965년 영국의 중앙정보부가 펴냈던 다음의 보고서는 반공산주의적인 편견이 보이기는 하지만 존경할 만한 정도로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지나고 보니까 더욱 명백해진 이 갈등의 역사를 엮어 나간 하나의 요소는 제네바회의 이전에 베트민/베트남민주공화국이 펼쳤던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베트민은 정통 공산당인 인도차이나공산당(ICP)이 창설한 애국전선이었다. 1945년 9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이 지도하는 베트민이 베트남민주공화국(DRV)이라는 독립 국가 안을 입안하고 현실화했다. 같은 달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항복을 감시하게 위해 베트남 북부로 들어왔을 때 친-중국국민당 베트남 정치인들, 특히 1930년대 이래로 중국에 망명하고 있었던 베트남 국민당(Việt Nam Quốc Dân Đảng)과 동맹회(Đồng minh Hội)의 지도자들이 따라 들어왔다. 중국인들이 이들 정치인들을 권좌에 앉히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호찌민은 유연하고 기민하게 행동했다. 그는 베트남국민당과 동맹회 정치인들을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와 국민의회에 수용했으며 1945년 10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의 해산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순전히 명목적이었으며, 인도차이나공산당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을 비밀리에 계속 지도했다. 중국국민당 군대가 1946년 봄 베트남 북부를 떠나자 친-중국 정치인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숙청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이후 인도차이나공산당은 베트남노동당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재등장했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정통 공산주의자 정권임을 선언했다. 이는 공산주의 정치의 복잡한 책략이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비교적 손쉽게 북부와 중부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반면 남부 코친차이나 지역에서는 1945년 이래로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 지방에 자리 잡았던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종교 운동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정치 세력과 경쟁해야 했다. 1945년 8-9월 베트민은 이들 조직체들과 잠시 화해하기도 했으나 늦어도 1947년에 이르면 이들과의 결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후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는 점차 프랑스와 협력했다. 그리하여 코친차이나의 대부분은 1946-5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베트민의 통제 밖에 있게 되었다.

되돌아 보건데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끌어낸 합의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음을 언급해야 한다. ‘강대국’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합의는 베트민과 프랑스인 군사령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프랑스 군대가 1956년 4월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56년 7월로 예정된 ‘베트남 전국’ 총선거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제네바 회의의 ‘최종선언’은 강대국의 입으로만 보장되었다. 더욱이 미국과 베트남국가(남베트남)는 이들 협약에 말로 동의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결국 제네바회의가 이룬 결정은 즉각적인 정전이었고 이 휴전으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기 군대를 재조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일시적인’ 베트남의 분단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두 개의 다른 ‘정치체’가 태어나도록 했다. 베트남의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화시킬 아무런 의지도 조치도 없었다.

1945년에서 1954년에 일어난 사건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1954년 베트남이 서로 겨루는 두 개의 다른 국가 정부로 분단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도차이나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동적인 과정을 파악하게 해 준다.

더 읽기: 베트남에 대한 영국중앙정보국의 보고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British Information Services), Vietnam (London: HMSO, 1965). Excerpts taken from pages 1-17.) 베트남민주공화국/ 프랑스는 코친차이나에서 식민통치를 재건/ 중국군의 베트남 북부 점령/ 프랑스와 베트민 간의 협상/ 1946년에서 54년에 걸친 전쟁/ 베트남민주공화국의 공산주의자/ 바오다이 정권의 수립/ 국제적인 측면/ 군사작전, 1951-54/ 제네바 협정/ 베트남 정전협정/ 베트남공화국 [베트남국가]의 건설/ 난민, 1954-55

5.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미국의 패배, 1954-75

(1)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냉전 대결구조

제네바협정으로 서구, 특히 미국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반공산주의 ‘차단막’에 해당하는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이 방어 전략의 초석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를 마련한 집단안전보장조약이었다. 이는 1954년 말에 맺어진 상호 방어조약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당시에는 동파키스탄이었고 지금은 방글라데시인 지역을 포함), 필리핀, 타일랜드, 그리고 영국을 한데 묶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조약의 중요성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면에 있었으며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은 주로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립된 긴밀한 미국-타일랜드 우호 관계. 둘째, 제네바협정이 라오스를 냉전의 중립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 반공산주의 ‘요새’를 건설하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베트남에 생존 가능한 반-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려는 노력에 두어졌다. 1950년의 시각에서 서양과 전세계 공산주의 간의 냉전에서 최전선이라고 간주되었던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진 군사적인 원조와 조언, 전략적인 경제 원조,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이전은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최전선’지역의 후방에는 [미국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갖춘 필리핀과, 그리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긴밀한 후-식민 관계를 맺고 있던 말라야 지역이 중대한 ‘지원부대’의 역할을 했다.

미국이 이 안보망에 온갖 신경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이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 윤곽을 드러낸 이 관계망은 애초부터 분명 미국과 이전의 식민 강대국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최근에 독립을 이룩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당연하게도 ‘신-식민주의’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시도에도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구의 편에 서지 않겠으며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블록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인 ‘비동맹’ 정책은 1950년대에 이들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대안으로 보였다. 이는 신생 독립 국가의 많은 ‘대중에게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또한 ‘비동맹’ 국가는 세계무대에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우누의 버마, 수카르노 하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시아누크 하의 캄보디아 모두 국제적인 사건에서 ‘비동맹’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비동맹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서구의 ‘신-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울었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미국 그리고 캄보디아-미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1950년대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계 주변에 우방 국가의 안전 블록을 건설하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공산주의의 전복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은 서양과 공산주의의 전세계적인 대치상황은 양자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핵시대에는 전쟁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장에서 보다 세련된 경쟁이 추구되어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소련과 미국 모두에게 대결의 공간은 공산 불력에 대한 철조망이 쳐진 주변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탈식민지화되고 있는 세계라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소위 ‘제3세계’라고 알려진 이 지역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신생 독립 민족국가가 식민 강대국 정권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건설하고, 가난과 후진성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힘쓰고 있었다. 이러한 거대한 사명은 종종

전쟁의 와중에서,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했으며 야심차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제적·정치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이 해방을 맞이한 국민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기대감을 충족시켜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는 취약점을 가득 안은 채 살얼음판과 같은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내부로부터 정치적인 격변의 손쉬운 표적이 되기도 했다.

(2) 라오스 위기와 지역 전복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안전망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 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간주되었던 두 국가인 라오스와 남베트남에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었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제네바협정은 라오스왕국(Royal Lao government, RLG)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인정했지만, 직접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인 ‘파텟 라오(Pathet Lao)’ 운동을 국가 체제 내로 통합시키기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야 함을 규정했다. 라오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반체제론자들로 구성된 이 파텟 라오 운동은 1950년 당시 라오스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통합력을 제공했던 군사적·정치적 세력이었다. 베트남의 도움으로 파텟 라오는 베트남-라오스 북동부 국경지대와 라오스-베트남 동부 국경지대를 따라 캄보디아에 이르는 지역에 ‘혁명기지’를 건설했었다.

라오왕국 정부와 파텟 라오 간의 협상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서 1957년 사이 진전을 보았으며 파텟 라오가 군사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라오스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58년과 1961년 사이 라오스는 냉전이라는 대치상황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국은 파텟 라오가 ‘내부로부터’ 라오 왕국정부(RLG)를 전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 이들 간의 정치적인 제휴를 막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들 간의 합의를 무효화시켰으며 강한 반-공산주의 정권 창출을 고무시켰다.

1958년과 1959년 정치적 합의가 무산된 이후 라오스에서는 내전이 발발했다. 파텟 라오는 재빨리 동부 국경지대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립하고, 1961년에 이르러서는 왕국 정부의 핵심지역인 메콩 지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되어 미국은 라오왕국정부가 미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반공산주의 ‘요새’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파텟 라오-북베트남이 라오스를 접수하도록 놓아둘 수도 없었고 미국-동남아시아조약기구가 대규모로

군사적인 간섭을 단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급히 제네바에서 국제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1962년 라오왕국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연립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몇 달도 되지 않아 이 연립은 깨어졌으며, 1963년부터 1975년 사이 라오스는 공산주의자가 우세한 북부와 동부 지역(소위 ‘호찌민 루트’를 포함하여)과 라오왕국정부가 지배하는 메콩강 지역으로 분열되었다.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있었던 ‘라오스 위기’는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서방의 지위가 극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베트남이 친-서방의 남베트남을 해방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동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라오스와 버마가 공산주의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했다.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버마도 1948년 독립 이래로 카렌, 카친, 친 민족 분리주의자 운동과 여러 공산주의자 파당들의 폭동과 반란사태에 직면해 있던 허약한 국가였다. 중국의 내전 말기에 북동부 버마로 중국국민당 군대가 도망쳐 들어와 버마-타일랜드 국경지대에 할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이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대치해야 함을 의미했다. 양측 모두 이 지역에 영향력을 동원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려고 했으며 이러한 경쟁은 메콩 국경 지대를 따라 북동부 타일랜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야-타일랜드 국경지대로까지 확대되었다.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서방 국가인 타일랜드는 약소국가들과 위협적인 반란세력들에 포위되어 있었다.

1947년 유럽에서 봉쇄정책을 실시한 후 미국은 핵무기로 지원을 받는 집단 안전보장조약으로 탄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지했다. 또한 1954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라는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국은 태평양에서 필리핀, 일본, 대만, 한국 그리고 앤저스(ANZUS, 오스트레일리아-미국-뉴질랜드 3국의 공동방위체) 조약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수많은 안보 조약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제 안보조약은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의 인적 우세라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점 때문에 미군이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의(1953-61) 의지를 반영했다. 앞으로 어떤 곳을 공산주의자들이 침입하더라도 공산주의 세계의 심장을 향해 ‘대규모의 보복’으로 맞설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던 1950년대 중반이 되자 어떤 의미에서 이는 이미 쓸모없는 구식의 장치가 되어버렸다. 1953년 스탈린의

사후 소련의 지도자들이 제안한 ‘평화 공존’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전쟁은 사회주의의 전세계적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에 의한 상호 파괴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두 ‘체제’간의 대결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는 세계적 패배를 피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군사방어 체제는 계속 증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를 통해 이 투쟁의 장은 제3세계로 옮겨갔다. 제3세계에서 이 냉전 대치 양상의 전형적인 예를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생했던 ‘라오스 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라오스 왕국은 갑자기 두드러지더니 베트남 전쟁이라는 좀더 커다란 드라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 글은 이 책의 편집자가 쓴 것이다. ‘라오스 위기’시에 일어난 사건과 중요성을 요약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들 사건의 복잡다단한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다.

원기: 라오스 위기의 배경, 1958-62 (Clive J. Christie, 'The Background to the Laos Crisis, 1958-62') 독립의 역사적 배경/ 전쟁의 시대, 민족주의 그리고 독립, 1940-54/ 1954년 제네바협상에서 ‘라오스 위기’ 까지/ 라오스 위기/ 라오스와 베트남 전쟁

(3) 베트남위기 - 남베트남에서의 반란과 미국의 개입, 1954-65

1955년 바오 다이의 국가 수장직을 대신한 응오 딘 지엠 수상(나중에 대통령이 됨)하에서 전도 유망해 보이는 초두를 장식했던 남베트남 정권이 1950년대 말에는 내부 약점이 심각하다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위에서 언급한 상황 때문에 미국은 이 정권을 한층 더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남베트남 정권의 난관은 궁극적으로 프랑스가 공산주의 정권인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인위적으로’ 창출해냈다는 바로 그 기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국가가 본래부터 ‘국민의 신망(national credibility)’ 위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지엠은 눈에 떠일 정도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럴수록 국민의 신임은 더욱 낮아졌다. 1954년 이래로 미국과 지엠 정권은 ‘국가-건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강제로 결행했다. 주안점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임시변통의 군사지도자 연합(war-lord alliances, 까오 다이 Cao Đài와 호아 하오 Hòa Hảo 지도자를 포함하여) 세력을 제거하는 데 두어졌다. 이 오합지졸의 연합세력은 취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오 다이 국가의 주된 버팀목이었다. 이 복잡한 구조는 응오 딘 지엠 하에서 마을수준까지 직접 뻗쳐있는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지방 정부 구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지엠 정부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 요원도,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지방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남베트남(1955년 이후에는 베트남공화국 (Republic of Vietnam, RVN)으로 알려진 정권)의 농촌 지역은 통치의 진공 상태로 남겨졌다. 응당 이러한 권력의 공백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에는 남부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베트민의 저항망에 의해 급속히 채워졌으나, 제네바 회의가 남베트남을 비-공산주의 지역으로 지정하자 베트민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1956년 지엠이 농촌 지역에 숨어 있던 베트민 저항 요원들을 뿌리 뽑는 일에 집중하자 이 저항운동망은 오히려 더욱 더 확대되었다. 하노이에 있는 북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첫째 지엠과 미국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협상할 의사가 없음과, 둘째 미국은 지엠 정권이 붕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과, 셋째 남베트남에서 현지 저항망이 지엠 정권에 대항한 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자, 1960년 남베트남 국가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or South Vietnam, NLF SVN, 일반적으로 ‘베트 콩’ 또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조직)의 지도 하에 남부정권에 대항하는 전면적인 ‘민족해방’ 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했다.

남베트남의 전복을 막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미국은 북부 정권이 남부 저항 운동에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자마자 원조를 더욱 늘여 나갔다. 그러나 미국은 북부로부터 유입되는 요원과 물자로 무장한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저항운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남부 정권에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원조가 증가하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특히 1963년 중반에서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엠 정권의 내부 정치 문제에 점차로 더 연루되게 되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지닌 문제는 프랑스에 의해 창출되었던 국가의 본질에 있다기보다 지엠과 그 가족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지엠 정권이 1963년 11월 미국의 묵인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축출당한 후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안정을 되찾기는커녕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남베트남이 위기에서 위기로 전전할 때마다 군사 원조와 개발 원조가 쏟아져 들어갔으나, 이 원조는 북베트남에서 호찌민 루트를 따라 남부로 내려오는 군인과 무기 때문에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1964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 행정부는 먼저 호찌민 루트를 그리고 나서는 북베트남에 있는 주요 표적을 직접 겨냥한 폭격을 계속 단행해 이들이 남부의 반도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갔다. 그러나 1965년 초가 되면 미국이 전투 부대를 직접 투입하지 않는 한 남베트남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1965년을 통해 미군의 파병이 증강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의] 단계적 확대’의 과정은 미군의 전략이 주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전략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작전’으로 옮겨감에 따라 절정에 달했다.

1954년 6월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이 베트남국가(이제는 남베트남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수상이 되었다. 1954년과 1956년 사이 지엠은 미국의 상당한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했다. 그러나 1956년에서 1960년까지 남부에 남아 있던 구 베트민 세력은 다른 반체제론자들과 함께 지엠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1960년과 1963년 사이 이 정권에 대한 원조를 십분 증가시켰으나, 1963년에 이르러 남부에서 상황의 호전을 막는 최대 방해물은 지엠정권 자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3년 11월 지엠의 암살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악화되었다. 지방에서 반란은 확산되었으며 사이공에서는 단명한 민간 정부와 함께 군사 위원회도 자주 바뀌면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1964년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오스에 있는 ‘호찌민 루트’와 북부 자체를 겨냥한 폭탄 공격을 확대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북부로 하여금 남부 반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케 하고 그럼으로써 남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5년 초가 되어 직접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남베트남을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고 1965년 말에 이르러서는 약 150,000 미군이 남베트남에 파병되었다.

버나드 폴은 학자이자 기자로 이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 역사가들의 행운은 사건이후에 현명해 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참으로 사건이후에 이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은 역사가의 몫이다. 버나드 폴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의 논문에서 그는 미국과 남베트남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 마을과 촌락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을 잘 파악하고 있다. 1965년 2월에 발표된 국무성의 ‘백서’(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공식문서)는 1954년 이후 남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물론 이 백서는 북부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정당화하고 남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해석을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의 대베트남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미군이 중국 국경 근처에

다다르자 중국 군대는 대규모로 개입했다. 만약 미국이 직접 북베트남을 침입하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1958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전 기간을 통해 중국은 극단주의적 반-서구 이념을 가진 예견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간주되었다. 이 기간 중 미국이 세계적인 ‘악마’로 지목한 나라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읽기1: 베트남 갈등의 근원(Bernard B. Fall, 'The Roots of Conflict' (January 1965), in B. B. Fall, *Vietnam Witness 1953-1966* (London: Pall Mall Press, 1966). Excerpts taken from pages 275-92.)

읽기2: US Department of State, 'White Pap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839, February 1965). 남베트남에 대한 하노이의 침략 약사/ 북베트남: 남베트남 정복을 위한 기지/ 잠입경로/ 결론

(4) 역설: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배

전쟁이 베트남에서 기승을 부리고 라오스로 그리고 나서 1970년에는 캄보디아로 확대되었던 1965년-1975년 기간에 동남아시아의 ‘안정’이라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까? 1960년대 말 미국은 이 전쟁이 당장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혁명적인 전복활동을 견제하는 ‘피뢰침’의 역할을 하리라고 단언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베트남에 직접 개입하게 된 1965년의 시각은 아니었다. 미국의 군관료들은 일단 자신들이 전적으로 개입하기만 하면 자신의 군사적인 의지를 강제하고 남베트남에서의 소요사태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미국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베트남 정책을 입안할 때 ‘낙관적인’ 혹은 ‘비관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남베트남에 개입하고, 급기야 전쟁을 접수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분명히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 취해진 임시방편의 미봉책들이 쌓인 결과인지?

이 기간 전체를 통해 대베트남 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선택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제한했던 두 가지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편 어느 당이 집권하던 미국 행정부는 1949년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완패(debacle)를 기록할 수는 없었다. 다른 한편, 1950-53년 사이 한국전쟁에서 피비린내 나고 값비싼 군사적 공지를 경험한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의 지상전에서, 특히 이길 수 없는 중공과의 군사적인 대치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책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린든 존슨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언제나 베트남 분쟁의 전략적인 차원에 엄격한 제한, 예를 들어 북베트남, 또는 전략적으로 심장 지역인 동부 캄보디아와 남동부 라오스에 대한 공격이나, 소련 군사 원조의 주요 통로인 하이퐁에 대한 직접 폭격과 같이 특히 중국의 개입이나 소련의 보복을 초래하여 확전의 양상을 띠게 할 수도 있는 작전을 자제하는 제한을 두었다. 어찌 보면 북베트남에 대한 맹렬한 폭격 통상은 제한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전략적 자기-제한을 별충하기 위한 방도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논리상으로는 ‘승리’를 향해 가지 않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목적을 향해 가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1967년에 이르러 이 전쟁이 본질상 ‘이길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한층 더 명확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의 범주를 확대해야 할 달갑지 않은 위험도 증가하자 비관주의가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으며 행정부의 사고를 전염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1967년까지는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이 지도하는 남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되었음도 사실이다.

1967년 말에 가서는 이 전쟁에 대해 심각한 장기 의혹이 수물거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점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노선은 계속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1968년 1월말 베트남 신년 휴일(Tết) 동안 북베트남과 남부의 반정부활동가들은 중요한 공세를 취했다. 이 뗏공세는 기본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사기를 꺾고 그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은 대규모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군사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공세는 바로 대통령선거의 시작에 미국 여론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했다. 이는 또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비관론을 공론화시켰으며 굳어지게 만들었다.

1968년에는 베트남에 파견되는 미군의 숫자에 상한선을 그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함께 그 해를 걸쳐 북베트남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된 폭격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탈-가속화’를 가져올 요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전과 남부에서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고자, 파리에서 회담이 시작되었다.

미군은 이 전쟁에 전념해야 할 최고치를 남베트남 군대가 점차로 더 많은 군사적인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정해진 새로운 정책, 사실 1965년 전 상황

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황을 만드는 데까지를 미국이 해야 할 상한선으로 잡았다. 이 정책은 1969년 미국은 실상 분쟁 지역에서 우방국을 ‘대신한다’기 보다는 ‘뒤에서 민다’는 세계 정책을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과 전쟁의 베트남화 즉 미군이 하던 최전선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군대를 훈련하고 무장하는 데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닉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인 1969년에서 1973년 사이 그와 외무정책 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목적은 이 전쟁을 협상으로 타결 짓는 한편 동시에 미국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다고 보여 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여론의 따지고 물음이나 압력을 따돌리고 북베트남의 지도자들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이들 정책의 초점이었다. 그리고 ‘베트남화’ 계획과 지방에서 ‘평정 작업을 강화’함으로써 남베트남 정권을 더욱 강하고 더욱 자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남베트남을 강화시키려는 이 정책에는 미군의 군사적인 후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1969년과 1972년 사이 군사력은 더욱 결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까지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이전에 민주당 정부를 제약했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속박까지도 벗어버렸다. 1969년 캄보디아와의 국경선을 따라 있던 북베트남인과 민족해방전선의 은신처는 체계적으로 폭격을 당했다. 1970년 봄 미국-남베트남 합동 ‘침입’은 캄보디아 내지에 있는 이들 피난처에도 미치게 되었다. 1971년 남베트남 지상군이 호찌민 루트를 봉쇄하기 위해 남부 라오스로 진입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1972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여러 목표지점 중에서도 특히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량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남베트남에 대해 미국이 이토록 군사적인 헌신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여주었음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가 군사적인 선택권을 다한 1973년 초에는 하나의 전기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달가워하지 않는 남베트남 정부의 동의를 받아 정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남베트남 내부에서는 ‘배치가 끝난’ 휴전상태가 될 것이며 *사실상* 공산주의자 지역과 정부 관할지역이 어우러진 국가 수립에 동의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남베트남 정부 간에 정치적인 협상 타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장치들이 동원되었지만 미국이 얻어낸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남베트남 정권은 여전히 온전시켰다는 점이었다. 북베트남이 협상을 통해 얻은 주요한,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는 미국은 군사적인 철수를 마무리할 것임에 반해 북베트남의 군대는 여전히 남베트남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동의에 기초하여 미국은 1970년대 초에 진전된 복잡한 세계정세

라는 맥락에서 특히 중소의 대치로 인하여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된 분쟁 지역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 때에 이미 전쟁은 북과 남의 베트남을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호찌민 루트와 자르 평원(Plain of Jars) 같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가차 없이 폭격을 가함에 따라 라오스를 영구적인 내전의 상태로 운명지우고 있었다.

(5) 캄보디아 비극의 기원

1970년까지 시아누크 왕은 수도 없이 많은 안정화 정책을 동원하여 캄보디아에 일정정도 안정을 유지했다. 그는 서구와 공산 블록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는 북베트남과 중국에 ‘기대고’ 있었으며, 캄보디아 내부에서 남베트남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은신처’를 모르는 척 눈감아 주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결국 공산주의자 진영이 베트남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적으로 그는 친-서방 우익과 크메르 공산주의자 또는 ‘크메르 루즈’를 포함하는 좌익 집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그의 정권을 불안하게 하려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수카르노처럼 상당히 개인화된 정부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초에 그의 상투적인 수사어구는 민중적이고 반-서구적인 색채를 점점 더 띠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이 정권을 함께 묶어 놓고 있었던 실이 풀리기 시작했다. 행정부에 있던 우익 엘리트와 군대는 1970년에 시아누크를 추방했으며 ‘크메르 공화국’을 건설했다. 이 새로운 정권이 중립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친-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북베트남과 중국은 크메르 루즈를 무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했다. 캄보디아는 이후로 1970년에서 1975년까지 계속된 내전에 휘말려 황폐되었으며, 이 폐허로부터 이 나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6) 베트남 전쟁의 전환점: 1968

1968년 1월 31일 베트남 신년(Tết) 휴일 동안 민족해방전선(NLF)과 북베트남은 합동으로 사이공과 남베트남의 지방 수도에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 공격은 격퇴 당했고 남베트남군(ARVN)은 강경했으며 민족해방전선(NLF)은 197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공세는 1967년을 통해 미국에서 축적되어 왔던 그리고 사적이기는 하지만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에 의해 표명되기까지 했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을 결정화시켰다. 미군의 참여가 1973년 초까지도 계속되기는

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뗏공세는 이 전쟁의 전환점이었다.

아래의 두 요약문 가운데 첫 번째는 헨리 키신저가 쓴 1968년의 논문에서 발제한 것이다. 이는 뗏공세까지의 미국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대가답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버나드 폴이 초창기 논문에서 (8장 참조) 밝힌 논점을 다른 시각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뗏공세 직후인 1968년 3월 1일 맥나마라를 이어 국방장관이 된 클라크 클리포드(Clark Clifford)의 글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예전에는 ‘매과’였다가 뗏공세 이후 베트남 정책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다보니 베트남에서의 기존 정책 방향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그리고 더욱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왜곡하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미국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로 돌아선 사람의 이야기이다.

뗏공세가 의심할 여지없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지만 전쟁의 방향성에 관한 의혹은 1966년과 1967년 두 해 동안 의회, 방송매체, 학계 그리고 심지어는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불거져 나오고 있었다. 뗏 공세의 중요성은 ‘논쟁의 균형을 비둘기파’에게 유리하도록 옮겨놓았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1968년 3월과 1969년 1월 사이 존슨 재직 시절의 정책과 이를 이은 닉슨의 재임 시절의 정책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전쟁을 ‘베트남화’시킨다든지, 협상으로 강조점을 옮긴다든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특히 공군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시 초점을 맞춘 닉슨의 정책은 클라크 클리포드의 논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읽기1: 베트남 협상(Henry A Kissinger, 'The Vietnam Negotiations',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ree Essays*(New York: Norton, 1969). Excerpts taken from pages 101-8.)

읽기2: 베트남 문제에 대한 재검토(Clark Clifford, 'A Vietnam Reappraisal', *Foreign Affairs*, Vol. 47, no. 4 (July 1960). Excerpts taken from pages 609-22.)

6. 베트남의 통일, 중월전쟁 그리고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1) 인도차이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승리와 그 영향

역설적이게도 이 새로운 동남아시아 시대는 맑스-레닌주의가 마침내 인도차이나에서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시점에 굳건해지고 있었다.

1973년에 체결된 인도차이나 정전협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첫째 라오스와 남베트남에 있던 비-공산주의 정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주둔을 철폐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앞으로 인도차이나에 있는 비-공산주의 정권들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재도입하여 도와주지 않는 한 군사적 균형은 공산주의자 쪽으로 기울 것이 자명했다.

캄보디아에 관한 한 크메르 루즈가 1973년 정전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크메르 루즈와 크메르 공화국 간의 내전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되었고, 1973년 여름 이후에는 비-공산주의자 측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이는 미국 의회가 폭격 지원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했다. 또한 정전 협정의 거부는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라오스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강경하고 교조주의적인 크메르 루즈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와 정책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초기 징후였다.

1974년에 이르러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더욱이 정전은 남베트남 정권이 공고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하여 1975년 초에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이 개재되었다. 이때쯤 미국은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이를 이어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야기된 국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경험으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남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1975년 3월 북베트남이 중부 고원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남베트남 정권은 처음에는 중부 고원지대에서 그리고 나서는 북부와 중부의 해안 지방에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이공과 메콩 델타에서 무너졌다. 4월말 남베트남 국가는 사라졌다. 라오왕국정부도 베트남에서의 이러한 사건을 이어 급속히 붕괴되었다. 1975년 봄에 캄보디아의 내란 또한 4월 17일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을 점령함으로써 피할 수 없고 무시무시한 종결에 이르렀다.

남베트남의 극적인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 왔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반-공산주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의해 창설된 이후로 ‘민족주의적인 정통성’ 이라든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립적인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4년 이후 이 정권의 생존은 미국의 지원이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생명유지 장치의 플러그가 빠지는 순간 이 정권의 붕괴는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3년 동안이나 동남아시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분쟁이 끝나게 되었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는 수년 간의 투쟁과 인내를 보상받은 멋진 승리였다.(『비전과 승리: 1975년의 베트남 참조) 그러나 인도차이나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는 나머지 동남아시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크메르 루즈의 지나침, 특히 프놈펜을 강제로 소개한

사건은 이들 새로운 공산주의자 국가들의 성격에 관해 안도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베트남과 라오스의 공산당들이 초기에 보여준 성명과 행동은 회유적이고 유화적이기는 했어도 1975년 이후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는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강제 프로그램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해서 인도차이나는 여타의 동남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노선을 취하고 있음이 명확했다. 분명 이들 정권들은 예견이 가능한 장래 동안에는 국내 재건 사업에 몰두할 것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에 내재되어 있는 팽창주의적인 동력에 더하여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분쟁을 무장력(‘투쟁’)으로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의 성향은 인접 국가들에게는 최소한 불편함으로 그리고 최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아래는 베트남공산당(이전 역사에서는 인도차이나공산당으로, 이후에는 베트남 노동당으로 알려진)의 당시 총서기 레 두안(Lê Duẩn)이 1975년 봄 남베트남이 무너진 후에 한 연설이다. 원칙적으로(technically) 승리는 1969년 인민혁명 정부(People's Revolutionary Government, PRG)를 구성했었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or South Vietnam, NLF SVN)의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의 공산주의자들이 남부의 반란자들에게 단지 ‘형제의 우애에서 비롯된 지원’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공들인 외관과, 베트남의 통일은 북과 남의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울은 상당히 빨리 제거되었으며, 베트남은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1945년 8월혁명에서 호찌민이 처음으로 잠시 성취했었던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이제 마침내 확보된 것이었다.

1975년 베트남, 정확히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의 승리는 싱가포르의 외무장관 라자라트남이 몇 년 전에 예견했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했다. 아래의 연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베트남 지도자들은 이 승리를 세계 공산주의 운동 전체를 향한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원칙을 위한 진일보라고 보았다. 미국 제국주의는 베트남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후퇴한 것으로 보였다.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소련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고도로 모험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었음은 현대 국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중의 하나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돈을 낭비했으며 이념적인 충성밖에는 소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제3세계 정권을 지지하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를 흘렸다. 1975년 인도차이나에서 있었던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오만과 폭력을 고무시켰으며, 이는 다시 1980년대와 1990년의

인과응보(nemesis)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

연설에서 레 두안은 남베트남인에게 미국 제국주의의 부패한 잔재를 말끔히 청산한 새롭고 빛나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약속했다. 사실 미국은 남베트남 국가를 유지시킬 수 없었지만 남베트남 정부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지역에 전쟁으로 생성된 근대적인 도시 경제(modern urban-enclave economy)를 창출해냈다. 남베트남의 도시 인구는 자본주의를 아는 지식의 나무(Tree of Knowledge of capitalism)에서 열린 열매를 맛보았으며, 계속되는 십년 동안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에 통합될 수가 없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만큼이나 문화적인 차이는 통일된 베트남이 이후로 계속 지고 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연설에서 레 두안은 인도차이나에 있는 세 개의 사회주의 정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권 간에 우애관계가 강고히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3년 반 이후에 이들 정권들은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레토릭 저변에는 1975년 스파르타식으로 완전 무장된 베트남과 ‘해방된’ 시민들은 국내외의 전선 모두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다.

읽기: 미래를 위한 전진(Le Duan, 'Forward to the Future'. Extract from victory speech given on 15 May 1975, in Le Duan, *Selected Writing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7). Excerpts taken from pages 527-40.)

(2) 공산주의자들의 내과

사실 인도차이나의 공산주의자 정권은 1975년 이후 군사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들의 폭력은 외부에 있는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기보다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겨누어졌다. 1975년과 1978년 사이에 있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권간의 대립은 역사적,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팽창주의를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 ‘후원자들’에게 기대려는 성향을 가졌다. 식민시대에 프랑스는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을 충족시켜 주었다. 1954년 이후 시아누크는 점차 공산주의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다. 1970년에서 1975년까지 지속되었던 운이 나빴던 크메르 공화국은 미국에 의존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는 시아누크처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연계는 크메르 루즈, 또는 그 내부에 있는 가장 유력한 파당이 국내와 국제 문제 모두에서 ‘모택동’(마오 쩌 퉁) 노선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마오이스트 노선은 구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 구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한 캄보디아의 역사적인 두려움은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적인 두려움과 쌍을 이룬다. 1949년 이후 두 나라의 정권이 모두 공산주의적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의혹은 1945년 이후의 시기에도 언제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베트남과 중국의 공산당간에 있었던 균열은 북베트남이 중국의 마오이스트 노선을 따르지 않고 소련의 이념적이고 국제적인 ‘노선’을 따른 1960년대에는 이념적인 차원을 하나 더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탈식민화되어가고 있던 세계에서 소련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이 베트남-소련 축과 중국-캄보디아 축으로 해서 생성되었음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1977년과 1978년 국경지대 사건이 확대되던 중에 크메르 루즈 정권 내에서도 내부 불화는 점증하고 있었으며, 결국 1978년 12월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환시켰으며 베트남과 중국 간의 짧은 국경 전쟁이 뒤를 이었다. 1978년과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발 빠르게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설치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베트남의 타고난 팽창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75년 4월 크메르 루즈 혹은 캄푸치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Kampuchea, CPK)은 미국이 지원하는 크메르 공화국에 대항한 5년간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의 적이나 계급의 적 혹은 민족의 적이라고 간주된 모든 이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고 3년 반 간을 집권한 소름끼치는 정부가 들어섰다. 폴 포트 정권은 극단적으로 외부의 것을 싫어하는 고립주의와 단순화된 형태의 마오이즘을 결합한 이데올로기를 발판으로 했다. 이 이데올로기는 모든 ‘봉건적’이거나 ‘부르조아적’인 흔적을 말 그대로 말소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가를 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도그마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크메르 루즈 정권에 내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인접국가들과도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1978년 말 이러한 대결 국면은 민주 캄푸치아(크메르 루즈가 자신들의 정권을 불렀던 이름)와 새로이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전면전으로 발전했다. 베트남이 곧바로 승리했으며 헝 삼린(Heng Samrin)과 다른 반체제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정권,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PRK)이 들어섰다. 중국은 1979년 2월 자신의 동맹자인 크메르 루즈와 함께 베트남에 보복하기 위해 북베트남 국경 지대에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은 반격을 받았으며 제대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의 적군은 약체를 드러냈다.

이 지역과 너머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베트남이 우세를 점하는 공산주의 인도차이나를 만들어내려는 베트남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로 간주했다. 이러한 우려에 더하여 베트남이 소련과 전략적이자 이념적인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베트남의 팽창은 바로 소련의 힘을 이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킴을 의미하리라는 걱정과 연결되었다. 1978년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막강한 비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성립되어 베트남과 그 대리인인 소련의 야심을 제어하려고 했다. 베트남이 지원한 캄보디아 정권이 1980년대를 통해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 베트남으로서는 군사 점령을 계속하는 데에 드는 커다란 부담에 더하여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소련이 그 세계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감에 더하여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상황은 이 날 이후 국제연합이 주요 정치 야당세력들 간의 타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제화’되었다.

더 읽기: 전쟁와중에서의 붉은 형제애: 사이공 함락 이후 인도차이나 (Grant Evans and Kelvin Rowley, *Red Brotherhood at War: Indochina since the Fall of Saigon* (London: Verso, 1984). Excerpts taken from pages 281-95.)

보론: 베트남난민, 보트피플과 한국사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부산을 거쳐 국내에 정착했거나 제3국에 재정착했던 약 3,000명에 이르는 베트남 “보트피플”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에서 변화시켰다. 가장 먼저는 “교훈” 내지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들을 3방향 모두에서 활용했다. 즉 베트남 난민은 대외적으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 북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고발,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총화와 질서 확립에 동원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신체제와 신군부세력을 옹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이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미 예상이 가능하거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보다 더 중요하지만 덜 알려진 사실은 우리가 베트남 “보트피플”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고 논의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당시 한국 지성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행동주의 혹은 실존주의를 통해 그리고 특히 사르트르를 통해 지식인들은 베트남난민과 함께 인도주의를 논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산난민보호소의 베트남난민이 우리의 의식을 뚫고 들어오는 방식을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정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부산난민보호소의 “보트피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직접적이라고 보다는 자아의 타자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머무르고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작동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정권 차원에서의 3가지 활용도, 지식인 차원에서의 인도주의 논의도 모두 미디어를 통해 발신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인식과 시선에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난민은, 특히 정착한 난민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가지게 만든 이들이며, 우리의 단일 민족론, 혈연중심 사고에 도전하는 첫 케이스였다. 그들이 준 도전을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성찰, 그리고 현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은 베트남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특히나 베트남난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나 작품 등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라 함은 다큐를 포함해 사실성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베트남난민의 삶을 조명하는 시각이라면, 작품이라 함은 논픽션으로 영화, 연극, 소설, 드라마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이야기는 신문과 다큐가 베트남난민들에게서 본 것이다. 다큐에는 “베트남전쟁, 그 후 17년”, “전장에서 보내온 시”, “베트남에서 온 편지” 등이며, 신문은 1975년에서 1993년 베트남난민을 다룬 주요 일간지 기사가 해당된다. 영화와 연극은 “처녀 아리랑”, “제3의 신”, “사랑 그리고 이별” 등이며, 비교를 위해 “알라모의 총성”, “선택의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참고한다. 소설과 드라마는 해양작가 천금성씨의 소설집 “이상한 바다”, 오현미의 장편서설 “붉은 아오자이” 그리고 이를 드라마한 “빨간 아오자이” 등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무기의 그늘”(황석영), “머나먼 송바강”(박영한), “하얀전쟁”(안정효), “랍스터를 먹는 시간”(방현석), “사이공의 슬픈 노래”(하림), “슬로우 볼릿”(이대환), “애별”(구효서), “선생과 황태자”(송영) 그리고 번역소설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반레)”도 참고하기 바란다.

상생을 위한 일본사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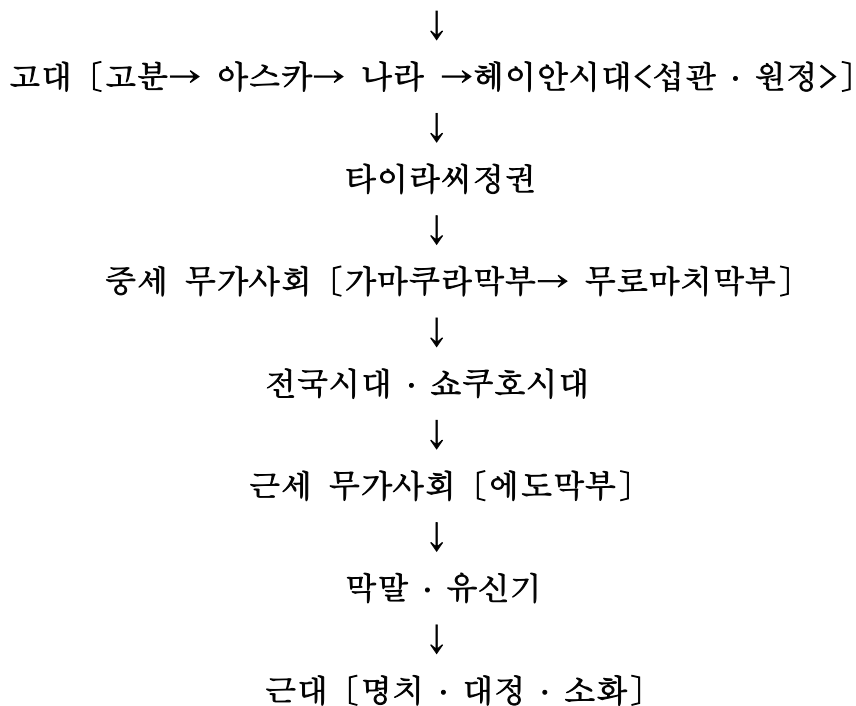
- 막말 · 명치초기사 -

이원우(동북아역사재단)

■ 시대구분

1. 原始-古代-中世-近代-現代: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로 소급.
2. 平安時代, 鎌倉時代, 江戸時代: 정치의 중심지를 기준.
3. 繩文時代, 南北朝時代, 戰國時代: 시대의 특징.
4. 元祿時代, 明治時代, 大正時代: 연호를 중심.

■ 원시 [先土器時代 (無土器時代)→ 죠몬시대→ 야요이시대]



I. 전국시대(하극상(下剋上)의 사회)

1. 오닌(應仁)의 난

- 쇼군의 무기력화와 양관령가(斯波·畠山)의 내분, 細川氏와 山名氏의 대립 -應仁의 난(1467년-1477년)에 막부, 전국의 슈고, 고쿠진, 장원영주, 농민 등이 휘말림-막부의 몰락.

2. 센코쿠 다이묘(戰國大名)의 형성

- 오닌의 난후 약100년간, 전국이 군웅이 할거하는 전국시대로. 오닌의 난으로 대부분의 슈고다이묘가 몰락, 슈고의 가신이나 고쿠진층이 신흥의 센코쿠 다이묘로 등장.
 - 관동의 北條氏(早雲), 에치고(越後)의 長尾氏, 가이(甲斐)의 타케다(武田)氏, 今川氏, 織田氏, 齋藤氏, 毛利氏 등등.
- 센코쿠다이묘 영국의 구조(分國法 등)-막부권력에의 의존성 일소. 영내의 절대권력 행사. 가신단에의 엄격한 통제. 농민에의 엄격한 통제. 신전개발, 치수공사, 광산개발, 죠카마치(城下町)의 번영. 영내의 도량형의 통일.

II. 쇼쿠호(織豊)정권의 성립

1. 織田信長の 통일사업

- 오다씨는 무로마치막부의 관령인 斯波氏의 슈고다이로서 尾張일국을 지배. 1560년 오케하자마(桶狹間)전투(今川義元 격파), 三河의 德川家康와 동맹, 美濃의 齋藤氏멸망, 1568년 上洛-足利義昭(15代)장군옹립. 義昭-오오미(近江)의 淺井-越前の 朝倉격파,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랴쿠지(延暦寺)를 불태우고 1573년 義昭추방(무루마치바쿠후의 멸망), 나가시노(長篠)전투에서 타카다가(武田家) 격파, 石山本願寺를 굴복, 1582년 타케다씨를 멸망, 1582년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에 암살 당함.
- 노부나가의 업적
 - 檢地(指出)의 실시, 城下町를 중심으로 한 가신단의 편성, 樂市樂座에 의한 상업의 장려, 집단철포대의 편성 등.

2. 豊臣秀吉의 천하통일

- 1585년 關白, 86년 태정대신. 豊臣姓하사 받음.
- 빗쥬(備中) 高松城의 毛利氏와 화평, 아케치, 柴田勝家, 노부나가의 자식들 굴복,

1590년 오다와라(小田原)의 後北條氏와 동북지방의 다이묘들을 복속시켜 천하통일.

- 히데요시의 업적과 멸망-太閤檢地, 카타나가리(刀狩)令, →1591년 신분통제령, 주요광산의 직할령, 堺 등의 자치도시에 통제강화. 두차례(1592, 97)에 걸친 조선침략과 사망(1598).
- 히데요시 치하의 통치조직과 정책-5大老(최고정무기관), 5奉行(행정, 사법, 재무 등 실무), 천황(조정)의 권위 이용(1588년 류라쿠테이<聚樂第>에서의 맹세의식 등)
- 쇼쿠호(織豊)정권의 성격-장원제적 지배관계의 최종적 청산, 통일적인 농민 지배와 연공수취제의 확립/ 병농분리/ 국내경제의 정비와 통제→소농민(직접 경작자)을 자립시켜 봉건영주가 직접장악 하려는 것.

Ⅲ. 근세무가사회의 성립과 일본적 사회의 형성

1.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성립

-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
 -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1603년 征夷大將軍, 開府, 1614-5년 오오사카 전투(大坂의 陣) 토요토미씨 멸망.
- 바쿠후(幕府)의 조직
 - 3代 家光시대에 정비(중앙-지방, 직할도시 등 설명)/天領은 代官에, 직할도시는 奉行에 의해 다스려짐.
- 막번체제와 다이묘·조정·사원·신사의 통제
 - 1615년 一國一城令, 1635년 부케쇼하토 (武家諸法度)(參觀交代制), 改易, 轉封, 朱印狀, 화폐주조권, 1615년 禁中方御條目17箇條<소위 말하는 禁中竝公家諸法度>, 諸宗寺院法度·寺請制度<檀家制度>, 諸社禰<네>宜神主法度 등. cf. 祝<はふり>-禰宜-神主
- 농민 통제
 - 바쿠후와 번은 所領의 지대에 의존. 本百姓과 水呑百姓→村役人(名主, 組頭, 百姓代)/촌락자치조직으로서 五人組제도, 연대책임. 本途物成(쌀)와 小物成(잡세), 1643년 田 疔永代賣買禁止令, 1649년 諸國鄉村被仰出三十箇條<慶安[2년]御觸書>(경작관계·의식주·부부관계 규정 등. 철저한 절약과 권농을 장려), 1673년 分地制限令/ 상호부조조직 유이(結)와 무라하치부(村八分).

◦ 신분제도

- 士(전인구의10%. 묘지<苗字>, 帶刀등)·農(80% 정도)·工·商(초닌<町人>7%. 運上金, 冥加金. 地主, 家持<야누시>, 店借, 地借)-각각의 권리, 의무 설명. / 기타로 公家·승려·神官/穢多, 非人 등.

◀ 전 신분을 막론하고 이에(家)제도가 일반적이었으며, 가업에 충실하고 주군에 충성을 하는 것이 사회적 덕목으로 되어 있었음.

◦ 朱印船무역

◦ 기독교의 금압

2. 幕藩體制의 전개

◦ 1代 이에야스-3代 이에미츠: 무단정치

◦ 4代 이에즈나(家綱):문치주의로의 전환

- 바쿠후체제의 안정, 로닌 등의 사회문제, 상품경제의 발달로 무사의 경제적 빈곤과 농민의 반항 등. 무단주의를 바꾸어 법률,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바쿠후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로닌을 관리로 등용, 순사금지, 말기양자제의 허락, 유학장려 등.

<호시나 마사유키(保科正之), 사카이 타다키요(酒井忠清)가 정무담당>

◦ 5代 츠나요시(綱吉):<타테바야시(館林藩)번주>

- 타이로의 임명(훗타 마사토시<堀田正俊>), 다이묘의 카이에키 등을 통한 전제정치를 강화. 유학자 등용 등 학문을 진흥, 소바요오닌 정치<柳澤吉保>, 대사원의 조영 등으로 재정압박, 화폐의 개악으로 경제혼란, 물가급등, 하급무사와 서민의 생활 위협, 쇼루이아와레노레이(生類憐の令, 1685년 승려 隆光의 건의에 의해)는 서민들의 원성을 삼. ◀元祿정치

◦ 6代 家宣(이에노부)·7代家繼(이에즈구)의 쇼토쿠(正德)의 治

- 유학자인 新井白石(木下順庵의 제자)는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형식화된 문치주의를 적극적인 문치주의로 대체. 화폐를 고품질로 재 주조, 나가사키 무역을 제한하여 금은의 유출을 방지, 조선통신사의 대우를 간소화, 바쿠후의 의식, 典禮를 정비하여 장군의 권위를 높이고, 閑院宮家を 설치, 勘定吟味方을 설치하여 勘定方의 부정을 바로잡고 풍속윤리를 바로잡아 봉건체제의 유지를 도모. 그러나 아라이의 정책은 막정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함. 학자로서 이름이 높음.

3. 막번체제의 동요와 정치개혁

1) 재정의 궁핍과 농촌의 변화

- 상품경제 발달
 - 바쿠후, 번의 재정 궁핍, 도시인구의 증가
 - 물가상승, 쌀값이 상대적으로 하락. 무사사회의 경제 궁핍. 농민들 사이에도 빈부격차 발생
 - 농민의 계층분화, 봉건적 지배체제의 기초가 흔들림.

2) 쿄호(享保)¹⁷¹⁶⁻¹⁷³⁶개혁 - 일시적으로는 성공, 재정도 안정세를 보임.

- 1716년 8대 장군으로 德川吉宗가 등장-바쿠후 창업기를 모델로 하고 장군 친정을 함.
- 근검, 절약, 무예장려. 相對濟令(借金銀出訴不受理令)·足高制度·目安箱設置.
- 公事方御定書を 편찬-재판의 기준.
- 上米^{あげまい}制, 定免^{じょうめん}法(←檢見法), 신전개발<초년의 신전개발도 허용>
- 실학 장려, 漢譯洋書の 수입허가.

cf. 9代 家重 (이에시게)

3) 농민의 저항(百姓一揆)

- 에도시대의 3대기근 - 享保, 天明, 天保년간의 기근.
- 산업의 장려와 상업자본의 급속한 침투→농촌의 빈부격차, 농민의 해체. 연공부담의 증가와 흉년→연공감면 등 요구, 농민의 저항과 봉기.
- 농민의 저항은 초기에는 直訴나 도망이 주류. 이 시대부터는 힘에 의한 저항이 주가 됨. 몰락한 농민의 도시유입-쌀값 폭등, 도시(에도, 오오사카 등)에서의 약탈, 파괴 등(打毀し)→막번체제의 기초가 흔들림.

4) 타누마(田沼)정치

- 10대 장군인 家治(이에하루)시대에는 로주인 타누마 오키츠구(田沼意次)와 오키모토(意知)가 바쿠후의 실권을 장악.
- 타누마 정치의 핵심은 적극적인 식산흥업정책. 오오사카나 에도의 거상을 이용한 대규모의 신전개발, 동, 철, 인삼 등의 전매제→특정상인, 이들에게서 運上金(일종의 영업세)징수. 株仲間승인→運上金, 冥加金(일종의 현금)징수. 간척, 광산개발, 농민에게 부업 장려 등. 해외무역-俵物(말린 해삼, 전복, 상어지느러미 등)
- 뇌물의 횡행과 정치의 문란, 텐메이(天明, 1781-88)의 대기근 등으로 농촌과 도시 하층민의 빈궁, 농민의 반항과 저항. 타누마 정치의 종언(1786).

5) 칸세이(寬政)개혁

- 11대장군 家齊(이에나리)과 마츠타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사다노부는 8대장군 요시무네 의 교호 개혁을 모델로 바쿠후를 개혁 (칸세이<1789-1801> 개혁).
- 철저한 검약생활, 화려한 풍속 규제, 상업자본의 발전 억제, 농촌의 부흥을 꾀함. 도시의 농민에게 귀농장려, 社倉과 義倉설치, 棄捐令(1789), 닌소쿠 요세바(人足寄場)설치 - 부랑인의 사회교육 등.
- 주자학을 정학으로 그 이외의 학문은 異學으로 규정(寬政異學의 禁), 林子平의 처벌(海國 兵談), 출판이나 풍속의 단속 등

6) 텐보(天保)개혁

- 텐보기(1830-44)의 대기근과 오오시오 헤이하치로(大鹽平八郎)의 난(1837년).
- 1841년 미즈노 타다쿠니(水野忠邦)에 의한 개혁. 교호, 칸세이의 개혁을 모델로 함.
- 미즈노 개혁의 핵심은 상업자본의 억제와 자연경제로의 회귀. 근검절약, 물가 인하령, 풍속 단속령, 棄捐令, 귀농령, 株仲間의 해산(1841)과 재흥(1851)
- 上地令(1843)의 실패와 막부권위 추락. 타다쿠니의 실각.

<참고>

◆ 近世後期(18c)의 構造

- 근세의 일본국가-公儀와 禁裏라는 2개의 중심과 200수십 개의 소국가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를 가짐. 통치신분과 피 통치신분이 태어나면서 구분된 사회.
- 「幕藩制國家」, 「幕藩體制」, 幕府, 藩, 朝廷라는 용어는 막말에 시작해 명치시기에 정착한 호칭.

1. 大名의 「國家」

- 다이묘의 국가는 근세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전국 石高의 약3/4를 차지. 家臣團의 편성, 입법, 징세, 재판, 민정일반 등 自分仕置함. 영내의 주민은 다이묘의 「家中」과 피지배자인 「地下」(庶民)로 2분.

① 기본구조-官僚化와 身分制

- 다이묘와 家中은 主從制-주인과 종자의 관계. /군역, 국가의 관리(役人), 통치업무, 다이묘에 奉公 /고온(御恩)-오메미에(御目見)라는 의식/ 지가타

찌교(地方知行)-상급가신-와 藏米知行-하급가신-. 藏米知行은 봉급제에 가까움. / 地方知行的 존재양태-飛地, 징세(村, 町의 자치조직이나 다이묘의 관리에 의존)의 중첩성 등. / 상급, 하급가신 공히 官僚化. /

- ° 다이묘과 家中의 관계- 기본적으로 世襲. / 다이묘로부터의 급부나 대우- 가신의 「家」에 대한 「家祿」「家格」-이러한 身分의 유지를 매우 중시. / 家中의 「家」내에서의 身分의 차가 형성. 長子, 家督, 次三男은 양카이(「厄介」), 養子로(旗本の 1/4이 양자). → 세밀하고도 강한 구속력을 가진 신분제.

② 國家組織至上主義-大名·重臣·平士の 역할변화

- ° 관료화 한 가신 단은 다이묘에 대해 매우 종속적.
cf. 중세의 사무라이와 비교. 그러나 다이묘는 전제적인 존재는 아님. 다이묘는 가신 단이 준비한 정책에 대한 권위부여의 역할을 함. 다이묘의 상징적 존재화-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지상의 가치로 여기고 가신은 물론 다이묘도 그것의 종속물로 간주.
- ° 주종제의 고정화 - 가신의 주군에 대한 忠의 질서가 강조됨. 忠과 諫爭(重臣團體)-笠谷和比古의 主君「押込」の構造. 주군의 「押込」가 불법이 아님. / 徳川公儀의 天下の靜謐정책, 御家騒動의 예방.
- ° 다이묘와 중신단체 쌍방이 소속되어 있는 國家라는 조직에 충성-人治나 法治적 요소도 적음 → 단위가 日本이 되고 충성의 주체가 일반서민까지 확대되면 내셔널리즘이 성립.
- ° 근세후기-국가와 가신 단에 변화가 생김. /신분이 낮은 사무라이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줌. /근세 초기에는 하급무사가 공을 세우면 중신의 열에 듦. / 18세기, 家格과 役職의 관계가 고정, 家格의 제한과 행정능력의 확보-하급의 무사에게 수당 지급(役料, 足高, 一代의 加増)
- ° 보다 일반적인 형상은 하급 役職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고, 役所의 장관이나 중신. 다이묘의 역할은 결재에 한정. 예) 長州에는 실질적인 결정권은 200石급의 平侍로 구성되는 政務座에, 水戸의 경우는 같은 급의 奥右筆(家老의 비서관)에. 때로는 御前會議. / 重臣會議는 오늘날의 閣議와 비슷. 원안에 권위부여의 역할.
- ° 家格과 결정권의 분리, 중신과 중하급가신의 신분적 분업은, 「祿ある者に權を與えず、權ある者に祿を與えず」로 표현할 수 있음.
다이묘입장에서는 중신의 권력을 억제기능, 중신입장에는 家格을 위협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하급가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가와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명예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음.

➔ 이 제도는 막말에 중하급무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제. 그들의 정치적 경험과 지식은 상급무사이상으로 풍부했고 중신이나 다이묘가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수반한 신분적 반감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음.

2. 中心(一)- 「公儀」

- 근세 일본에는 2개의 중심. 그 중하나가 江戸의 徳川 「公儀」 / 公儀는 오늘날의 政府에 해당하는 정부조직을 지칭하는 말. 또는 장군을 지칭. 주인은 公方, 上様./ 일본국내의 치안과 외국과의 평화유지가 임무. /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다이묘와 旗本과 주종관계 유지.

① 내부구조

- 江戸城, 表-정무와 의례의 장. 直參의 役人이 근무하는 部屋(근무실), 다이묘가 경사일(式目)에 집합하는 詰間, 中奥-公方이 일상을 지내는 장소. 나카오쿠의 야쿠닝-御小生, 오키나도御小納戸, 大奥-후궁.
- 公儀의 役人-다이묘, 하타모토(御目見이상), 家人(御目見이하), 老中(4~5인), 勘定奉行-직할지의 지배, 재판, 외교사무관리 등. 町奉行, 寺社奉行, 大目附 등.
- 결정의 시스템-長崎在住의 長崎奉行→에도의 長崎奉行→勘定奉行→月番 老中(단독 또는 합의제)→奥右筆의 「선례」 조사→관계하는 에도의 役人에 하문→답신→老中の 합의→장군의 재가.
- 公儀의 役職에는 番方=무관(大番, 小生組) > 役方=문관, 그러나 役方에서 番方로의 이동은 좌천을 의미. 祿과 權의 不整合.

② 公儀와 大名

- 공의를 중핵으로 각종의 격식으로 신분질서를 형성. / 신분관계는 에도성의 의례, 에도시중이나 街道의 대명행렬, 老中の 선임, 권력의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침.
- 다이묘의 격식은 원래 일원적도 체계적도 아닌 시간이 지나 우연히 쌓인 것. / 중요한 기준은 공의와의 관계에서 家門(徳川の 남자친족), 譜代, 外様 / 國主(外様の 대대명, 가문의 越前松平家), 城主, 萬石이상/ 관위에 의한 구분/ 에도성중의 詰間(大廣間, 帝鑑間, 溜間 등)의 구분.

◦ 다이묘의 종류와 老中人事

	家門	譜代	外様
(四位이상, 10만석이상)大大名	×	△	×
(四位미만) 小大名	×	○	△

- ▶ 權과 祿의 不整合, 막말과의 관련에서 중요-최초의 정치개혁을 요구한 것은 德川三家를 포함한 家門과 大大名の 연합체. 실력과 신분적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일본전국에 관한 정책결정에 제도적으로 排除되어 있었음.

3. 中心(二)- 「禁裏」

① 내부구조

- 내부구조, 역할. 전체통털어 10여만석.
- 일본이라는 국가, 그것의 통합성과 계속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조직.
- 即位儀式の流れ-關白、職事、上卿、公卿、陣之儀 등.

② 公儀와 禁裏

- 官位, 法度(禁中方御條目, 禁中竝公家諸法度) ← 武家諸法度
- 궁중의 재정문제, 치안문제, 禁裏付=附武家 등.
- 禁裏, 공가와 公儀와의 갈등과 협조. / 국학, 대정위임론, 왕정복고 등.
- 禁裏, 공가와 大名과의 관계.
- 松平定信가 장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에게, 「六十餘州は禁廷より御預かり被遊候御事に御座候えば、かりそめにもご自身の物に思し召すまじき御事に候」

◆ 19C의 의미

- 19세기(1801-1900)는 이전의 세기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특징은 지구상에 하나의 세계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 그 이전에는 세계 혹은 문명권이 여러 있었다. 중국세계, 인도세계, 이슬람 세계, 크리스트교세계-독자적 존재
 - 이러한 독자적인 세계가 공업력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문명에 의해 결정적으로 파괴됨.
 - 과학이라는 知의 체계가 인류세계에 침투. 철도의 발명. /공업국가군에 있어 서민 수명의 비약적 연장. 원자력과 비행기구의 등장 등(20세기).

1. 세계의 일체화-交通·輸送시스템의 변화

- 1848년1월 캘리포니아에서 사금발견(1만 4천명정도)→49년에는 약 10만 명-미국이 대륙국가로 발전하는 획기적 사건. 뿐만 아니라,
- 대서양중심의 무역·이주 네트워크가 태평양연안까지 확대- 예)캘리포니아의 인구 급증← 식량 수요의 증가, 칠레의 곡물, 멕시코의 커피와 코코아, 호주의 감자, 중국의 사탕과 쌀 등을 거래하는 무역망을 태평양상에 형성. 미국의 동부연안-유럽 등의 백인, 멕시코인, 포경선이나 상선의 선원들을 태평양건너로의 유혹, 중국인의 캘리포니아로의 대량 이민의 시발.
- 1854(安政元)년의 일본의 개국-골드러시, 미국의 북태평양 횡단항로개설 계획의 근거-(아편전쟁<1840~42年>중국시장이 목표(증기선. 뉴욕↔상해) 런던↔광둥)
- 증기선-물과 석탄 필요. 보급항 필요. 페리의 일본개국요청.(미국동해안(증기선)-남미의 최남단<혼岬>/ 미국동해안(증기선)-파나마, 철도(태평양 진출)-(증기선)샌프란시스코나 오래콘으로. 1860<萬延元>년 수호통상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도미한 일본사절은 이 반대의 코스를 거침)/1871년의 이와쿠라 사절단은 대륙횡단 철도로. 1873년 줄베르너의 「80일간의 세계일주」
- 어떤 사건(사금의 발견, 골드러시)-사건의 연쇄-새로운 시스템의 생성-세계의 일체화의 시작// 뿐만 아니라 그 하위시스템의 변화-이것이 또한 세계시스템을 변화시킴-일본에 있어서는 명치유신에 의한 일본의 변화-동아시아의 변화로.

2. 「文明」모델의 파급과 모방

① 「主權」의 秩序

- 19세기의 서양이 세계에 강요한 개념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 것이 「主權」의 원리.
- 주권이란 지고의 정치적 권위. 유럽각국>로마교황권 /주권국가란 이론상으론, 명확한 국경선, 영토, 국민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주권국가로 이루어지는 國際體系는 인류역사상 보편적인 것이 아님. 고대로마제국이나 중화제국에 있어서도 중첩적 지배가 존재. 그러나,
- 이러한 중첩적, 계층적 세계질서는 19세기에는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춤/서양의 주요제국은 條約의 締結을 통해 주권국가 아니면 속령, 아니면 보호국으로 재편함(형식상으로 대등성을 인정받은 국가는, 1875년경 유럽에 17개국, 남북 미주에 19개국, 아시아에 4 또는 5개국<조선, 청, 일본, 타이,

페르시아> 아프리카에 3개국(모로코, 에디오피아, 리베리아)

- 일본과 大清의 상반된 경우-청이 주권을 인정받은 것은 고대로부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위를 부정당하는 것을 의미. 조약국들은 大清을 中華로 인정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를 취하지 않았음. 게다가 조선, 월남, 류큐 등을 상실함. 중국으로서는 19세기가 主權의 원리를 도입해 종래의 세계 질서를 파괴당한 시기임. /일본의 경우 정반대.

② 「國民」, 「代表」, 「公論」

- 19세기는 國民의 원리가 파급된 시기이기도 함. /주권국가의 정규의 구성원 -<想像의 공동체>-직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특정의 국가이외에는 어떠한 단체에도 예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 시에는 전쟁에 동원되어 기꺼이 응할 것 이라고 기대 됨 - 북미합중국의 독립전쟁, 프랑스혁명 시 유행. /종래의 제국이나 왕국에 있어서의 왕족, 귀족, 교회나 사원과 서민과의 관계.
- 일본의 경우, 비백인 세계에 있어서 제일먼저 이 원리를 채용. 동시에 순수한 수입품이 아니고 19세기 전반에 서양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프로트내셔널리즘에 의해 일본국민이라는 의식이 형성됨.
- 국민의 원리는 代表와 公論이라는 원리도 수반-의회, 의원의 선거 등/유럽에 있어 이전엔 국왕은 질서의 대표였어도 국민의 대표는 아님(독일 귀족의 딸이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女帝로 됨). 그러나 국민의 원리가 보급됨에 따라 군주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표현을 하게 됨(독일계의 영국왕실이 원저라는 영국풍의 성을 쓰기시작 함)/ 일본의 왕실은 이 점에 있어 무난함.

◆ 19세기전반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지식인

1.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

- 1)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희박화-동북아시아의 해상교통관계는 18C후반 에는 일단 축소되었다.

중국-내륙원정, 관도가 최대, 무역항을 廣州하나로 축소.

조일관계-상호경시, 일본의 인삼국산화진전, 통신사도 1811(文化8)을 끝으로 중지.

- 서양이 다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시에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한중일 삼국은 상호 무관심해져 서양제국에 대해 공동대응의 기반을 상실.

- 2) 서양의 동아시아재진출-영·불과 러시아

17세기-네덜란드

마라카해협-향료 諸島-동아시아해협-중국의 諸港, 동남아시아의 諸港市, 마카오 / 스페인령 마닐라▶중계무역

18세기-프랑스와 영국이 패권을 전지구상에서 다툼.

1792(寬政4)년에 러시아의 사절 락스만이 根室·松前に 出. 북미서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피수렵자들에게 일본으로부터 식량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 러시아의 진출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을 크게 바꾸게 하지만 당시 이에 강한 관심을 가진 곳은 일본뿐이었다.

2. (鎖國→)海禁정책

- 19세기 전반의 일본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알면서도 이를 큰 위협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이전에 취해온 노선을 자각함과 동시에 이를 답습했다. 외부에 대해서는 국경을 막는(鎖) 정책을 원칙화 하고 서양제국에 대해서도 일본일국이 대처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 鎖國이란 용어는 서양과의 관계중시에서 오는 용어. 그러나 근세일본은 극도로 폐쇄적
- 조선(對馬의 宗家)과의 관계-대등관계가 아닌 역방향의 부등호관계; 통신사, 대군칭호, 巡視, 대군과 조선국왕, 천황 등 /薩摩の大名島津家と琉球-류구 사신에 청국풍의 옷 강요(일본의 소중화주의)/蝦夷地南端의 大名松前家와 蝦夷地の 住民-公儀의 독점관리/公儀直轄의 長崎와 기타와의 대외관계- 出島の 네덜란드상관장의 경우 등.

1) 海禁·避戰·海防

18세기말, 松平定信은 장기적, 군사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체계화하고 그 중심에 「海禁(鎖國)」정책을 두었다. 그때까지의 대외정책은 禁書과 관습 속에서 처리해왔다.

定信은 나가사키무역의 제한을 강화하고 조선통신사의 응접지이전을 단행하는 한편, 異國船일반의 취급도 엄격화했다(일본에의 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른 한편 사다노부는 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군비의 재건과 단기적인 전쟁 회피에도 배려. 蝦夷地와 江戸灣의 해안방비(海防)을 계획, 러시아에 대해서는 표면상으로는 엄격한 쇄국방침을 견지하면서 이면에서는 분쟁회피를 위해 蝦夷地에서의 교역을 개시할 가능성을 시사함. 이 후 러시아와는 긴장관계를 가져다준 사건(1804년의 레자노프 방일, 수교요구, 1811년의 콜로빈사건)도 있었지만 긴장이 완화된 후의 1825(文政8)년에 異國船打拂令(無二念打拂

습)를 공포. 이국선이 일본의 해안에 근접하려는 의도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당시의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위기가 사라진 뒤, 실제의 경험에 비추어 세계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쇠국은 태평을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정책 이라고 믿게 되었다.

3. 근세일본의 자국인식

- 중화제국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소중화주의를 추구.
- 小國이라는 공통인식, 전면적인 자기비하는 아님-/日本は小國にて、人の魂魄の精うすく、堪忍の力弱し。熊澤蕃山『集義和書』卷四/日本は小國たるゆへに心も實すくなく道にくらきゆへに仁心日々にほろび..『金持重寶記(元祿7<1694>年)』 /
- 神神の國, 神道の 나라.
- 일본의 소중화주의의 근거-武威-서양국제사회에 적응이 쉬움, 「御威光」/조선의 소중화주의의 근거-人倫 / 「大明之長袖國」對「日本弓箭きびしき國」-秀吉 / 日本は小國でも、唐高麗から指ささせぬは、皆武徳なりと..
- 華夷思想への對應-自國中華主義: 十七世紀、天皇の祖は周の文王の伯父泰伯說→「人より之を視れば、中國あり、夷狄あり。天より之を視れば、中國無く、夷狄無し」
「중국에 성인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 「일본을 中國으로 표기 함」、

중국은, 「人柄甚ワルキ國。ソレユエ禮樂ニテ聖人人治メタマヘリ、日本は禮樂ナシニ治マルヲ見レバ、華人ヨリハ人柄ヨキナリ」、 「今に至るまで君臣相傳へ、綿々として絶えず。之を尊ぶこと天の如く、之を敬すること神の如し。實に中國の及ばざる所」、 「唐の風俗は日本と違ふて、天子が渡り者も同然にて、氣に入らねば取替へて、天下は一人の天下にあらず、天下の天下なりとへらず口をいひちらして、主の天下をひったくる、不埒千萬なる國ゆえ、聖人居出でて教へ給ふ。..日本で天子を疎略にすると、慮外ながら三尺の童子もだまって居ぬ氣に成るといふは、忠義正しき國ゆえなり。夫故にこそ天子の天子たるものは、世界中に雙ぶ國なし」

- 서양에의 관심이 순조롭게 육성되었음-조선과의 차이, 학문의 자유/ 18세기 蘭學의 발전(의학, 지리학, 천문학 등)/ 국제관계에 관한 정확한 지리지식 등(山村才助「訂正増譯采覽異言」1804<文化元>年)

4. 지식인의 세계인식

◦ 관심의 이동-중국에서 서양으로

18세기이래, 지리학의 발전과 러시아와의 접촉을 배경으로 일본의 지식인은 다양한 대외론을 저술했다. 대개가 경제적 관점에서 무역확대나 해외진출을 제창.

◦ 海防의 중요성과 서양식의 총포나 선박의 채용을 주장한 林子平은 예외적인 존재.

◦ 그러나 러일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나자 지식인들의 대외론은 군사면에 착목해가면서 구체적인 외교정책이나 내정개혁을 논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서양의 군사적 탁월성을 인정하고 국내체제의 재건을 중시하는 한편, 근린제국과의 관계에 언급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조선은 대개가 의식에서 탈락하고 중국은 대국의 자존심이 약체화의 자각을 방해하는 반면교사로서 언급되기에 그쳤다. 일본지식인의 세계상은 중국에서 서양을 주축으로 구성되도록 명백히 전환했다. 그러나 당시의 대부분의 일본인은 환경이 허락하는 한 의식적으로 평화와 무사를 위한 쇄국을 추구할려고 했다.

◦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인 평화추구에 대해 강한 반대론도 존재했다. 水戶의 會澤正志齋의 尊王攘夷論과 公儀의 儒官 古賀侗庵의 航海進出論이 그것이다. 양자의 결론은 攘夷와 開國으로 정반대로 보이지만 서양의 세계제패의 추세를 중시하고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설로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이 아편전쟁에 의해 격변하기 이전에 제창했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 知的네트워크의 形成-身分과 地域을 초월해서-

- 근세후기의 일본에서는 「日本」을 단위로 하는 네셔널리즘의 기초조건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 핵심이 된 것은 편지를 교환하거나 책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知的네트워크이다. 서민의 경우는 상업망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 각지의 상층서민은 원근의 상거래의 상대와 취미나 학문상에서도 교제를 해, 때로는 혼인관계도 맺었다. 이들은 자기지역에 지적인 서클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는 지식인을 초청해서 서화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중에는 塾를 세워 각지에서 학생을 모은 자도 있었다. 本居宣長가 伊勢松阪에 鈴屋를 세운 것은 그대표적인 예이다.

1) 塾의 역할

예-廣瀨淡窓^{ひろせたんそう}(1782-1856)의 큐슈 日田의 咸宜園^{かんぎえん}의 「三奪法」가 유명. 즉, 학생간의 서열을 연령불문, 입학전의 학력불문, 신분이나 집안 불문한 오로지 학력에 의해서만 결정. 이러한 예는 福澤諭吉 『福翁自傳』에 나오는 緒方洪庵의 蘭學塾·適々齋 등도 마찬가지임.

2) 塾은 세상의 신분이 소멸하는 장소이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한 교제를 하게 되었다. 塾는 또한 지역을 넘어선 교제 망과 想像空間을 창출했다. 근세에는 예능의 세계에서 家元制度가 발달했는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역으로 복수의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당연시되어 학생들은 여러塾을 遊歷했다. 그것은 한학, 국학,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분야를 초월하는 여행이기도 했다. 복합국가와 신분제라는 질서속에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지적네트워크가 창출된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문자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이며 사람들은 지역마다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문자의 세계에서는 漢字假名交文이라고 하는 書記法, 그리고 화제(古典, 歷史)를 공유했다. 언어에서도 지방언어와 중앙언어를 몸에 익히게 되어 개개의 국가를 뛰어넘은 일본이라는 상상공간이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3) 遊學의 意味

- 무사가 이 시스템에 끌려들어간 것은 다이묘의 참근에 수행 혹은 특명에 의한 遊學이 주된 계기였다. 특히 막말에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예로서,
橫井小楠(에도유학)-藤田東湖-林大學頭-福井松平家/桂小五郎-齋藤彌九郎-江川太郎左衛門
- 이러한 학문이나 무예의 塾은 지역과 신분을 초월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근세후기의 일본사회에 생성시켰는데, 처음에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편전쟁을 즈음해서 무사들에게 의해 의도적으로 이용되어 더욱이 서민상층도 정치세계에 휩쓸려 들게 되었다. 1877(명치10)년의 자유민권운동도 이러한 지적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公議」제도도 이러한 기반위에 생성된 것임.

IV. 막말·유신기(1853년-1867년)

開國

- 泰平のねむりをさます 正喜撰
たった四はいで 夜もねられず -狂歌-

1. 페리의 내항과 일본의 개국

-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발견, 서부 개발 급속히 진행, 인구의 대이동
- 포경선의 중간기지와 중국항로 확보를 위해 일본에 개국 요구
- 1853년 4척의 함선을 이끌고 우라가내항, 6개월 뒤인 1854년 1월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에도만 도착
- 미·영·러·네 와 화친조약 체결- 시모다, 하코다테 개항(편무적 최혜국 허용)
-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체결, 이어서 네·러·영·프(안세이 5개국 조약)

2. 장군 후계문제와 안세이의 대탄압

- 13대 이에사다(家定) 후계문제-히토츠바시파(시마즈 나리아키라→요시노부 지지)와 남기파(요시토미-이에모치 지지)의 대립
- 효명천황과 존왕양이론자의 대두와 사쿠라다문(桜田門)밖의 변(1860년)

3. 공무합체·양이실행

- 국내 생필품의 유출과 물가상승, 금의 대량유출(예: 금은의 교환비율, 일본 1:5, 구미 1:15)→ 양이론의 비등
- 공무합체: 막부권위 회복 및 양이론의 억제- 이에모치와 가즈노미야 치카코(和宮親子 内親王)의 결혼
- 로쥬 안도 노부마사(安藤信正) 습격사건(坂下門外の変), 이와쿠라 도모미 암살미수사건- 삿쇼의 정치적 발언 증대, 막부의 개혁(도쿠가와 요시노부-장군 후견직, 마츠다이라 가타모리-경도 수호직 임명)
- 막부의 양이약속(1863,5.10일), 쇼슈번의 시모노세키 외국선 포격과 구미 연합함대(영·프·미·네)의 쇼슈포대 공격(1864년)→ 양이포기, 토막으로 정책전환
- 1863.8.18 정변과 금문의 변(禁門の変, 1864.8)
- 나마무기(生麥)사건(1862년)과 사츠에이전쟁(1864년)→ 양이포기, 토막으로 정책전환

<참조>

安政3年 (1856年)

- ハリス襲撃未遂事件

安政6年 (1859年)

- ロシア海軍軍人殺害事件
- フランス領事館従僕殺害事件

安政7年 (1860年)

- 日本人通訳殺害事件
- フランス公使館放火事件
- オランダ船長殺害事件

万延元年 (1860年)

- フランス公使従僕傷害事件
- マイケル・モース事件
- ヒュースケン殺害事件

文久元年 (1861年)

- 第一次東禅寺事件

文久2年 (1862年)

- 第二次東禅寺事件
- 生麦事件
- 英国公使館焼打ち事件-井上聞多 (後の井上馨)、伊藤俊輔 (後の伊藤博文) 등이 참가.

文久3年 (1863年)

- 井土ヶ谷事件

元治元年 (1864年)

- イギリス陸軍軍人殺害事件

慶応2年 (1866年)

- 鳶の小亀事件 (フランス水兵殺害)
- ハリー・パークス恫喝事件

慶応3年 (1867年)

- アーネスト・サトウ襲撃事件
- 英国水兵殺害事件
- ヘンリー・スネル襲撃事件
- 英国水兵襲撃事件

慶應4年 (1868年)

- 神戸事件
- 堺事件
- パークス襲撃事件

4. 삿쵸동맹과 대정봉한

- 사츠마번(島津氏)과 쇼슈번(毛利氏)의 관계- 견원지간
- 사카모토 료마와 삿쵸동맹(사이고 다카모리-기도 다카요시, 1866년)
- 제1(1864) · 2차 쇼슈정벌(1866)
- 농민봉기 빈발, 효명천황 사망, 이에모치 사망, 도사번의 건의로 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의 통치권 반환(대정봉한)

V. 근대(명치전기)

※ 별도 배부한 프린트 자료 참고

1. 1867년 12월 9일의 쿠데타(왕정복고)

-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등 (사츠마 · 도사 · 아키 · 오와리 · 에치젠번)에 의한 궁중 쿠데타- 명치유신
- 총재 · 의정 · 참여 등 3직 설치
- 慶喜의 「辭官納地」 문제 / 토막과 對 公議政體<列侯會議>派
- 무진전쟁과 전국통일(1869년 5월 하코다테 오능곽 함락). cf. 신센구미(新撰組)
- 明治維新의 어원 : 「易經說卦傳 「聖人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 詩經大雅、文王 「周雖舊邦 其命維新」, 書經, 「舊染汚俗咸共維新」

2. 유신정부의 성립

- 판적봉환(版籍奉還, 1869)과 폐번치현(廢藩置縣, 1871)
- 5개조서문(1868.3), 江戸를 동경으로 개칭(1868.7), 명치천황 즉위식(1868.8), 명치개원(1868.9), 천황의 동경 행차(1868.10), 동경천도(1869.3)
- 관제개편: 三職制(王政復古の大號令, 慶應3·12·9)→三職七科制(慶應4·1·17) → 三職八局制(慶應4·2·3) → 太政官制 I =政體書(慶應4·閏4·21)→太政官制 II =職員令(明治2·7·8) → 太政官制 III(明治4·4·14-明治8·4·14)→內閣職權(明治18<1885>.12) → 內閣官制(明治22<1889>.12) → 內閣法(昭和22<1947>.5)

3. 명치정부의 제 개혁

- 학제반포(1872<明治5>. 8), 태양력의 채택, 의복의 서양식, 해외유학생파견, お雇い外人, 明六社, <和魂洋才·東道西器·中體西用> 등.
- 새로운 신분제(황족-화족-사족-평민)와 4민평등(1872<明治5>. 1)
- 徴兵令制定(1873<明治6>.1)과 血稅一揆
- 1871년 전답조성의 자유화, 매매의 자유화, 地券의 교부, 地租改正(1873)
- 식산흥업-근대산업의 발달-1870년 工部省설치, 관영무기공장, 광산, 철도 개설, 전신, 우편제도, 해운업, 政商, 개척사, 제사업, 화폐단위의 개혁, 국립은행설치 등.

4. 명치정부의 대외관계

- 국경의 확정-1854(安政1)년, 러일화친조약 시 국경, 1875(명치8) 5월 千島·樺太交換條約調印.
- 琉球處分-1871(명치4)년 일청수호조약, 류큐의 표류민이 대만선주민에게 살해, 1872(명치5)년 류큐번설치, 1874(명치7)년 5월 대만출병, 1879(명치12)년 沖繩縣설치(청국의 항의),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땅이 됨.
- 1876, 조일수호조규.

<참고>

□ 명치유신과 조선문제

幕末의 日朝關係

- 조선통신사-3회+9회<1636(寬永13)년-1811(文化8)년>, 정사, 부사, 종사관 500여명.
막부측, 조선측의 의도, 對馬藩의 宗氏의 家業, 通信(일본측)·交隣(조선측)관계.
- 1866년(慶應2), 9월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 10월의 프랑스함대사건, 조선 정부는 이 사건을 일본의 막부에 알림-1867(慶應3)년에 막부는 미, 불양국과 조선의 중재를 위해 外國 奉行인 平山敬忠(히라야마 요시타다)를 츠시마에 파견함. 막부서한의 내용-「方今宇内の形勢、萬國の事情」「隣交の永遠、唇齒の保固」: 전통적인 조일관계를 근대 국제사회의 원리에 입각해 설득▶실현이 안됨.
- 당시, 홍콩에 사는 일본인 八戶順叔(가명)이란 자가 광둥의 「中外新聞」에 일본이 80척의 증기군함을 건조해서 조선정복을 기도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실음. 이후 막부의 멸망.

朝鮮觀歪曲의 原點

- 츠시마번사 오오시마 토모노죠(大島友之允), 文久期에 對馬藩 大坂留守居役으로서 木戶와 친교. 명치원년 윤4월 6일에 번주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副總裁인 岩倉에게 對馬藩의 입장을 설명.
- 의견서의 내용(목적)과 문제점-對馬藩의 목적은 신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그러나 文言이 문제. 조선은 「往古日本府」를 세운 적이 있고 「我が版圖同様」云云. 이러한 문언이 의도와는 달리 영향력을 가짐.

明治征韓論의 始祖 木戶孝允(명치2년 1월30일의 岩倉에 보낸 서한 등)

- 오오시마가 기도에게 入說-木戶의 征韓論의 의도-천하의 陋習(정부에 대한 제번의 비협력 및 제번상호간의 대립, 정부내부에 있어서의 岩倉-大久保라인에 대한 불만 등)과 惡弊를 一變시키기 위한 대내 정치적목적을 위한 대외긴장의 이용. <會澤安의 『新論』>
- 木戶의 정한의 근거-추상적인 「宇内の條理」 / 木戶 정한구상 무산

日清修好條規의 배경

- 1871(명치4)년 4월 欽差全權大臣 大藏卿伊達宗城, 副使外務大丞 柳原前光, 同權大丞津田眞道. 李鴻章. 明治4年7月, 日清修好條規一八條, 通商章程三三款, 海關稅則調印-일본의 최초의 평등조약. 그러나 상호불평등조약이 존재. 그것은 청일상호간에 영사재판권 및 협정 관세율 부여하기로 한 점.

그 후의 전개

- 관적봉환 후 大島友之允는 嚴原藩(이즈하라, 이전의 츠시마번)의 幹傳官(통역담당 역관)인 浦瀬 裕를 파견(1870<명치3>년) 교섭재개, 순조. 그러나 매마침 일본주재 독일연방공 사인 막스 폰 브란트를 태운 군함 헬타호가 부산에 출현. 그 배에 일본의 외무성 관리와 嚴原藩의 通詞가 동승. 결렬-일본이 서양오랑캐와 공모했다는 인상을 줌-조일 양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유발.
- 1871(명치4)년 7월 폐번치현. 명치5년 9월에 유신정부는 초량왜관을 접수해서 大日本公館으로 개칭. 일본 공관 앞에 일본을 「無法の國」으로 비난 개시관을 부착-일본국내의 정한론에 기름을 부음. 일본정부 내에 (西郷의)정한론이 등장.
- 1876(명치9)년 「日朝修好條規」特命全權辯理大臣 黒田清隆(薩摩藩士, 陸軍中將兼參議), 特命副全權辯理大臣井上馨.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발행인 :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발행일 : 2013년 1월 7일

발행부서 : 동북아역사재단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151

<http://www.nahf.or.kr> / eduhistory@nahf.or.kr
